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5월 27일(음력 5월 4일) 수요일(주간)

'대의왕'의 길 어디에…

東大 불문연·의료원 '불교와 의학 접목' 세미나 '주목'

불교는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인 종교다. 의학은 인간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학문이다. 불교와 의학은 인문학과 과학처럼 얼핏 관계없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 고해(苦海)에서 헤매는 원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는 물론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혔다. 부처님이 제시한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가르침은 인간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학과 다르지 않다.

근본경전인 <아함경>에는 병을 잘 알고, 병의 원인을 잘 알며,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의왕(大醫王)'이라 했다. 여러 대승경전에서는 "병에 따라 약을 주고, 보살은 그(여래)를 따라 널리 교화한다"고 해 부처님을 '대의왕'으로 지칭했다.

마음공부라 불리는 불교적 수행법은 몸과 마음이 하나(心身不二)인 까닭에 마음은 물론 몸도 건강하게 한다. 수행으로 체득하지 못한 경지에 대해 막연한 짐작만 갖던 이들에게 과학적 수치와 이론을 토대로 한 실험결과 등을 근거로 불교와 의학의 접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립 동국대 의료원(원장 이명묵)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불교와 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5월 28일과 30일 1부와 2부로 나눠 봉축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부는 '뇌, 경락 그리고 마음'을 소주제로 5월 28일 오후 2시 동국대 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인성 원장의 기조발제 '불교는 왜 의학에 관심을 가져야하나?'를 시작으로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뇌 연구를 통한 마음의 이해' △소광섭 서울대 교수의 '선과 경락 및 뇌신경 봉한시스템'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뇌와 의식 그리고 불교'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2부는 30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치유와 소통'을 소주제로 펼쳐진다.

구병수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이 기조발제 '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불교'를 비롯해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교계율에서의 의학과 건강법'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의 '불교수행과 심신치유' △이문성 한국분석심리학회장(정신과 의사)의 '선과 정신분석의 만남에 대한 소고' △강용원 마음향기한의원장의 '한국적 심리상담의 모색' △김재일 아주대 의대 교수(前 티벳의학원장)의 '티벳의학에서 보는 마음, 질병 그리고 건강'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심신의학'이 발표된다.

오후 1~2시에는 법현 스님(동국대 교수) 등 9인의 영산재 공연도 펼쳐진다.

이미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불교적 수행법이 임상치료에 응용돼왔다. 미국 매사추세츠 의료원의 존 카밧진(Jon Kabat-Zinn) 교수가 위빠사나 수행법을 응용해 '마음챙김(mindfulness)'의 명상법 체계를 심리치료에 접목시킨 것이 그 예다.

서구 의학전문가들의 발 빠른 도입에 과학적인 치료검증은 이미 끝났고, 의료보험까지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행사는 조계종립의 학술과 의학을 다루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개인과 학회 등 개별단위로 이뤄졌던 불교의학 연구에 메이져급 기관들이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현갑 명예교수는 "명상과 의학은 마음과 몸을 측정해 비정상이란 것을 알아차려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주장했다.

장 명예교수의 설명처럼 본래 부처인 자기 본성을 비추는 수행(명상)이나, 본래 건강한 신체를 회복하는 의학이나 본질은 같다.

1600여 년 한국불교에서 불교와 의학은 이미 오래 전 만났어야했다.

28일과 30일 동국대 불교학자와 동국대 의료원을 주축으로 한 의학 전문가들의 만남에서 대의왕이 나툴 지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오체투지 108일의 '염원' 수경 스님과 문규현·전종훈 신부가 이끄는 오체투지 순례단은 순례 108일 째인 5월 2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청앞 광장을 출발해 서울 조계사에 도착했다. 이날 시민 300 여 명과 함께 한 순례단은 비와 함께 땅에 엎드리며 사람, 생명, 평화를 위한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단은 오후 5시 조계사에서 진행된 사람·생명·평화를 위한 시국법회'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박재완 기자

"전통사찰 공원지역서 제외하라"

조계종, 문화유산지역 신설·공원법 개악 중지 등 요구

"(정부는) 사찰 소유지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중단하고, 문화유산지역을 신설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을) 국가문화정책에 따라 관리하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립·도립·군립 등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추진위)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내 전통사찰들이 갖춘 성보문화재와 천혜의 자연환경은 승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라며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전통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격려했다.

위원장 원학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해 환경부는 문화적 마인드가 결여된 채 자연생태계 보전과 공원자원 훼손 방지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환경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부위원장 현응 스님은 "국립공원 제도는 이 지역을 사찰 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종교편향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전국 문화재사찰 주지스님, 자연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스님 등은 '잘못된 자연공원 제도의 전면적 시정을 요구하며'라는 부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전통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 △(가칭)문화유산법 제정 통한 전통사찰 규제 단일화 및 (가칭)문화유산지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종단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종단 의지의 관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등 사찰별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 정각회 및 시민환경문화단체 등과 연대해 자연공원법 개악 저지 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고산 스님


인터뷰 ▶8 보광 스님

도반의 향기-김해자 누비장 ▶9
뉴욕 불광선원 법당 개원 현장 ▶5
국제불교영화제 참가기 ▶19
동주 스님 불교의식집 집대성 ▶18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학교 끝나고 어디 가니? 나는 공생청소년센터 간다! 우리 거기서 만나!"

불교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배 라오스. 순수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라오스에는 절대 빈곤에 기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74%가 영양 부족으로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등록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기 위해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본지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라오스 싸이타니구 지역 3000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꽃을 해치지 않은 채
꽃가루만 따가는 벌처럼
잠깬 이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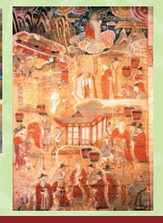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봉사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문화포교에 관심 기울일 때

어린이 · 청소년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만들어진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1,2,3>이 지난 3월 출판사 창고에서 퇴출당했기 때문. 큰 원을 세우고 만든 음성포교집이 찬밥 신세가 됐으니 담당자의 고충이 대략 짐작은 된다.

10주년 기념 반주곡집은 불자와 시민에게 보시를 하고도 5000여 권이 재고로 남았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입점했지만 홍보나 판매가 전혀 안 됐다고 한다. 교계에서 찬불가 피아노 교본이 필요하다던 열화와 같은 성원은 다 어디 갔을까?

이 뿐 아니다. '좋은 벗 풍경소리'가 매년 제작하는 어린이 찬불가 음반에 대한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만들 때마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음반제작 한 번 할 때 마다 빚만 쌓여간다.

최근 포교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적은 투자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포교다. 찬불가 · 템플스테이 · 에니메이션 · 영화를 비롯한 문화포교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김수환 추기경 선종 보도는 최소 50만에서 200만까지의 카톨릭 신도를 증가시켰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알다시피 S통신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는 기독교 음악장르인 CCM이 독립장르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개신교의 찬송가 등이 종교음악시장에서 가지는 위치와 영향력은 막대하다.

토머스 데이븐포트는 <관심의 경제학>에서 21세기 비즈니스 세계의 가장 희소하고 새로운 가치는 '관심'이라고 말했다. 자본과 노동력, 정보와 지식 등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데이븐포트는 관심에 주목했다. 관심도 일방적인 관심은 안 된다. <관심의 경제학>이 주장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은 소비자가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 개인화기술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외사랑이나 짝사랑이 이뤄지지 않듯이 반쪽자리 관심은 무의미 하다. 관심이 곧 투자고 투자한 만큼의 결과는 당연한 인과법이다.

아쉬울 때 찾고 돌아서면 잊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대상의 요구를 헤량하는 관심이 절실한 때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반대'

불교계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행렬 동참

자연공원 개발을 골자로 5월 1일 입법예고된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불교계 입장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청회를 열고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심익섭)는 5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불도저식 개정추진과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위해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등 1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 2000년 9월 발족한 정책개선 시민연대조직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 관계자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심익섭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불교계와 생태 및 환경보호의 시민단체가 이런 자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환경부에 대해 "청와대 방침 때문인지 환경부가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못할망정, 참석조차 하지 않은 환경부는 '환경'이라는 명호를 떼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구균 교수(호남대)의 '5월 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 주제발제를 통해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국립공원 훼손을 우려했다.

오 교수는 1980년대 전라북도 요청으로 무주리조트 등을 개발, 곤돌라와 골프장 등으로 생태, 환경파괴가 진행된 덕유산 사례를 들며 "10년동안 국립공원 보전을 포기해 온 환경부는 이제 개발부처가 돼 버렸다. 당시 레저스포츠 관광지로 전락시켜 국립공원 가치를 상실한 댓가로 이를 추진한 공원관리청이 그 책임을 지고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전처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보다 먼저 현 자연공원관리 제도를 검토, 개발정책보다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인 교수(부산대)는 '우리나라 공원관리 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점'에서 "국립공원에서 40%에 이르는 사유지의 개발을 국립공원 틀로 규제해 온 정부가 오히려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역사문화지구 구성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개정절차에 따르면 이번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새 신도증 발급 1만명 훌쩍

조계종 포교원 21일 운영 시스템 시연

조계종 새 신도증 발급자가 발급 2개월 여 만에 1만3000명을 넘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5월 15일 새 신도증 발급자 1만명 돌파, 21일 새 신도증 운영 시스템 시연을 실시했다.

이날 시연회는 새 신도증 첫 발급자인 정정식(서울 구룡사 거사회)씨와 1만 번째 발급자인 김가옥(서울 잠실 불광사)씨가 조계사 산중다원과 불교용품점에서 새 신도증을 시연했다.

혜총 스님은 "기존 신도증이 신도들에게 미비한 혜택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새 신도증은 108가지의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포교, 신행, 사회 활동에도 이익을 주고자 했다"며 "조계종 신도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함께 활기찬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만 번째 주인공인 김가옥씨는 연꽃마을에서 10년 째 봉사를 하고 있으며 예비 포교사 준비 중인 참불자다. 김씨는 "불자로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은 앞으로 불법을 더욱 널리 홍포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번 새 신도증 사업에서는 신도등록사업 전면 개편과 함께 '조계종 신도멤버십' 개념으로 전국 사찰을 포함한 제휴처에서 신도증의 유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했다. 나이스정보통신주식회사(대표 안광조)와 공동 협력해 멤버십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해 사찰이나 주변가맹점 등에서 신도증 사용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팀 황철기 팀장은 "새 신도증은 '신행과 생활공동체'를 지향, 종단 등록 신도의 신행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계종 산하 주요 사찰에서 직 ·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 또는 불교용품점, 신행프로그램에서 7월부터 5~2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관혼상제 등 신도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휴처를 확대해 조계종 신도로서의 권리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불교임종의례·상례 포교에 도움"

조계종 포교원 제32차 포교종책연찬회 열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이 5월 21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2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불교 임종의례와 상례 지침서의 방향'을 논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임종과 죽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종교적 위안과 안식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며 "불교계에서 불교 임종의례와 상례 지침서는 불교포교에 커다란 기여와 함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안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겸임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는 주제발표 '불교 임종의례의 정의와 내용'에서 표준 임종의례 지침서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비불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 포교 전략적 의도도 함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토마을 호스피스 원장 능행 스님은 "불교의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죽음은 '현실'임을 알고 임종의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해서 다양한 자료연구와 임상적인 접근을 토대로 의식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남숙 원장(한국생활문화연구원)은 '불교 상례의 의미와 절차'에서 △우리나라 유교식 전통상례 △의례준칙에서의 상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불교상례 등을 설명했다.

조계종 기획실 기획국장 미등 스님은 "불교 상례는 의례와 교리의 합당성, 의례를 통한 신앙심 고취, 대중성과 신성성을 담보한 포교적 관점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불교상례와 관련된 장례, 다비, 시다림 등의 정의 선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상언 기자

국정 기조에 우려 표명

지관 스님, 쇄신특위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스님은 5월 21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위원들의 예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스님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지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자에 따르면, 지관 스님은 "경제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환경부 방침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관 스님은 한나라당 의원 방문 후 예방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4 · 29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에는 덕담을 아끼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조동섭 기자

부천스포피아 미납액 등 일단락

영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에 납부

조계종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사태를 빚었던 부천스포피아 문제가 일단락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대오)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천스포피아 매각 이후 발생한 미납공과금과 이자 등 8400여 만원을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총무원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오 스님은 "영담 스님이 원고측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함은 물론, 부천스포피아 판결과 관련해 종단의 추가 소송 및 손해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정했다"며 "영담 스님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돼 있는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농협 통장에 대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 포기 및 압류해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복지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계종유지재단이 1999년 수탁 받아 부천 석왕사가 운영지원사찰로 지정돼 운영을 맡아왔다. 2005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시설을 공개매각하면서 석왕사가 8~12월까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을 미루면서 수탁자인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됐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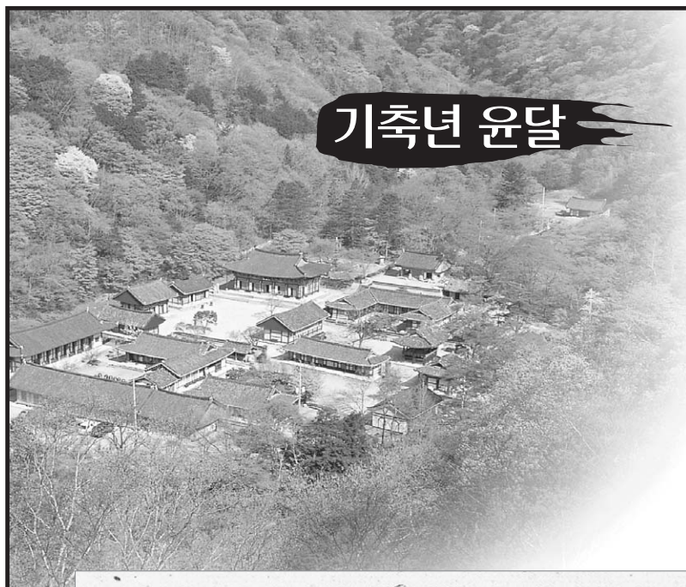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창립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산하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창립됐다.

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수경)는 불교합창단의 전국적인 연대와 교류를 위해 5월 21~22일 전국불교합창단 임원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중에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를 창립했다.

전국 합창단 단장 및 임원 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대 회장에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 회장이 추대됐다. 더불어 부회장으로 대전불교합창단연합회 김연희 회장, 전북불교연합합창단 송영효 대표,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최정희 단장 3인이 추대됐다. (02)2011-1772

김성우 기자



고불총림백양사 생전예수재 동참 안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기축년 5월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진 빚, 즉 업을 죽기 전에 미리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으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기를 발원하는 천도재입니다.

예수재를 봉행하는 공덕은 동참하는 당사자만이 삼계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이 무량하여 그 이익이 자손만대에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불자님들께서는 이웃에게도 권선하시어 다 함께 무량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나무 대성인로왕보살 마하살 나무 유명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백양사 영각당(납골) 봉안 안내

백양사 영각(납골)당은 도량내에 위치하여 언제나 대덕큰스님들의 염불이 끊이지 않아 영가들에게는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의 역할을 하고, 살아있는 불자에게는 본래 청정심을 찾아가는 수행처로서 극락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마음에서 찾게 해주는 추모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을 맞아 백양사 영각당에 선망부모를 모시어 영가가 불법을 들어 마음 닦을 기회를 주고 유가족이 불보살님께 공덕을 쌓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가들을 극락으로 이끌어 줄 백양사 영각당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의_ **백양사 영각당 061)392-7320**



■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입재 5월 28일 (음, 5월 5일) 목요일 10시	초재 6월 3일 (음, 5월11일) 수요일 10시
2재 6월 10일 (음, 5월18일) 수요일 10시	3재 6월17일 (음, 5월25일) 수요일 10시
4재 6월 24일 (음,윤5월 2일) 수요일 10시	5재 7월 1일 (음,윤5월 9일) 수요일 10시
6재 7월 8일 (음,윤5월16일) 수요일 10시	회향 7월15일 (음,윤5월23일) 수요일 10시

• **동 참 금 _** 개인 30,000원, 가족 100,000원 • **접 수 처 _**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 **입금계좌 _** 농협645117-51-010764 백양사(입금 후 확인전화 요망)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문화재보호법 개정

현상변경 대상 등 명확히

단 한 명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있어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앞으로 관계전문가 1/2 이상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을 5월 21일 공포했다.

이외에도 개정령에서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해당 문화재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막연하게 규정하던 것을 △부동산 문화재는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1/4 이상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해 신고대상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존·관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규제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이번 개정령이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오체투지로 진실 말해"

오체투지순례단 서울 입성… 조계사서 시국법회

"사람, 생명, 평화의 길을 찾아 지난해 9월 4일 지리산을 떠난 오체투지순례단이 서울 조계사에 도착했습니다."

생명·평화를 사랑하는 불자와 서울 시민들의 환영 속에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정종훈 신부 등이 이끄는 오체투지순례단이 5월 21일 서울 시청광장, 청계광장을 거쳐 조계사까지 순례했다.

가장 낮게, 또 가장 느리게 하루 3km씩 자벌레 처럼 기어온 지 108일 되는 날이었다.

태풍과 같은 고난에도 멈춤 없이 진행된 오체투지 순례 앞에 내린 이날 봄비는 순례단 서울회향을 반기는 꽃비였다. 딱딱한 아스팔트길도, 더러워진 진흙길도 스스로를 참회하는 그 몸짓을 막을 순 없었다.

16일 남태령 서울 입성부터, 20일 명동성당 미사, 21일 조계사 법회까지 진행된 서울 순례에는 불교환경연대, 정토회 등에서 참가한 1000여 명의 선지식들이 함께했다.

오후 5시 경 조계사에 당도한 순례단은 이어 불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사람, 생명, 평화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했다.

시국법회에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시국발언을 통해 "부처님은 석가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 땡볕 아래 계셔서 코살라국의 악왕을 되돌렸다"며 "세 성직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지도자를 깨우치고자 108일째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그 지도자는 감았던 눈을 뜨지 않고 막혔던 귀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언제 지도자가 눈을 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 성직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순례단에 함께 하자"고 격려했다.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시국법어를 통해 "입장, 감정, 욕망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말을 대신해 세 성직자는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 정부에 대해 두 손과 두 무릎, 이마로 묻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참사, 대운하 추진, 방송법 개악추진 등에 대한 참회와 생명 평화에 대한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된 시국법회는 저녁 6시경 마무리됐다. 앞으로 순례단은 서울을 떠나 임진각 망배단을 향해 6월 6일까지 총 230km에 달하는 '참회의 길'에 오른다.

노덕현 기자



정조대왕 효행유적지에 아파트라니…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학계·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정조대왕 효문화 유적지 보존 범국민 연합'은 5월 20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경기도 화성 정조대왕 유적지 내 고층 아파트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 윤건릉 정조대왕 효문화 유적지 파괴중단 보존촉구 국민운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글 = 조동섭 사진 = 박재완 기자

나옹 선사 테마파크 조성 된다

경북 영덕군 400억 들여 다양한 선양사업 계획

여말선초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고려 공민왕과 우왕 때 왕사를 지낸 나옹 선사의 테마파크가 경북 영덕군에 조성된다.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2008년 10월 나옹 선사(1320~1376)가 출가하면서 소나무 지팡이를 꽂았다고 전해지는 영덕군 창수면 반송유적지에 선사의 사적비를 건립했다. 영덕군은 이와 함께 4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나옹 선사가 창건한 장육사와 생가터 등을 관광벨트로 연결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나옹 선사 진영.

이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5월 18일 김병목 영덕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나옹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등 성역화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목 군수는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 등 다각적인 기념사업을 통해 역사적인 교육장소로 전 국민이 즐겨 찾는 불교성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반송유적지에 세워진 나옹 선사의 사적비는 길이 5m, 높이 3.4,에 무게 47t의 보령 오석(烏石)으로 제작됐다. 비문은 지관 스님이 직접 작문했다. 조동섭 기자

한중 불교문화교류 위한 육조재

한국육조재봉행위·중국 육조사 공동 주최


5월 21일 봉행된 제2회 육조재는 달마 대사의 주석처인 소림사·육조사와 한국불교의 문화 학술교류의 장이었다.

한국육조재 봉행위원회(위원장 연화)와 중국 광동성 육조사(방장 대원)는 공동으로 5월 21일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한중 불교문화교류를 위한 제2회 육조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호국국사단 부총재 동봉 스님, 석가종 종정 가산 스님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동참했다.

봉행위원장 연화 스님(소림선종 총무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가기 위해 조계선(曹溪禪) 사상으로 단합하고 한국과 중국 등 나라와 종파 구분 없이 정진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육조사 대원 방장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은 20일 입국, 21일 학술대회와 육조재를 봉행했다. 제1회 육조재는 2007년 12월 중국 육조사에서 봉행됐다. (02)720-6363 김성우 기자

경기도 종무 담당 부서 신설한다

종교인 사회 참여 유도 활동지원 목적

경기도가 종교단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종교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종무담당을 신설·운영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5월 8일 종교인구 증가와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정책과에 종무담당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예술진흥계가 담당했던 개신교와 가톨릭, 문화재 관련 부서가 담당했던 불교와 유교 등은 모두 문화정책과 내 종무담당이 총괄할 계획이다. 또한 종무부서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는 현재 5급 공무원 1명, 6급 3명, 7급 2명 등 총 6명의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수요가 충분히 발생됐으나 그동안 등한시됐던 종무부서가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종교단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북도와 제주도, 대전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문광부에서 종무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명, 법으로 판결할 수 없다"

불교생명윤리硏 '인간 존엄사 법 철회' 촉구

5월 21일 인간 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과 새로이 추진되는 존엄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교생명윤리연구소(소장 영담)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판결할 수 없다"며 "무의식인 국민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생명윤리연구소는 이어 △국가의 인간 생명 존속 책임 준수 △인간 존엄사 법 철회 △인간 생명 법 판시 불가를 주장했다. (02)734-6401 노덕현 기자

'자비동국 나눔축제' 열려

지구촌공생회·참사랑봉사단 26~28일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동국대 참사랑봉사단(단장 박상범)은 동국대학교 축제기간인 5월 26~28일 학내 팔정도와 동국관 앞에서 '제2회 자비동국 나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트게임, 진흙모방 쿠키판매, 물풍선 게임을 통해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는 아이티 아이들 돕는 성금이 마련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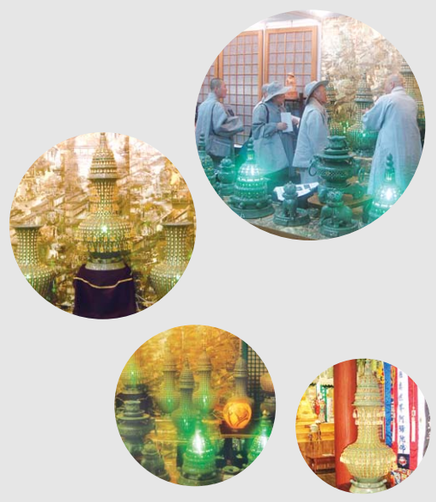
주최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음식을 남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2)455-9596

노덕현 기자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은혜 보답하기 위해 수행도량 일굴 것"

개원 10주년 미얀마선원, 남양주 가곡리에 새 터전 마련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미얀마 선원(선원장 산디마)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미얀마 노동자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남방불교의 포교도량인 미얀마선원은 5월 17일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위치한 새 터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보덕사 주지 정안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미얀마 학생 · 노동자, 부산 범어사 신도 등 2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인사말, 경과보고, 내빈소개, 축사에 이어 미얀마 전통식 공양, 점심공양, 하유 스님의 춤 공연 순 등으로 진행된 법회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의 산디마 스님이 시작을 알렸다.

산디마 스님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법당 개원을 여법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분들의 도움과 솔선수범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얀마선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선원은 5월 17일 개원 10주년·법당 이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오른쪽) 선원장 산디마 스님.

이어 정여 스님은 "불교국가에서 온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개종하거나 인권탄압을 당하는 자국민들을 보살피기 위해 힘쓰는 산디마 스님의 모습에 감격했다"며 "언어와 인종이 다를지라도 불법을 공부하는 불제자로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행복한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미얀마 전통 국수와 한국 사찰음식으로 준비된 점심공양, 제니시스 합창단과 범어사 합창단의 공연, 미얀마 전통 춤 공연 등이 이어졌다.

미얀마 선원은 법당 개원에 맞춰 6월 6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산디마 스님이 한국어로 '12연기, 아비담마 강의와 명상수행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산디마 스님은 "송광사 등에서 네 번 안거를 보내며 한국불교를 이해하고 남방불교만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며 "인생의 참맛은 수행을 통해 아는 것인 만큼 다양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의 참 맛을 전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양주시로 이전한 미얀마 선원은 1층 기와 건물에 법당과 요사채, 공양간, 해우소가 함께하는 전원주택형이다. 특히 수행 공간이 좁아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었던 전 법당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돼 다방면에서 안성맞춤 수행공간이 될 전망이다. 스님은 "미얀마 인들에게는 불자임에 자긍심을 주는 고향과 같은 곳으로, 한국분들에게는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포교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031)559-5312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지원금 · 불서 2000여 권 전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 사회부, 해군순항훈련 지원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5월 19일 서울 군종교구 사무실에서 해군순항훈련에 불교 군종장교로 참가하는 실원 진승필 법사에게 지원금과 불교도서 12종 1000여 권등을 전달했다.

해군순항훈련은 군사외교 및 해군사관생도 원양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금년 순항훈련에 참가한 700여 생도 및 해군들은 총 93일간 스리랑카, 싱가폴 등 불교국가를 비롯해 브루나이, 이탈리아, 이집트 등 9개국을 돌아보고 기항지 봉사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진승필 법사를 비롯한 불교, 가톨릭, 개신교 3대 종교 군종장교들은


(사진왼쪽) 진승필 법사와 일면 스님

선상에서 수 · 일요일 종교행사를 열고, 신행 및 생활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와 싱가폴에서는 현지 사찰과 연계해 기항지에서 불교행사도 개최한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100일 가량 진행되는 훈련 기간 동안 장병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무사히 귀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승필 법사는 "6~9월 중 적도를 항해하기 때문에 많은 생도들이 지치고 힘들어 한다"며 "장병들의 힘이 되고, 기항 국가에 불교를 알리는 데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도 5월 22일 해군순항훈련 지원차 진승필 법사에게 의류와 도서1000여 권과 한국불교 소개 영문책자등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군종특별교구는 26~ 28일 경주 불국사와 교육문화회관에서 육해공군 군승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승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대구 능인중 · 고 개교70주년

14일 기념행사 개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조계종 종립 대구 능인중 · 고등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불타 정신 구현'을 바탕으로 '밝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인간상의 확립'을 지향하는 능인학원은 5월 15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14일 오후 능인중 · 고등학교 숭덕관에서 개교 70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종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학교 발전을 기원했다.

또 능인학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교사 등 장기근속 교사 19명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현재 종광 스님의 지원 아래 중학교 1264명, 고등학교 1492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능인중 · 고등학교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39년 영천 은해사 경내 오산불교학교로 출발해 대구 동화사 · 김천 직지사 · 의성 고은사 · 경주 불국사가 사재 출연해 설립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련, 어린이지도자연수회 열어

6~7일 유스타운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사)동련이 주최하는 제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6월 6~7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된다.

전국 600여 스님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이번 연수회는 '나누는 기쁨 하나 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법 교육 및 다양한 강의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여름불교학교 현장에서 바로 진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현장성을 강조해 준비했다. 또 참가자들의 활동 분야와 경력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요청에 따라 불교학교 경험이 4~5년 이상 된 전문지도자들과 초보 지도자들을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찬불가 율동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모닥불 놀이와 촛불발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상언 기자

화엄회 "수행 통해 본래 마음 밝혀야"

호국 연무사서 수계법회

대전 · 충청 군불교후원회인 화엄회는 5월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주지 보운 김종봉 법사)에서 3000여 훈련병들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사 환성 스님(공주 영평사 주지)은 장병들에게 "먹구름이 바람을 만나 걷히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 본래마음을 밝혀야 한다"며 "억겁 동안 어두운 동굴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계를 받음은 큰 광명이 자신에게 들어옴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국 연무사 김종봉 법사는 수계식을 마치고 "군포교에 대한 지원과 예산은 이웃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군불교 후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한국불교의 미래인 젊은 불자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는 화엄회 스님과 예비군승 20명이 함께 수계식을 진행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병불련 6월 14일 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

국내 · 외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신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가 6월 14일 강북근로자복지관에서 이주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등 40개 회원사가 있는 병불련은 내과, 동서의학과, 한방과, 치과 4과에 걸쳐 진료하며 초음파, 심전도,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

병불련 류재환 회장은 "의료봉사 시에는 차량 운전과 봉사 준비, 마무리 등을 도와줄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며 "많은 회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문경 개운사 가족 자비명상 진행

문경 개운사(주지 선구)는 가족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 지도로 5월 30일 오전 10~12시 점촌 문예회관에서 진행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은 1000여 문경 지역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운사 관계자는 "가족은 항상 함께 하면서도 서로가 소원하거나 분쟁이 나 그 소중함을 망각할 때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상처와 오해를 이해하고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행복과 축복을 빌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4)552-4300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통도사 철야정진 프로그램=양산 통도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철야정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 1080배 정진, 보궁 3보 1배, 통도사 참선회가 참선-간화선의 이해와 실참, 자비수참 등을 실시한다. (055)382-7182

●법왕정사 3000배 용맹정진=분당 하얀마음선원은 5월 30~31일 3000배 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청견 스님의 특별 절 교육도 한다. (061)534-5502

●보리수선원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은 6월 12~24일 우 빤디짜 스님이 아비담마와 위빠사나 수행 특별법회를 연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2)517-2841

●담마찌따또야 선원 위빠사나 수행=담마찌따또야 선원은 김천 법흥사에서 5월 30일~6월5일, 6월 6~12일, 13~19일, 20~26일, 27일~7월3일 위빠사나 심념처(心念處) 명상 수행을 실시한다. 사사나 스님이 지도하며 참가비는 1일 2만원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54) 430-0619

●정토회 여름 수련 및 백일출가=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대한민국 20대를 대상으로 정토회는 7월 23일~8월 12일 몽골 선재수련, 7월 20일 ~8월 4일 필리핀 선재수련을 실시한다. 수련에서는 지역 개발 및 학교 짓기 봉사와 함께 문화체험, 마음수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27일까지 접수하며 6월 11일부터 진행되는 백일 출가자를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www.jungto20.org (02)587-8911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불교대학 · 명상수련법회로 한국불교 널리 알릴 것”

뉴욕 불광선원 ‘큰법당’ 개원법회를 가다

미국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해외포교 사찰인 뉴욕 불광선원(주지 휘광)이 5월 17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당 건립으로 불광선원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찰 가운데 대표적인 절로 성장함은 물론, 한인과 타민족 포교의 도량으로 ‘제2의 성장’을 꿈꾸게 됐다. 또한 한국불교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했다.









① 왼쪽 두 번째부터 폴 현각 스님,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② 뉴욕 불광선원 큰법당 개원식에 참석한 스님들.
③ 현각 스님이 축사를 하고 있다.
④ 한인교포 불자들 사이에서 미국인 불자들도 법문을 듣고 있다.

현각 스님 “미국서 한국불교 전통 배울 기회 만들어줘 감사”
건립계획 9년만에 ‘큰법당’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완공

#한국 禪 현지인 포교중심 발돋음

이날 큰법당 개원법회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개원을 축하하며 특별 법문을 하기 위해 뉴욕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법문에 나선 수불 스님은 “수행을 통해 안목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수행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며 “오늘 큰법당 개원식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전당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실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도량으로 성장해 더 나아가서는 동 · 서양이 하나로 교감하는 세상을 여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이에 앞서 주지 휘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3년간 지낸 작고 좁은 법당을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큰법당에서 오직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민 1~2세 교포를 위한 포교는 물론, 명상수련법회를 활성화해 현지에 거주하는 미국인 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저희 불광선원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불사 소식을 듣고, 총공사비 220만불 중 50만불을 기꺼이 쾌척해주신 수불 스님 이하 안국선원의 모든 신도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안국선원과 불광선원의 깊은 협력을 통해 간화선 수행법을 전하는 ZEN(선)센터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프린스턴대학 불교학 교수 스티븐 타이저 교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원각사 대성 스님, 前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현각 스님은 “미국 사회에서 건축관련 인 · 허가의 까다로움을 잘 알기에 그간 불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을지 알 것 같다”며 “미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원력으로 새 법당 불사 결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1996년 개원한 불광선원은 30명을 수용하기에도 벅찰 만큼 공간이 협소해, 일요법회 참석자가 150여 명에 이르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절실했다. 하지만 법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230년의 역사를 가진 사적지로 지정돼 있어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신축이 불가피해 신축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 후 여러 가지 난관을 봉착했지만 결국 건립계획 9년 만인 5월 17일 새 법당 불사가 마무리 됐다.

2007년 7월 기공식 이후 2년여의 불사 끝에 완공된 새 보금자리인 큰법당은 지하1층, 지상1층 총 2층으로 구성됐다. 1층 법당은 약사부처님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불로 모셨다. 새로 설치한 영단에는 평생 위폐를 모실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양옆 벽면에는 삼천불 부처님이 봉안 되어있다. 또한 첨단영상시스템을 도입해 삼존불위에서 영상스크린이 내려오며, 이와 함께 첨단 음향기기도 구축했다.

지하 1층에는 청년부 및 중고등부법회, 참선, 다도실 등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꾸몄다.

이전 건물은 스님들의 요사채 및 어린이 법회, 공양간으로 이용하게 된다.

#미국 주류사회 포교위한 승가 인재양성 결실

휘광 스님은 사람 욕심이 특히 많다. 미국 주류사회에 불교 포교를 위한 승가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했다. 장학회가 배출한 혜민 스님과 일미 스님은 휘광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혜민 스님은 휘광 스님의 상좌로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지금은 햄프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그램 ‘출가, 그 후 10년’에 소개되기도 했다. 일미 스님은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듀크 대학에서 한국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 스님들은 미주 불교계의 대표적인 학승(學僧)으로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스님들이다. 이외에 하림 스님, 정범 스님, 일담 스님, 설주 스님, 성본 스님 등 20여명의 스님들이 불광선원을 거쳐 갔다.

#불교대학 설립 등 해외포교 미래 밝아

이제 불광선원 큰법당의 탄생으로 매주 수백 명의 1, 2세대 불자들이 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신심으로 기도와 수행정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휘광 스님은 “우선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불교기본교리와 사찰 예절 등을 가르치고, 명상수련법회를 보다 활성화해 현지인 포교에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여러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전통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며 불광선원의 청사진을 그려보였다.

이번 개원법회를 통해 맺어진 안국선원과 불광선원의 아름다운 인연은 해외포교 역사의 큰 획을 그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그 10년 후 밝은 미래가 기다려진다.

뉴욕=오세룡 부산지사장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이래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 (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하였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괘씸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씁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전수교육 일정을 5박6일간으로 최대한 축소, 단축하여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줄이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침술, 교정법, 경혈 등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자부터 침술 등 대체의학 전통의술 30년 大家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수 가능 하도록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기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전수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제 3의학 아카데미”평생회원증을 발급하여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더욱 체계화 된 완벽한 활인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昨今의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통 민중 의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재야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의술과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현행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상 저촉이 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妙를 잘 살리시어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본 활인비법은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전수교육 내용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가 疏通해야 無病長壽 (氣塞則死)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전등사 인접)
·교육기간 : **4기 : 6월 1 일 - 6월 6일(5박 6일) / 5기 : 6월 15일 - 6월 20일(5박 6일)** ※ 선착순 12명
·전수비용 : 200만원 (숙식제공) ·계좌번호 : 농협 136-12-537835 [예금주 : 김재정]
·전수교육 안내 및 문의 **전국대표 1588-7638 WWW.HANVIT.TV**
·주최 : 제3의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지원센타 (피부, 비만, 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창출 보장
- 세계최초, 최강 / 절대 모방불가
- 비법전수, 교육, 치유, 지부운영 4개 부문
- 건강, 피부, 비만, 통증분야 완전 마스터
- 전수 교육후 100% 창업, 취업 지원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턱관절장애, 백내장,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외과적영역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안면마비,모든 종류의 두통,현운,삼차신경통,좌골신경통,골반통,항강통,어깨결림,오십견,테니스 골프 엘보우,수족마비,척추관협착증,강직성척추염,3.4기골다공증,하지무력증,통풍,류마티스,퇴행성무릎관절염,악성무좀,중풍후유증,뇌성마비,생리통,채머리증,족저통,수전증,족저통,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 된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치료사, 스님, 목사님,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 각종수련원, 단식원운영자 각종 의료기흥보관 운영자 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 **대체의학 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이웃 종교 RELIGION

"불교아동교육 목적은 불성 일깨우기"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와 아동교육' 주제 춘계학술대회 열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종교와 아동교육' 주제를 다룬 2009년 춘계학술대회를 5월 2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톨릭, 원불교, 유교, 통일교, 대순사상 등 각 종교계 지식인들이 모여 현대 아동교육의 문제점을 분석, 종교계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동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계의 아동교육 발제자로 나선 황옥자 교수(동국대)는 "어린이는 본래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불교아동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 지혜와 자비를 갖춘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에 바탕을 두어 불법의 지혜와 방편을 아동교육에 수용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가톨릭과 아동교육을 발표한 조성자 교수(가톨릭대)는 유아기에서부터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몬테소리 교육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영혼에 접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서부터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며 "종교적 민감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종교심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오순 교수(원광대)는 "원불교의 영 · 유아관은 '하늘사람'으로 보고 영 · 유아가 하늘사람으로 자라도록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원불교 유아교육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유교와 아동교육 발제를 맡은 이희재 교수(광주대)는 "유교적으로 볼 때 아동의 가르침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문자를 익히는 일이다. 문자교육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비로소 문자를 활용해 경전 · 예절 교육 등을 가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일 교수(선문대)는 "통일교 운동은 인류 문명이 기초가 되는 종교, 사상, 철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재검토로 나아간다"며 "통일교의 교육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어린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심정의 분위기에 젖어 몸으로 실천하며 느끼면서 심정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기본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순자 교수(대진대)는 "대순진리회는 유 · 불 · 도의 고전, 동양종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종파"라며 "대순사상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근본으로 특별히 성인과 아동을 구분해 교육하기보다 성인과 함께 공부했으며, 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자체에서 통합적인 인격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 벽 넘어야 갈등 해결돼"

한국종교연합 10돌… 평화포럼 열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종교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종교연합(URI-Korea · 이하 한종련) 이 올해로 10돌을 맞았다.

한종련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립 당시의 목표와 각오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여러 종교인들과 평화세계를 이룩하는 큰 꿈을 그려 보고자 기념식과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前 상임대표 진월 스님, 박남수 상임대표, 이세우 목사, 김숙희 수녀, 박경조 前 성공회 주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대표인 김숙희 수녀(성심수녀회)가 발제자로 나서 포럼 주제인 '천주교와 평화 상생사상(천주교의 교회 문헌을 중심으로)'을 다뤘다.

이어 박남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해 도덕과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이 따른다"며 "종교 간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와 국가는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보도사진전'

원불교신문 창간 40주년

원불교신문은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종교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종교간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가톨릭, 개신교, 민족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이웃종교계가 참여한다.

한국종교언론인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6월 1~5일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6월 10~16일 서울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대형시설 잇따라 수탁 복지포교 '박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복지인프라 구축


국내 최대의 지역 사회 복지시설인 영통종합사회 복지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이하 복지재단)이 수도권 중심지역과 신도시의 대형복지시설들을 잇따라 수탁하면서 복지포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복지재단은 5월 19일 수원시(시장 김용서)로 부터 국내최대의 지역사회복지시설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했다.

영통복지관은 연면적 1만5042㎡의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복지관은 2개 동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역아동발달센터,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영통시니어클럽(노인재활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관이다.

전국 120여 시설의 안정적 시설운영 능력을 인정 받아온 복지재단은 14년간 쌓아온 사회복지실천현장 중심의 운영 노하우 및 조계종단의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설운영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원지역 불교복지의 거점도량인 수원사(주지 성관)가 맡기로 했다.

성관 스님은 운영지원사찰 선정에 대해 "기존의 수원서호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의 불교복지역량을 결집해 신도시 복지포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를 통해 불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복지재단은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위탁운영단체로 선정돼 서울 도심권에 불교계 노인요양시설의 거점을 마련했다.

2009년 9월 준공예정인 송파노인전문요양시설은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치매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형 노인복합시설이다. 불광사(회주 지홍)가 운영지원사찰로 선정돼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홍 스님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수도권에서도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노인요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연속적인 복지관 수탁 쾌거에 대해 대오 스님은 "불교계의 복지시설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거나 송파와 같이 서울 도심에서는 전무한 지역도 있어 복지포교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2010년에 재단 창립 1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복지시설들의 연속적인 수탁은 불교복지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조계종복지재단의 불사노력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4월 20일 종교계 복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복지재단은 5월 30일~11월 28일 6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8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국가 달라도 우리는 친구"

강화 전등사 이주민 초청잔치 열어


한국음식을 체험하는 이주민 여성들.

아시아 지역 이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즐기는 제4회 이주민 초청잔치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에서 5월 17일 열린 이주민 초청잔치에는 안덕수 강화군수,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야덥커널 네팔 영사 등 내빈과 이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혜경 스님은 코리안 드림을 위해 왔다가 사망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묵념을 제안한 뒤, 전등사 신도회(회장 송종석) 초청으로 온 강화이주여성의 친정 부모들을 반겼다.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국가는 다르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났다"면서 "아시아는 친구고 모두가 기억이 되는 소중한 친구로 남자"라며 이주민들을 환영했다.

이어 네팔 야덥커널 영사는 축사에서 "소중한 자리에 네팔 국민을 초청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베트남 등 5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주 여성들은 △연꽃 만들기 △다도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몽골 게르 체험 △월남 쌈 나누기 등 다양한 체험과 이주민들의 공연을 함께 즐겼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불법체류 등 신분제약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양 · 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나은 기자

송광사서 '희망' 심는 템플스테이 열려

서울시 5월 27~29일

서울시는 5월 27~29일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 노숙인과 저소득층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서울시가 준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의 큰 호응에 힘입은 것으로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인문학에서 종교적 성찰로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1차 '희망의 템플스테이'에는 쉼터와 보호센터에 머무는 노숙인 다수와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2박3일 동안 새벽예불 · 108배 · 참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종교적 색채가 강조되지 않도록 예불시간에는 선택적 명상과 가톨릭의 피정 등 이웃종교의 성찰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어르신, 청소년과 마음으로 만나다

종로노인복지관서 진행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5~11월 7개월 간 세대통합프로그램 '청소년과 어르신이 하나되는 동감(同感)'을 진행한다.

5월 16일 첫 프로그램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22명과 청운중학교 학생 22명이 만나 상호 이해 및 공감에 대한 특강 및 음악을 이용한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됐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산사음악회와 함께하는
제2차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 천도법회

업장소멸! 극락왕생!
산사음악회와 함께하는 제2차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천도 법회는
전생 빚을 갚고 스스로 내생의 복을 짓는 참회와 축원의 법회에 동참하시어
스스로 자신을 닦고 조상과 자식의 복전을 일구는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5월 30일 (음, 5월 7일) 토요일
장 소 : 무심사
행사내용 :
• 1부 – 천도법회 (오전 10시) / 증명법사 : 도정스님
• 2부 – 산사음악회 (오후 5시)
영가 1위 5천원. 연등 1인 5천원
(동참계좌 : 농협 702058-51-003978 무심사)

찾아오시는 길
현풍IC → 구지. 이남 → 곽재우묘에서 2km 지점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무심사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053)616-8080 / 016-9898-0108

대한불교조계종 무 심 사 무심스님 합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듬말리

종도모집 안 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로서 점수하고 선으로 돈수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종단사업부 직원모집(대구지역)
경리, 웹디자인, 음료영업 관련업무 : 0명

식품사업부 주주 및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 경험자

(주)자운 식품사업부 문의 : 053)311-2675. 2676

"출판 사업부"에서는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
大韓佛教禪密宗 www.sunmiljong.or.kr 총 무 원 www.sunmiljong.or.kr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 FAX 053)311-2634

아만심 버리려 '궂은 일' 한 고암 스님 조명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진월 스님 발표

고암 스님(1899~1988)은 조계종 3 · 4대와 6대 종정을 역임했던 선지식이다.

고암 스님이 금강산에서 만공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때다. 어느 사찰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암 스님은 공양주 소임을 자청했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 대중스님에게 올렸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만공 스님이 하루는 고암 스님을 불렀다. "자네는 어쩌자고 대중들 세숫물까지 덥혀서 떠다 바치시는가. 수년전 정혜사에 있을 때도 그러더니 여기 금강산에 와서도 그리하여 내 보기가 민망하이."

고암 스님이 답했다. "절밥 먹은 지 몇 해가 됐다고 해서 마음속에 아만심이 돋아나고 그 아만심으로 해서 교만해진다면 이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아만심을 경계하고 스스로 하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궂은 일을 자청했던 고암 스님은 자비보살이었다.



조계종 3 · 4 · 6대종정을 역임했던 고암 스님

3차에 걸쳐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는 등 1960~70년대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를 이끈 선지식이었으나, 남다른 하심행으로 자비보살로만 알려졌던 고암 스님에 대해 학술적 조명이 시도돼 눈길을 끈다.

진월 스님(동국대)은 5월 23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암 대종사 생애와 사상의 특징 일고'를 발표했다.

스님은 "고암 대종사는 교학과 계율에도 밝고 세계적인 포교와 불사 및 보살행을 아울러 실천한 당대의 선지식이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던 자비보살"이라고 말했다.

고암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국토 즉 세상도 맑고 깨끗해진다'는 심정국토정(心淨國土淨)을 강조했다.

진월 스님은 "고암 스님은 참선을 중시했으나 계 · 정 · 혜 삼학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며 "참선법의 안목으로 염불 등 수행분야를 불이(不二)로 회통한 것은 근래에 드문 지도자적 특징일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율사였던 고암 스님은 수계에 있어서도 형식보다 마음가짐을 중시했다.

진월 스님은 "고암 스님은 계사의 자비한 눈과 수계자의 간절한 눈이 무념으로 마주볼 때 계가 형성되는 목격전수(目擊傳授)를 강조했다"며 "선가의 이심전심과 같은 원리를 스님은 몸소 삶으로 실천해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고암 스님의 가르침을 "선(禪) · 교(敎) · 율(律)을 등지겸수(等持兼修)하며 중도실상(中道實相)을 지향하고 원융무애한 수행관을 보여준 조화로운 청백가풍"이라 정리했다.

한편, '선과 근대한국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비구니 본공 선사와 선풍진작'(하춘생), '근대 선학원의 개혁 인식 연구'(김경집), '박중빈의 불교개혁과 선사상'(김방룡), '백학명의 선농일치와 근대불교 개혁'(김순석), '임제의 선사상과 수행'(운월 스님), '<열반경>의 선관 소고'(정운 스님) 등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정중선파는 선종 초기종파"

변인석 교수 '정중 무상대사' 발간

여동생이 칼로 얼굴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스스로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되는 모습에 부끄러워 출가를 결심했다는 무상 대사는 신라 왕자 출신이다. 중국에 건너가 정중종을 열고 오백나한에 포함됐던 무상 대사는 지금까지 선종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변인석 교수가 6년의 연구를 집대성해 편찬한 <정중 무상대사>

신라 구법승의 발자취를 따라 20여년 79차례 중국을 누볐던 변인석 교수가 최근 6년 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정중 무상대사>(한국학술정보 刊)를 발간했다.

변 교수는 무상 대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연대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라 신문왕의 가계도를 통해 무상 대사의 입당 연대와 활동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밝혀냈다.

특히 변인석 교수는 야마구찌 쯔이호와 염운화 교수 등 기존 연구자의 연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역사를 통해 당시의 불교를 설명했다.

변 교수는 "무상 대사가 세운 정중선파의 선법은 중국의 서남국인 돈황, 티베트와 남조까지 전파돼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중종이 실질적으로 중국선종을 대표하는 초기종파"라고 주장했다. (031)908-3181

조동섭 기자

'선종과 사대부…' 명법 스님 재조명



명법스님이 펴낸 <선종과 송대사대부의 예술정신>

선종이 송대 예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미스 칼리지에서 박사후 과정 중인 명법 스님이 <선종과 송대사대부의 예술정신>(도서출판 씨아이알 刊)을 펴냈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의 세 번째 성과물인 책은 송대 선종과 예술의 비교를 통해 종교와 예술의 관계를 재조명했다.

법상 스님은 "<불교연구총서>로는 처음으로 스님이 저자라는 점에서 이전의 역서들과는 구별된다"며 "불교학계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불교연구총서>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원

5월 23일 개원 기념 세미나 열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에 유학해 불교학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일본 불교학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불모지인 일본 불교의 밑거름이 될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가 개원해 눈길을 끈다.

일본불교사연구소는 5월 23일 동국대 제3세미나실에서 개원식 및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는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선(禪) 전통이 잘 어우러졌다고 평가받는, 한국 출신 일본 소설가 다치하라 마사아키의 <겨울의 유산>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박광현 동국대 교수가 '다치하라의 혼혈의식과 전후 일본사회'를, 김종희 동국대 외래교수가 '일본문학 속의 다치하라 마사아키'를, 김호성 원장이 '<거울의 유산>에 나타난 한 · 일불교'를 발표했다.

김호성 교수는 "중세나 고대 일본불교에는 한국불교 못지않은 고승들과 찬란한 전통이 있는데 한국은 근대 일본불교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해와 폄훼 일색의 낮은 인식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한 · 일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본불교 바로 알기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불교사연구소는 전국의 일본학 관련 전문가들을 결집하는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모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시킬 예정이다.

특히 젊은 소장학자를 연구원으로 육성 · 지원하고 일본 현지에서 한 · 일문화교류아카데미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사회·교학·재가불교·논리학 등 '논의'

30일, 한국불교학회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등

5월 30일 불교학술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불교학회는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49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사학분과, 교학분과, 응용분과로 나뉘어 열린다.

△사학분과에는 김원명 교수(한국외국어대)의 '원효 사유 틀의 고유한 유래', 최동순 연구교수(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의 '상월조사 행장발굴과 연보의 정정'이 발표된다.

△교학분과에는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천복승고, 각범혜홍 그리고 보조지눌의 삼현문 해석'을, 하유진 외래강사(서강대)가 '초기 중국불교에서의 법신사상의 전개'를,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법화경>에 나타난 공사상'을 주제발표한다.

△응용분과에는 주광순 외래강사(부산대)가 '유럽중심주의 비판을 위하여'를, 조기룡 조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를, 박동춘 소장(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이 '금령 박영보의 <남다병서> 연구'에 대해 살핀다.

이번 행사에는 최동순 연구교수의 상월조사의 행장에 관한 연구와 조기룡 조교수의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특히 최 연구교수는 1911년(신해) 출생으로 알려진 상월 조사 탄신일을 연구를 통해 1922년(임술)생으로 바로 잡아 천태종학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강동균)는 오후 1시 부산대에서 '한국재가불교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문을식 교수(원광대)가 '인도재가불교운동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한국재가불교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김재영 법사(동방대 교수)가 '한국재가불교운동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붓다팔라 스님(다보선원)이 '위빠사나와 한국재가불교운동'을, 진명순 교수(영산대)가 '거사불교운동의 내용과 의미'를 밝힌다.

아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은 동국대 법학관 253호에서 국내의 미개척분야인 불교논리학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인식과 언어'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라식 호스트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 파리멀 패틸 교수(미국 하버드대), 앤드류 맥가리티 교수(호주 시드니대) 등 인명학 전문가가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9~30일에는 서울대에서 2009년 **전국역사학대회**가 열린다. '매체와 소통으로 보는 역사'를 주제로 행사는 공동발표와 동양사부 고고학부 미술사부 등 12개 패널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석보상절' 주해연구서 간행

김영배 교수 '석보상절 제23·24 연구' 펴내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최초의 산문체 문학작품으로, 15세기 구어(口語)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정황이 서술된 <석보상절> 제23 · 24권(보물 제523-2호,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의 주해연구서가 간행됐다.



김영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석보상절 제23 · 24 연구>

김영배 명예교수(동국대)는 최근 <석보상절 제23 · 24 연구>(동국대출판부 刊)를 펴냈다.

중세국어 연구자인 김 명예교수는 1972년 <석보상절> 제23 · 24권 주해서를 발간했다가, 그간의 축적된 국어학 연구 성과를 담아 새로 주해연구서를 발간했다.

<석보상절>의 마지막 권인 제23 · 24권은 1966년 청주 용화사 영주스님이 소장하던 것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소개됐다.

15세기 국어 자료가 대부분 불경을 언해해 한문 번역투로 기록됐지만, <석보상절>은 실제 국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학계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여긴다.

책은 <석보상절> 제23 · 24권에 수록된 희귀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 현상에 대한 국어학적 해설을 담았다. 또 대목마다 저경(底經)의 내용과 대비해 번역의 방법 등을 살필 수 있게 했다.

첫 책에 비해서는 주석 내용을 크게 고치고 해제와 연구논문 수록, 동국대 소장본의 원색 영인본을 추가시켰다. **조동섭 기자**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과 최강의 양택 발복법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현법 완성!
수 천 년 동안 어렵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숱한 임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락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 · 저혈압, 아토피, 목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자가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치된다. 담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빙의, 귀접,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발복능력자가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게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본성을 관하는 비법!
부조화로 고통받는 존재의 구성요소들을 규명하고 조정하여 조화로운 상태로 환원하는 비법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1:1 방식으로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 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일주문



몰운대복지관 청소년 교복 지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이사장 정련 스님(前 포교원장)은 부산 서구교육청과 연계 5월 22일 저소득 청소년 30명에게 교복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국제포교사 자격 갱신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5월 29일까지 국제포교사 자격 갱신을 신청받는다. (02)722-2206



수국사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서울 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은 어린이 포교 중흥의 일환으로 5월 24일 소년소녀 합창단을 창단했다.



'하루헌과 친구들' 미술전시회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5월 29일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제 6회 '하루헌과 친구들'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창립

전국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제2대 이호영 회장은 5월 31일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창립2주년 기념 법회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한다.



불이상 후보자 추천 접수

불이회 홍라희 회장은 5월 31일까지 제 24회 불이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010)3772-8179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연주회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5월 24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에서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모차르트 연주회'를 개최했다.



'33관세음보살도' 전시회

동국대 미술학부 김창균 교수는 5월 27일~6월 2일 경인미술관 제3전시관에서 '33관세음보살도' 전시회를 연다. (02)733-4448

선용 스님 3년 만의 다비식



2006년 9월 4일에 입적한 무일당(無一堂) 선용 스님의 다비식이 2009년 5월 14일 경주 화장장에서 봉행됐다. 스님의 시신은 동국대 의과대학에 기증된 뒤 3년 만에 5월 15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스님의 다비식을 기념해 6월 8일 15시 인성사에서 사리친견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052)238-6664

"문헌 속 원효 대사 스토리뱅크 제작"

'문화원형 개발사업' 선정, 전자불전硏 보광 스님



"역사와 설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원효 대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뱅크가 개발됩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불교 소재의 문화원형 제작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동국대 산학협력단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이하 전자불전연구소) 소장 보광 스님은 5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교 문화원형 제작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자불전연구소는 4월 18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9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연구소는 '화해와 소통의 자유인 원효대사 소재 다장르 스토리뱅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총 사업비 3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콘텐츠 전문제작 기업인 (주)여금(대표이사 심미애)이 함께 참여해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삼국유사>를 비롯해 <고선사서당화상비문> <송고승전> 등 23종의 문헌 자료와 <대승사사적기> 등 17종 50여 건의 문헌 속 원효를 찾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소의 연구인력 외에도 김상현 · 정우택 · 윤선태 · 황순일 교수(동국대)와 이효걸 교수(안동대), 김향금 교수(창원대), 유동환 교수(호서대) 등 원효 관련 불교사 역사 철학 불교미술 국문학 불교음악 무용, 디지털콘텐츠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달 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야기 속의 원효를 개요구조인 인물, 사건, 무대, 아이템으로 분석하고 조합해 스토리뱅크를 만들게 된다. 원효와 관계된 모든 것은 재조합돼 시나리오북, 쌍방향 로케이션 맵, 콘티북, 의상 스케치북, 디지털 무대 등으로 제공될 예정.

보광 스님은 "원효라는 극적인 캐릭터는 영상, 공연예술 산업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며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도약할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뱅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선정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교계가 참여해 소유권을 갖고 포교에 활용한다면 그 무형적 이익은 크다. 하지만 정작 사업에 나서야 할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문화를 소재로 타종교와 관계된 대학들이 문화원형 제작 사업을 수주해 왔다"며 "불교계의 콘텐츠 활용에 대한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셔터 누르는 순간 나는 사진"

진흥원 '열린강좌' 초청 작가로 나선 김홍희씨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나는 사라집니다. 그 순간 나는 사진입니다."

5월 7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대한불교진흥원이 주최한 화요 열린강좌의 초청 작가로 나선 <나는 사진이다>(다빈치 刊)의 저자, 김홍희(50) 사진작가. 책 제목처럼 선문답 같은 이야기로 강의를 풀어나간 김 작가는 '사진 보는 세상-손가락으로 생각하면서 즐기는 사진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진촬영이 곧 나와 대상, 나와 세계의 합일을 경험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사진가는 대상이 실제 찍히는 찰나의 장면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이자 사진가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김 작가는 사진가가 셔터를 누르는 시점은 대상과 하나 되는 순간이자 무아(無我)가 실현되는 순간으로서, 사진가가 사진이 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사진가와 카메라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도 했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인식일 뿐'이라는 교리처럼, 세상은 보는 자의 의지와 마음에 따라 비쳐진다는 해석이다.

특히 김 작가에게 있어서 사진 작업은 예술적 기반뿐만 아니라 '삶'에 근거하고 있다. "사진의 진정한 목표는 생명의 공생에 있으며, 생명 대 생명의 교감 속에 감동이 있다"는 것. 그에게서 사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인 셈이다.

불교를 비롯한 동 · 서양 철학이 깃든 작품 활동으로 유명한 김 작가는 2001년 일본 나라시립 사진 미술관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초대전을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사진집 '세기말 초상' 등 다수의 작품집이 있다. 김성우 기자

"사찰음식 상품 표준 만들터"

사찰식품제조가공인협 준비위장 성원 스님



"사찰음식 제품화는 불교문화를 알릴 기회입니다. 체계잡힌 상품화로 소비자 식품안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5월 28일 공주 영평사에서 발족예정인 '사찰식품 제조가공인협회' 준비위원장 성원 스님(강화 선원사 주지, '강화땅의비밀' 대표)은 "사찰식품은 시줏돈에 의지하는 사원경제의 새로운 모델과 해법"이라며 "주식회사 차원으로 법인을 설립해 공동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원 스님은 2006년 '좋은 연 식품'으로 농업법인을 설립, 농촌과 사찰이 연계해 연잎차, 연근차, 연칼국수 등 '연'관련 상품 개발에 앞장선 바 있다.

사찰식품제조가공인협회에는 소금관련 보림선원 대전 스님, 홍삼관련 삼덕사 덕중 스님, 장류관련 영평사 환성 스님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스님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판매되는 상품화 된 식품 중 유해물질이 첨가된 것 들이 너무나 많다. 스님들이 직접 담근 음식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높지만 일반 사찰식품 생산체제가 영세해 식품안전기본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공동법인을 통해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도모해 해외 포교에도 앞장서겠다. 사찰에서 만든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것을 통해 절에도 한 번 더 가고, 불교를 한 번 더 접하는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 전달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5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총무원장)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전달금을 비롯해 약 4억 56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충북도정 발전기원법회 청주서 봉행



충북도정발전기원법회가 5월 19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봉행됐다. 충청북도불교 총연합회(회장 노현, 법주사 주지) 스님들과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 원해), 정우택 충북도시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미얀마대책위 초등학교 건립지원금 전달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윤천수)는 5월 12~17일 미얀마를 방문하고 마하디빠원따 초등학교 건립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언 기자

美 '부다나라' 부처님오신날 행사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국 사찰 부다나라(주지 선각)는 스리랑카 보디 스님 등 현지인 40여 명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봉행했다. 한편 이날은 7일 기도회향 날로 200백 여 개의 연등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언 기자

포운당 성진 스님 부도탑 은해사에 조성



2001년 입적한 포운당 성진 스님 부도탑이 영천 은해사에 조성됐다. 5월 20일 동곡문도 대표 혜인 스님과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이 참석, 8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127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5월 30일(토) 저녁 9시~
2009년 5월 31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야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네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치세요.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단순한 것에 세상이치 다 들어 있어요”

전승공예대전서 수상하며 세상에 누비의 멋 알려
중국 · 일본 등에 한국 전통옷 소개… “옷은 神將이죠”

누비장 김해자씨의 공방에 들어서자, 깊은 산중의 적막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다 들릴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김해자씨를 만났다.

“바느질이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수십 년간 누비바느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잘못된 관념들과 자신의 통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단순한 작업을 통하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단순할수록 사물을 바로 볼 수 있으며, 단순치 못한데서 세상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누비는 일반적으로 옷감의 보온을 위해 천 사이에 솜을 넣고 함께 홈질해 맞붙이는 바느질 방법이다. 누비작업은 바늘 땀 간격이 보통 0.3㎝, 0.5㎝, 1.0㎝ 이상으로 구분될 정도로 섬세한 작업인 만큼 정신을 집중시키지 않고 정성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나는 집중강도가 다른 사람보다 높았어요. 하루 종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김해자씨는 누비는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사람들이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일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누비의 단순함에 반해 누비를 익혔고, 과거 의복을 재현하는 데도 공을 들였으며, 승복 누비를 따로 배울 만큼 불심 또한 깊다. 지금은 염색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서 15년 세월 동안 낮에는 들에 가서 염재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이 다 망가졌더란다. 몸이 망가져 본 사람은 그 육신의 아픔 또한 큰 고통임을 알게 된단다.

재봉틀과 양장의 등장으로 거의 사라져가던 누비가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계기는 1992년 ‘제 17회 전승공예대전’에서 옛날 무인(武人)들이 입던 ‘철릭’을 출품한 김해자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 누비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소한 분야로 받아들여졌으며 꾸준하게 누비일을 해온 장인도 거의 없었다. 1996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침선장’이 아닌 ‘누비장’으로 새로운 명칭을 붙여달라고 문화재청에 따로 요청했다. 누비의 창의성과 그 가치를 세간에 꾸준히 알린 김해자씨의 노력으로 이제는 누비가 전통 바느질 분야로 자리잡게 됐다. 김해자씨는 누비장으로 지정된 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를 누비면서 한국의 전통 옷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경주 탑동의 공방에서 후진 양성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나는 누비로 인해 다시 태어났어요. 무명초가 바느질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또 바느질을 너무 열심히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털고 방하착(放下着)하고, 스스로 인욕을 통해서 자기로 태어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무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후회 없이 즐겁게 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본래 가톨릭 신자였던 김해자씨는 불교와 인연 맺은 것도 전생의 숙연이라 생각한다. 걸핏하면 가위에 눌려 잠을 설치곤 했는데, 하루는 꿈속인데도 입에서 절로 ‘관세음보살’이 흘러나오더란다.

“절에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범어사 밑에서 혼자 2년을 살았어요. 그때 참회를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절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러다 인연이 닿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 시봉을 일 년쯤 들었어요. 그리고 수덕사도 인연 있는 절이지요.”

연꽃 속에 넣어서 연꽃 향이 스며든 연차를 내놓았다. 차 향기는 은은하면서도 가볍지 않았다. 차가 좋다고 했더니 “이날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친구 벗이 있나 이웃이 있나, 살면서 망상 피울 것이 없어 차로 작당을 하면서 소일거리 했지.” 라고 한다. 누비장으로서 일가(一家)를 일구어낸 사람의 고독감을 엿보았다고나 할까.

어떤 전문가들은 누비옷을 두고 한복의 백미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정교하고 단아하고 멋스럽다고 한다. 누비옷에는 그런 아름다움도 담겨있지만, 전통한국문화의 심오한 뜻과 우리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담겨있다고 한다.

“예부터 천(千) 사람의 손으로 천(千) 땀을 뜬 옷을 만들어 입히면 총알도 피해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자식을 위해서 속옷을 지어 입혔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속옷을 지으면 정성에 가려서 저승사자가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해요. 이 누비옷은 정성의 산물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공(功)의 산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마음 일으켜서 이루어놓은 것은 누구도 허물어버릴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신장(神將)을 만든다고 할 수 있지요.”

“선생님이 지으신 옷을 입으면 신장이 지켜주는 것”과 같다고 했더니 “절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사심 없이 마음을 비우고 했다면 신장이 지켜주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답했다.

김해자씨는 문하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단다.

“잘 하려고도 하지 말라.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말라. 또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마음에 조건을 부여하면 업이 되어 묻어나니 티끌 없이 그림자도 묻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 행위 없는 행위를 하되 하는 마음만은 챙기고 하라.”

옷을 짓다보면 잘 하려고 하는 것도 망상임을 알 수 있단다. 잘 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하는 대로 하다보면 다 되어지는 일인데, 한 생각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김해자씨에게는 바늘을 드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요 수행의 시간이다. 한땀 한땀 헝겊을 누비는 일에 있어 마음이 고요한 경계를 벗어나면 금새 어긋나버리게 되는 것. 벽을 향해 진종일 화두를 들고 앉아 있는 일이나 무심한 경계에서 바늘과 내가 일체가 되어 하루해가 넘어갈 때까지 헝겊을 누비는 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해자씨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고 인내 할 줄 아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깨우쳐주려는데 있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누비장 김해자씨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누비옷을 짓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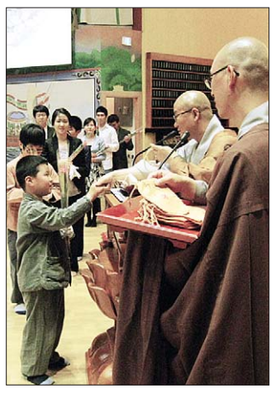
"상좌 됐으니 열심히 정진해야죠"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세 번째 마을상좌 14명 인연 맺어

홍법사(주지 심산)에 세 번째 '마을상좌'가 탄생해 주지 심산 스님은 총 38명의 유발상좌와 인연을 맺게 됐다.

4월 25일 오후 7시 홍법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제3기 심산 스님 마을상좌 수계식'에서 총 14명의 불자들이 스님의 법제자로 거듭났다. 이번에 심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유발상좌로 인연을 맺은 법제자는 몽골에서 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학생 참스(Jamts · 남)와 아미나(Amina · 여)를 포함한 14명으로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자녀를 둔 부모,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들은 부처님 전에 육법공양을 올린 후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부모님들과 대중 앞에서 계를 받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참회연비를 한 후 법명을 받았다. 이어 발원문 낭독, 부처님 전과 심산 스님께 삼배로 예를 올렸다. 더불어 1, 2, 3기 마을상좌 선배들이 참석해 이번에 수계를 받은 사제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4월 25일 열린 제3기 심산 스님 마을상좌 수계식에서 총 14명이 법제자가 됐다.


심산 스님은 새 상좌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수계증을 나눠줬다.

이번에 심산 스님의 마을상좌로 연을 맺은 송홍규씨는 "주지스님과 스승과 제자, 어버이와 자식의 인연을 맺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스님의 제자이자 아들로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사형사제가 된 송명하씨도 "수계를 받으니 지난날과는 또 다른 감사함으로 온 가슴이 가득찼다"며 "주지스님의 깊은 뜻을 잘 받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4명의 마을상좌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홍법사와 심산 스님을 수행과 일상의 의지처로 삼아 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가게 된다. 주지스님과의 차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홍법사는 '마을상좌' 외에도 3세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기법회'와 4~5세 '동자승 단기출가'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주지 심산 스님은 "진정한 불자는 이런 신행활동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어린이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참된 불자의 씨앗은 많이 심고 싶다"며 "스님이나 절과 인연을 맺는 프로그램을 연 1~2차례씩 정례화해 참 불자로 키워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홍법사는 6월 6일 오전 10시 제19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 및 호국영령 천도재, 이어 홍법대상,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특별법문도 함께 마련된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오디도 먹고 사찰체험도 하고

합천 금강선원 5월 29~6월 14일 오디축제

신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시작 6월, 경남 합천에서 새콤달콤한 템플스테이가 찾아온다.

경남 합천 참선마을 금강선원(주지 초중)은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16일간 오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템플스테이 형식을 빌려 사찰에서 하룻밤 머물며, 무공해 야생뽕나무에서 자란 오디를 마음껏 맛보고 원하면 집으로 가지고 갈수도 있다. 특별히 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아 당일치기 나들이로 가볍게 들르거나, 1박 2일부터 원하는 기간만큼 오래 머무를 수도 있다.

오디축제 템플스테이의 경우 참가자 간의 마음 나누기 시간을 시작으로 예불, 108 참회기도, 참선 수행, 유잠산 산행, 포행, 주지스님과의 차담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디열매 채취체험, 시식, 응용요리 강좌, 뽕잎차 만들기 시연까지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금강선원이 자리한 유잠산은 예로부터 뽕밭과 잠실이 많아 양잠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도량을 둘러싼 뒷산에는 빼곡히 뽕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번 오디축제의 무대이기도 하다.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로 익으면 즙이 풍부해지며, 당분이 들어 있어 새콤달콤한 맛에 신선한 향기가 난다. 현대인들에게 오디는 강장제로 알려져 있으며 날로 먹거나 술 또는 주스로 담궈 마시기도 해 건강보조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초중 스님은 "'오디'라는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옛날 고향산천에서 따먹던 검붉고 새콤달콤한 열매의 맛은 아련한 추억처럼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오디축제를 찾으신 분들이 번뇌스런 마음들을 모두 털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금강선원 도량 주변의 볼거리 역시 풍부하다. 5분 거리에 위치한 합천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소, 유서 깊은 해인사 등 온 가족 주말여행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055)931-9590

박지원 기자

불교, 영어와 만나다

영광예술문화원 불교영어 특별강좌

영광도서 영광예술문화원(사장 김윤한,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5월 23일 오후 2~5시 4층 문화사랑방에서 불교영어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故 청화 스님의 상좌 주경 스님(강릉 성원사 주지, 국제선원 무문관 강사)과 불교영문번역가 박영의(충남대학교 영문학 명예교수) 박사가 강단에 올랐다. 특히 박영의 교수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 영문번역위원회에 참가한 유일한 한국인으로 수많은 불서를 번역하는 등 국내 불서번역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약 3시간여 이어진 이날 강의는 먼저 주경 스님이 '염불선과 업'을 주제로 1시간여 설법했다.

이어 박영의 박사가 단상에 올라 한국불교 영문번역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외국인 불자들이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기위해 사찰에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에 관해 반성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광예술문화원은 3월 14일~7월 11일 영어로 쉽게 배우는 '불교 영어'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교재는 <가장 행복한 공부> <The Most Joyful Study>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삼십송>이다.

이두석 국제포교사, 오창원 前 해동고교장, 옥철우 영어학원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6개월간 진행되고, 강의비는 무료다.

영어와 불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심화과정도 개설된다. (051)816-9500

박지원 기자

"하루빨리 건강해지세요"

생명나눔 부산본부 '제2회 환자 쾌유 위한 음악회'

병마와 싸우는 종합병원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희망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2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5월 14일 부산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투병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희망의 선율을 선사함으로써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5월 14일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음악회를 열어 환우들을 위로했다. 성주원 합주부가 공연하고 있다.

1부 '함께 나누는 시간'에는 따뜻한 차와 사랑의 떡을 부산대학교병원 전체 병동에 함께 나누며 스님들이 직접 환자들을 방문해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2부 '희망의 노래'에는 성우원 합주부, 붓다 중창단, 상무 스님의 현악 4중주, 홍법사 동림 어린이회, 가수 이진석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1시간여 펼쳐졌다.

특히 성우원 합주부는 1972년 창단한 이래 음악을 통한 정신지체인의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안정, 언어발달 등을 돕는 전문적인 장애인 재활치료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정기적인 자선연주와 저명 음악인과의 협연, 전국 음악경연대회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원범 스님은 "이번 음악회를 함께한 모든 환우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우리 사회의 온기 넘치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음악으로 전달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수행에서 행복 찾아야"

법계정사 개원 1주년 월호 스님 초청법회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와 부설 부산불교인재개발원은 법계정사 개원 1주년을 맞아 월호 스님 특별초청대법회를 개최했다.


정금강행 보살(왼쪽)이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오른쪽)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5월 15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법계정사에서 쌍계사 승가대학 강사 월호 스님을 초청해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법회에서 스님은 부산 불자들에게 수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과 그 소중한 가치에 관해 2시간 여 설법했다.

이에 앞서 부산불교신도회 명예회장 정금강행 보살(93)이 부산 해운대구 일원 땅 1000평, 전라남도 영광 일원 땅 7000평 등 총 8000평의 부동산을 기증했다.

정금강행 보살은 신도회 창립 당시, 초대회장 故 강석진 동명목재 회장을 보좌해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회장을 맡으며 42년 역사의 산증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숭고한 뜻’ 새기며 난국 극복

해남 대흥사 서산 · 초의 선사 뜻 기리며 ‘축제 한마당’



해남 대흥사에서 5월 22일 봉행된 제489주기 서산대제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으로 활약했던 서산 대사의 호국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문화행사가 땅끝 해남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5월 22일 경내 일원에서 ‘서산대사 제489주년 탄신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흥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15회 나랑사랑 글쓰기 대회를 시작으로 보살계 법회, 탄신대제 기념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암도 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 범각 스님, 김충식 해남 군수를 비롯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서산대사의 영정을 모신 표충사 앞에서 진행된 법요식에서 보선 스님은 “어젯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심하여 폭포가 생겨나도, 아침에 보니 그 속에 고기가 그대로 자연히 놀고, 학이 편한히 울고 날아가더라”라는 서산 대사의 시를 인용해 법문했다. 스님은 “이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서산대사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며 “나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범각 스님은 봉행사에서 “서산 대사를 비롯해 5000여 무명 승병과 의병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진왜란의 또 다른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의 기념행사는 전국 70여 곳에서 국가주도 행사로 이뤄지지만 서산 대사는 그 행적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서산 대사와 승병의 멸사봉공의 정신을 철저히 홀대하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요, 불행한 일”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국민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3~24일에는 대흥사의 산내암자인 일지암에서는 한국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의 선사의 다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8회 초의문화제 및 제2회 대한민국차인대회’가 개최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사지 사리 친견하세요

6월 27일부터 특별전

지난 1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11호)에서 발견된 사리장엄특별전이 6월 27일부터 한달간 익산미륵사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익산시, 금산사, 익산사암연합회 관계자들은 5월 18 · 21일 국립문화재 연구소 건축문화재 연구실과 전북도청에서 잇따라 사리장엄 특별전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행사 첫날인 6월 27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운의식을 마친 사리를 익산미륵사지 특별전시실에 봉안한 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지역 기관장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대규모 사리친견법회가 봉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꽃밭에 울려퍼진 ‘찬송가’?

무안지역 국회의원 공식행사서 불러… 교계 항의


5월 14일 무안 지역 행사에서 이윤석 의원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

전남 무안 지역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5월 14일 전남 무안 연꽃방죽에서 2000여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제1회 황토골 은빛교실 연합축제 한마당’에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윤석 의원이 ‘사명’이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불렀다.

행사 후에도 이 의원측은 이에 항의한 지역주민과 불교계에 아무런 답변을 않았다. 이에 17일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와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백남용)은 ‘이윤석 국회의원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공식행사에서 특정종교 찬송가를 부른 이윤석 의원은 불자와 국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오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4일 제1회 황토골 은빛교실 연합축제 한마당이 열린 행사에 초청된 이윤석 국회의원이 축사를 마친 뒤 당초 격려사 예정인 노인회장을 대신해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며 다시 단상에 올라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오’라는 내용의 찬송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의원에게 종교편향행위를 강력항의하고 공개사과와 참회를 요구했으나 도리어 “‘서울에 앉아있어도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떻게 조정하는지 다 안다. 순수하게 하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오늘 이윤석 의원의 공개사과와 행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무안군에 묻는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오 스님은 “지역민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평소 군민의 날이나 면에서 열리는 공식행사에서도 찬송가를 부르곤 했다”며 “이 같은 이윤석 의원의 행위는 종교편향을 넘어 종교탄압으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불사 신도회와 광주전남포교사단은 “무안군민은 특정종교를 선교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식순에도 없는 찬송가를 공개적으로 부른 것에 대하여 국민과 불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참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윤석 의원은 “사회자인 목사가 찬송가를 시켜 불렀을 뿐이며 종교편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행사는 무안군이 ‘은빛교실’이라는 명칭으로 각 종교시설(교회와 불교) 20여 곳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모아 처음 연 행사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화지·원고지에 동심 가득

동련 광주지부·전북 봉축위 어린이 잔치 열어

가정의 달을 맞아 호남지역 불교계가 어린 불자를 위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사단법인 동련 광주지구(대표 도제스님)는 5월 10일 광주상무지구 무각사에서 광주지역의 가장 큰 불교 어린이 축제인 제2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원각사(주지 도제) · 한마음선원(선원장 혜월) 어린이회를 비롯한 만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 불자 300여 명은 글짓기와 그림 솜씨를 뽐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련에서는 매년 한차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의적인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맘껏 기량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 금산사 주지)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도 같은 날, 전주 덕진공원에서 제6회 전북어린이 큰 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가족 등 2000명이 참가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다양한 민속놀이와 문화체험,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을 펼쳤다.

연꽃등 만들기 등의 불교문화 체험과 제기차기, 투호 등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도 마련된 어린이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군산 정안사 주지 정안 스님

천일기도 세 번 회향 지역불자 ‘감화’



드넓은 호남평야가 시작되는 대야들녘 한켠 작은 호수를 품에 안긴 듯 오룻이 자리 잡은 정안사에서 1000일기도를 3번이나 회향한 정안 스님(사진)을 찾았다.

스님의 법명인 정안을 따서 절 이름도 정안사로 지었다는 정안사는 정안 스님과 특별한 인연을 간직한 도량이다.

정안사가 자리한 군산시 회면 면 고사리는 정안 스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스님의 추억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애초 정안 스님은 서울의 한곳에 토굴을 마련하고 기도정진을 하려 작정했었다. 3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 선산에 성묘하려 들러 고향마을을 바라보던 중 불현듯 이곳에서 기도정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998년 여름 13평짜리 농가주택을 조립식으로 개조하고 작은 임법당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이듬해 하안거 백중무렵 까지 지장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큰 북에서 장정 4명이 나와 월성주를 주며 걱정하는 것을 체험한 스님은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그날부터 단숨에 1000배를 마쳤다. 자신감을 얻은 정안 스님은 2000년 5월 하안거 결제를 맞아 하루 3000배씩 100일 기도 원력을 세우고 정진에 들어갔다. 100일 기도 중 무릎이 끊어질 듯 쑤셔오고 비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스님은 기도를 마쳤다.

스님은 이어 1000일기도 원력을 세우고 오로지 절하는 것에만 온 정성을 쏟아가며 절수행을 계속했다.

매 100일이 될 때면 정안 스님은 신도들과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3000배 정진 후 정일 스님을 친견해 가르침을 받았다. 2003년 첫 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했으나 절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 두 번째 천일기도를 입재하고 정진을 이어갔다.

밤에는 무릎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진 몸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 입원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병원 입원실에서도 스님은 3000배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

두문불출하며 두번째 1000일 기도를 회향할 무렵 스님의 기도 정진을 눈으로 확인한 주변의 토지 소유주들이 스님에게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일이 생겼다. 가진 돈도 없고 오로지 정진만 하던 스님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외상으로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2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한 정안 스님은 토지불사와 법당건립 불사의 원력을 세우고 3번째 1000일기도를 입재했다. 하지만 이미 쇠약해진 몸으로는 절수행을 계속할 수 없어 세번째 1000일기도에서는 절수행을 줄이고 지장정근과 <금강경> 독송 등으로 기도를 이어갔다.

기도를 이어가자 신도들도 점차 늘었다. 불사도 탄력을 받아 주변 토지 약 3000평 정도를 마련하게 됐다. 세번째 1000일기도를 회향한 이 달에는 30평정도의 대웅전 건물도 낙성을 했고 1000평에 이르는 연지와 300평 규모의 차밭도 조성했다.

“불자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아 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정안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차를 생산하고 된장 등을 판매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www.hyunbulshop.com
현불샵 OPEN EVENT!!
현대불교에서 야심차게 오픈한 불교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실속있는 상품!!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과 편리한 구성!!

1. 회원 가입 이벤트 [5월 14일 ~ 6월 14일 까지]
■ 경품안내
단돈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도 경품이 팡팡팡!!!
온라인 쇼핑몰 hyunbulshop.com 오픈기념
적립금 지급 이외에도 상품을 구입 하시는 모든 회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달간!!!)
· 1등(2명) : 북한 신비의 금강약돌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트 (108염주+단주+합장주) 판매가 245,000원
· 2등(5명) : 건강에 좋은 만행화 지압 슬리퍼 판매가 60,000원
· 3등(10명) : 찜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허리팩 판매가 44,000원
· 4등(20명) : 우주탑 차걸이 판매가 8,000원

2. 적립금 이벤트 (회원으로만 가입해도!! 적립금이 팡팡팡!!)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적립금 2,000점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 달간!!!)
3개월 동안 현불샵 추천해주신 분과 추천받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적립금 5,000점과
현대불교신문 무료 3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구독자인 경우, 법보시 추천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유효기간 1개월 후 (자동소멸)

3. 현불샵 삼행시 짓기 이벤트
이벤트 창에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 이름의 삼행시를 지어 주세요~
연상되는 단어, 재미있는 표현 등..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순발력 있고 재치 넘치는 삼행시를 선정하여
반야심경 책갈피(북마크) 8개 1set를 총 20분께 드립니다.
※ 공통 :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를 현불샵 ‘공지사항’에 발표 해드리고, 개별 휴대폰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2)2004-8215~6


기도정진용으로 최고! 건강에도최고! 선물로도 최고!
신비의 금강약돌
영험의 소원성취 척적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 규격 : 108염주 10mm
손목합장주 10mm
12단주 25mm
신비와영험의 금강염주세트
· 판 매 가 ~~245,000원~~
30%할인가 171,500원


고전체 장식도 반야심경을
책 갈피로 형상화 시킨 작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의 전체 뜻은 경명(經名) 그 자체이다.
인간 몸 자체가 환(幻)이요 공(空)이니 참 즐거운 경지인 지복에 이르는 “마음글” 또는 “만법의 근본 글”이라는 10자(字)에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즉설주왈” 18자에 600부 반야사상을 함축한 주경(呪經)이 심경(心經)이라는 점이다.
반야심경 책갈피 · 8개 1set
· 판 매 가 ~~24,000원~~
20%할인가 19,200원


· 소재 : 초극세사원단(무균)과 동(발냄새, 무좀방지 효과), 바이오 실리콘(지압효과) 창 – 발포 우레탄
– 발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 황동 8개 첨가로 발냄새와 무좀방지 효과에 탁월합니다.
· 크기 : 230~280mm (10mm단위)
· 사이즈를 신청하실때 메모에 남겨 주시면 맞추어 보내드립니다
지압 건강 슬리퍼
· 판 매 가 ~~60,000원~~
30%할인가 42,500원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관불수향
– 관욕이 끝난 후에는 향탕수를 버리지 마시고 제주들의 손을 씻게 하시면 좋습니다.
–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사용법
청정수에 1~2방울을 타서 희석하여 사용하되 양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2방울 정도면 세숫대야 하나 정도를 희석할 수 있는 양으로, 1병으로 약 50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규 격 (mm) : 30×110
· 용 량 : 20ml
· 주 재료 : 침향, 전단, 백단, 자단, 천단 등
관 불 수 향
· 판 매 가 ~~120,000원~~
30%할인가 84,500원


전통오동나무뒤주 20kg
· 판 매 가 ~~110,000원~~
12%할인가 100,300원

최소 20번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거쳐
정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전통오동나무뒤주
· 특징
– 오동나무 원목의 연한부분을 쇠솔로 긁어내고 나이테의 경질부분만 남게 한 후 여러번의 사포질+칠+말림을 반복하여 만들어 충격에 마모가 적고 튼튼하며 표면에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 통풍이 잘되고 습기에 강하여 쌀을 보관하기 최적입니다.
– 쌀통같지않고 멋있는 고가구여서 인테리어 효과에 최고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천만번 불러도…

천태종 6월 1일부터 관음정진 1백만독 불사 대장정 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천태종 본산인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 등 천태종 사찰에서는 평일은 물론 주말밤에도 관음정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는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 대조사가 생전에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수지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생각생각에 잊지 않고(念念不忘)' 각자가 1백만번 이상 지성으로 부르라고 교시(敎示)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천태종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에서나 가정, 직장에서 관음정근을 생활화하고 있다.

<법화경> 6만9384자의 뜻을 함축한 '관음 주송(呪誦)'의 위신력으로 날이 다르게 교세가 급신장되고 있는 천태종이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6월 1일부터 관음정진 1백만 독 불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불사는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신 100주년(2011년)을 1년 6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그 뜻을 받들어 경제 한파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불자들에게는 깨달음의 기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천태종도들은 남녀노소 관음주송을 생활화하고 있다. 사진은 천태학생회 여름수련회의 관음정근 모습.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1일 오전 11시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리는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 결제식을 시작으로 2011년 말까지 1년 6개월 간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를 봉행한다. 법회는 삼광사에 이어 진주 월경사, 통영 서광사, 포항 황해사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7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 관문사에서 '국태민안과 경제회생 기원을 위한 관음정진 백만독 대법회'가 열린다. 이후에도 각 사찰별 순서대로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가 이어진다.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울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단 산하 사찰 30여 곳(추가 예정)은 여건에 따라 하루 5시간 30분씩 100일간 또는 하루 2~3시간 씩 300일간 불사에 동참한다. '관세음보살'을 하루 평균 5~6시간 씩 100일 간 염송할 경우 백만 독을 채우게 된다. 천태종은 백만 독 불사가 완료되는 2011년 총본산 구인사에서 회향식을 열어 백만 독 완독을 마친 사찰과 신도에게 기념 리본과 이수증도 수여할 계획이다.

천태종 교무부장 유정 스님은 "한국불교가 기복불교·지식불교로 흘러가는 현실에서 수행종단을 지향하는 본종의 관음주송 백만독 불사는 자성을 청정케 하는 참 불사"라며 "불자들이 자성(自性)을 밝히는 정진에 적극 동참해 수행불교를 선양하자"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부모 공경, 행복사회 지름길"

대전 광수사·대전MBC 공동 주최


대전 광수사가 17일 개최한 제3회 효투어 큰잔치. 2000여 명이 도량을 가득 메웠다.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도정)는 5월 17일 경내 마당에서 대전MBC와 함께 '효(孝)투어 큰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향상과 효도정신 선양을 목적으로 대전MBC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안 스님, 삼문사 주지 경혜 스님과 박성효 대전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수사 주지 도정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어른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현철의 '사랑의 불로초, 아미새'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한영주, 배일호 등 인기가수들과 재담민요꾼 김뻐국, 엿장수와 품바팀 등이 출연해 흥을 돋웠다. 특히 중국 경극의 일종으로 얼굴 가면을 순식간에 바꾸는 '변검'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수사는 참석저 1500여 명에게 점심과 기념품 등을 제공했으며, 건양대 의료진은 어르신들에게 안과와 내과 과목에서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대전MBC는 지난해 10월 제1회 '효투어 큰잔치'를 개최한 이래 태안 등 충청지역에서 순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는 5월 중 녹화방영된다.

혜철 충청지사장

건설업자 헌신으로 '여법 불사' 이뤄

안심정사 대웅전·설법전 중창불사 회향



17일 열린 논산 안심정사 대웅전·설법전 낙성식.

약사영험도량 태고종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가 대웅전 및 설법전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5월 17일 열린 안심정사 대웅전·설법전 낙성식에는 관촉사 주지 태설, 지장정사 주지 향, 신원사 주지 지성 스님과 임성규 논산 시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사에 기여한 김용철 도편수, 이규원 신도회장, 김주봉 부회장 등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

김용철 도편수는 인사말을 통해 "40년이상 집을 지으며 이렇게 열심히 일 한 적은 없었다. 약사여래불과 스님께 은혜를 갚는다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신도들이 포크레인을 몰고 오고, 철근공사, 전기공사 및 현장소장업무를 직접하는 등 무척 헌신적이었다. 무엇보다 법안 스님께서 수년간 고생하던 디스크를 낫게 해주셔서 열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안심정사는 낡은 대웅전을 43m²로 증축하는 소규모 불사를 계획했으나, 신도들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들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대웅전 66m², 설법전 165m² 뿐만 아니라 주차장 2645m²의 불사로 확대됐다. (041)742-4557

김성우 기자

선각종,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5월 17일 인천 항동 파라다이스호텔 특설법단에서 '국태민안기원 및 국운융창을 위한 생전예수재 시왕칠재 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영담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원응, 봉갑사 도륜, 사정원장 진원, 원로원장 법경 스님과 보성상조 유대근 회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승군무예 시연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1부 국태민안 국운융창 발원 법회와 2부 생전예수재 봉행으로 진행됐다. 종정 영담 스님은 "생전예수재를 통해 우리 생명이 윤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무상의 선연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061)433-2233

경천 스님 서예부문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서 '이규보 시'로



천태종 사회부장 경천 스님(서울 성룡사 주지·사진)이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28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예서 '이규보 시'로 서예부문 특선에 선정됐다.

한국미술협회는 5월 11일 "지난 5~7일 서예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총 1742점이며, 심사를 통해 응모작품 중 입선 310점, 특선 82점 등 총395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천 스님은 심사결과 발표 직후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글을 쓸 수 없어, 수행의 방편으로 접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너나 스님은 2004년과 2006년 국전 두 차례 입선에, 2007년 특선에 입상한 바 있다. 또 '삼봉(三峰)선생 시'로 제34회 경북서예문인화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경천 스님은 "절에서 어린이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글을 가르치고, 절간 한 켠에 글 한 줄 남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면서도 국전 초대작가가 되어 좀 더 효과적인 포교를 펼치겠다는 발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입상작들은 6월 12~18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7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열린다. 김성우 기자

조불련, 진각종 원장 취임 축하문 보내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진선여고 내 회당기념관에서 열리는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 혜정 정사 취임법회를 앞두고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이 12일 축하 전문을 보내왔다.

심상진 조불련 위원장은 축하전문을 통해 "제28대 통리원장 취임식을 진행하는 귀 종단의 모든 법우들에게 인사를 보내면서 새로 선출된 혜정 통리원장님의 취임을 열렬히 축하한다"며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새로 선출된 통리원장님이 앞으로도 우리 연맹과의 튼튼한 유대 속에 6·16 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한 홀륭한 불사들을 이루어 내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진선여고 회당기념관 전시실 개관

진각종립 진선여고(교장 김기덕)와 진선여중(교장 덕일 정사)은 5월 18일 교내 회당기념관 전시실 개관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진각종 통리원장 겸 회당학원 이사장 혜정 정사, 종의회 의장 성초 정사, 원로스승 일정 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혜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진각종 창종정신을 담은 회당기념관 전시실이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 열반지, 초전설법지, 대각지 등 4성지를 비롯해 회당 대종사의 발자취가 스며들었던 모든 곳에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당기념관 내 로비에 마련된 전시실에는 금강원 전경그림, 회당 대종사 친필 서적, 연구관련 서적, 회당 대종사의 대외활동을 담은 사진 2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김성우 기자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7

눈 앞에 있는 그대로 보라

[원문]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무단역무장(無短亦無長)
본래비조백(本來非早白)
수처현청황(隨處現靑黃)
–마니산 정수사

[번역]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은
짧지도 길지도 않으시며
본래 희거나 검지도 않으며
모든 곳에 인연 따라 나타나시네.

[선해(禪解)]

어느 절이든 사찰의 유래는 깊다. 그것은 그 사찰만이 가진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된 사찰들은 그 나름의 독특한 정취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사찰들이 품고 있는 전통성들이 현대와 어울려 차츰 그 품격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물을 재건하거나 중창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보존법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건물을 해체 보수 할 때는 기존의 건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몇 년 전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도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으로부터도 지켜왔던 국보 1호 남대문을 한 개인의 원한과 욕심으로 인해 잃고 말았다. 이유야 어떻든 심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나간 상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다. 수백억을 들여 다시 남대문을 재건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남대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용과 품격을 어떻게 재건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찰 건축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 치밀한 계획아래 다시 세워지겠지만 염려가 앞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조상들만이 가진 독특한 사찰 건축기술을 현대인들의 건축술의 잣대만으로 설계 재건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보다 더 치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찰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적 재산인 국보와 보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적으로 그 사찰의 주지나 스님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참으로 우리 스님들의 공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일 사찰에 스님들이 없다면 국가는 국보와 보물들의 보존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에 대한 사찰의 지원이 턱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공정하고 정당한 관리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상징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찰의 보수나 관리에 있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이다. 더욱이 사찰 보수나 중창에 있어 기존 문화재의 모양과 채색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소홀히 하다보면, 전통사찰이 마치 현대에 지은 사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심히 안타까운 심정마저 든다.

최근에도 전통사찰들의 주변이 개발되면서 사찰의 수행환경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약한데다가 개발론자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강해 사찰로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전통사찰을 종교적 시각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민족의 문화유산, 무형과 유형의 유산과 거기에 스님이 역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에 물들어 사물의 본래 모습 못 봐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핵심 보는 안목 갖춰야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나아가야 할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하고 싶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정수사다. 이 절은 강화도 마니산 동쪽아래에 누운 작고 아담한 절이다.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면 멀리 인천의 영종도와 은빛으로 빛나는 갯벌이 한눈에 들어온다.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이절의 대웅전은 조선 초기 주심포 양식으로 정면에는 특이하게 널찍한 마루가 있어 마치 시골집을 찾는 기분을 갖게 한다.

법당 건물의 기둥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게의 중심이 공포와 기둥을 통해 지면으로 전달되는 특이한 구조로 초석(礎石)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건물로 보물 제161호이다.

대웅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과 네 분의 협시불이 모셔져 있다. 천장의 중앙에는 움푹 파인 우물식이며 그 주위는 빗천장으로 학(鶴)과 용(龍)을 그려 넣어 법당내부는 온통 문양(紋樣)으로 가득 찬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창호는 꽃살무늬로써 화려함과 정교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겹처마의 단청은 여느 절과는 색에서부터 문양까지 그 차이가 매우 커 아름답다.

정수사에는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상사화다. 상사화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달려 있을 때에는 꽃이 없어,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한다는 꽃으로써 늦여름이면 정수사 마당 앞의 산자락에는 노랑 상사화 군락이 형성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수사 하면 차(茶)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차(茶)의 성지라고 할 만큼 물맛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처음 절의 명칭은 정신수련을 해도를 얻으라는 뜻인 정수사(精修寺)로 표기를 했다가, 무학 대사의 제자이며 끽다(喫茶)의 달인으로 불렸던 함허(涵虛) 스님이 경내에 솟는 맑은 샘물을 보고 정수사(淨水寺)로 바꾸었다고 한다. 함허 스님이 남긴 한 수의 선시(禪詩)는 이 절이 가진 차의 맛을 단 한 줄로 압축한다.

불가에서 차를 마시는 행위는 곧 참선 수행이 되는 '다선일여(茶禪一如)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불교와 차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스레 꽃을 피웠다. 차를 마시는 일은 부처와 내가 하나 되는 삶, 차와 선이 하나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행과정이다.

그래서 고려 때 지눌 스님은 "불법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곳에 있다"고 설법하였으며 함허 스님은 "한 조각의 마음, 한 주발의 차에 있나니"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대웅전의 주련 속에 담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은/ 짧지도 길지도 않으시며/ 본래 희거나 검지도 않으며'는 주된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中道)사상이다. 말하자면 현실을 바라보매 있어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곳에 인연 따라 나타나듯' 이 부처님이 반드시 화현한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이란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보살의 바라밀을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쉽게 말해서 중도란 '이변비중(離邊非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변(離邊) 즉 양변을 떠나나 비중(非中) 그렇다고 가운데도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쾌락과 고행, 이익과 손해 등의 일체의 양변을 떠나되 그 둘의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도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굴릴 때 나온 말씀인데 일단 승가에서는 쾌락과 고행의 어느 쪽에도 기울지 말고 수행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더욱이 요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항상 말을 덧붙여 말하거나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는 몸속에 욕망에 대한 집착과 거짓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자기를 속이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것이다. 정수사 대웅전의 주련 속에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7

미혹한 수행 윤회 면치 못해

[원문]

問曰 若不見性 念佛頌經 布施持戒精進 廣興福利 得成佛否 答曰 不得 又問 因何不得 答曰 有少法可得 是有爲法 是因果 是受報 是輪廻法 不免生死 何時得成佛道 成佛須是見性 若不見性 因果等語 是外道法.

여쭙기를, "본래부터 있는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더라도 염불을 하고 경을 읽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여 멀리 복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될 수 없느니라"하셨다.

"어찌하여 될 수 없습니까?"

"조그만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중생심이 부리는 유위법이며 인과의 법이며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를 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데 어느 때에 부처가 되겠느냐? 부처가 되려면 마땅히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본성을 봐야 하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 외도의 법이니라."


'동굴 달마도'. 日 녹원사(鹿苑寺) 소장.

[해설]

"본래부터 있는 자기의 본성(本性)을 보지 못하더라도 염불을 하고 경을 읽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여 널리 복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제자가 묻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염불을 열심히 하고 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행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이 있다면, 아마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깨달을 수 있겠거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마 스님께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에 계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근에 성이 하나 있는데, 달마 스님이 양무제와 대화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가 있습니다. 당시 양무제는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신심도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금룡포를 두르고 가사를 걸치고 직접 문무백관(文武百官)을 상대로 <금강경>을 강의했답니다. 그리고 팔만사천 개의 탑을 세웠고 절을 많이 지었으며 스님들도 많이 양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 공양도 많이 올리는 등 큰 복을 지은 분이죠. 양무제 스스로도 큰 복을 지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무제는 중국에 도인이 있다면 그 분을 모셔다 공양도 올리고 자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 무렵 인도에서 달마 스님이 건너왔다는 소문을 듣고 양무제는 달마 스님을 궁으로 불러들여 다른 스님에게 했듯이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달마 스님께서는 "공덕이 없습니다" 하고 한 마디로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공덕이 훌륭하다고 추켜세웠는데, 달마 스님께서는 공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양무제는 달마 스님이 왜 공덕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공덕이 없다'는 것은 선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깨달으신 자리에서 일러 주셨는데, 양무제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선 불교를 전하려고 중국에 오셨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소림사 동굴로 들어가서 9년 동안 때를 기다린 겁니다. 거기서 제자인 2조 혜가대사를 만나서 중국에 선을 전하게 된 것이죠.

달마 스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은 불성을 모르고 경을 읽거나 염불을 외우거나 보시를 행하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여 널리 복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성품을 바로 보고 염불했을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를 정확히 알고서 정진을 해야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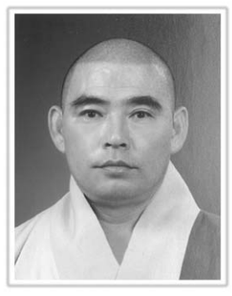
불교를 모르면 진짜 성품의 자리 역시 모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염불을 하거나 경을 외거나 해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부는 뭐하러 하나' 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지만 성품을 모르고 가는 길은 끊임 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즉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성품을 보고 정진해야 합니다.

두 길이 분명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갈 것이냐? 윤회의 세계로 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고 싶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세계로 가시고 싶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가시고 싶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가시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교를 정확히 알고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죠.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정진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최면사 · 퇴마사 1:1 실전교육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퇴마,전생,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교육비용 : 200만원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
(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2-0666 / 364-5586 / H·P 010-5656-3915 /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 사 최면사 · 퇴마사 현오 합장

“행복하려면 감사하고 미소 짓고 말 아껴라”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고산 스님은 1945년 범어사에서 동산화상을 은사로 득도. 1948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6년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 1954년부터 1970년까지 20여 안거 성취. 강원에서 삼장(三藏)을 연구했고, 1961년 직지사에서 고봉 호상를 법사로 건당 및 전강을 받음. 1972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석암화상으로부터 전계를 받음. 조계사, 은혜사, 쌍계사 주지를 역임. 1998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 2008년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추대.

저서로는 〈우리말 불자 수지 독송경〉 〈반야심경 강의〉 〈대승기신론 강의〉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지옥에서 극락으로의 여행〉 〈지리산의 무쇠소〉 등 다수 있음.

탐·진·치 놓아버리면 ‘마지막 준비’ 지혜롭게 잘 하는 것
“부자 되고 싶으면 남에게 베풀어 복덕 종자 심어야”

선지식을 찾아서 고산

고산 스님께서 사자좌에 올랐다. 스님께서는 주장자를 높이 한 번 들어보였다.

스님은 이미 주장자 법문을 마쳤는데, 주장자를 보는 이의 마음은 주장자를 떠나지 못한다. 달마대사는 〈사행론〉의 ‘시유관찰형색문(示諭觀察形色門)’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장자를 보고 주장자란 견해를 지으면 이는 주장자 상(相)을 보고 주장자 견해(見解)를 짓는 것이요, 마음으로 이 주장자를 보더라도 이는 주장자 상(相)이라. 법은 주장자도 없고 주장자 상도 없으니 이러한 까닭에 주장자를 봄으로 곧 주장자 법을 얻는 것이다. 일체 형색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고산 스님은 〈유마경〉을 펴서 한 구절을 독송하고 나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주셨다.

“중생들은 생사에 윤회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의 나고 죽는 곳에 들어가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야 열반에 듭니다. 보살은 죽고 태어나는 것이 자유자재하여 돼지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돼지로 태어나고, 개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개로 태어나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보살은 영화롭고 욕되는 일에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를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이 세상 만물에는 배울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우리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강은 강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해요.

바라밀은 미혹의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으로 모든 보살이 육바라밀에 의지해 행을 닦을 때는 바라밀을 부모님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끝이 없어야 하며, 한량없는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늘 용맹정진하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지혜의 보검으로 번뇌 도적을 베어내야 합니다.”

고산 스님께서는 매달 석왕사에서 약사재일을 맞이하여 법문을 하신다. 법문 때마다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유마경〉강의를 한품씩 해 주시는 것이다. 〈유마경〉강의를 끝낸 스님은 대중을 한 번 훑어보시고는 다음 법문을 이어갔다.

“어떤 보살이 기도 잘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뇌경색이라 의식이 없는 거여. 그래서 산소호흡기 꼽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 그 치료비가 엄청난거라.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야. 억지로 목숨 이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자식들이 산소호흡기 빼줄라고 해도 병원에서 안 빼준다카데. 그래서 법원에 호소를 해도 1심, 2심, 3심 다 병원이 이긴다고 하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다 병원이 돈 벌려고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 병원에서 호스 주렁주렁 달고 죽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죽어요.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죽고 나면 자손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좋은 일이야. 오래 살려는 것도 다 헛된 욕심이지. 아무 소용없어.”

고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육신의 무상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육신의 공(空)함을 일깨워주는 소동파와 불인요원 선사의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난다.

어느 날 홍주자사로 부임해 간 소동파는 명성이 자자한 불인요원 선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불인 선사의 방에는 앉을 의자조차 없었다. 선사는 소동파에게 말했다.

“마침 오늘 내 방의 의자를 누가 빌려갔으니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소동파는 선사를 좀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마디 하였다.

“의자가 없으면 스님의 몸뚱이를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동파의 말에 불인 선사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맞추면 자사의 의자가 되어드리겠지만, 만약 그대가 틀린다면 옥대(玉帶)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지수화풍 사대(四大)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는 원래 공(空)한 것인데 자사는 어디에 앉으려 합니까?”

‘사대는 원래 공하다’는 한 마디에 말문이 막힌 소동파는 불인 선사에게 옥대를 풀어주고는 가르침을 청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염불 열심히 하여 자기 갈 날을 준비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죽는 것을 모르고 자꾸 욕심부리지. 어리석음, 탐욕, 세상에 대한 분노를 놓아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지막 가는 준비 잘 하는 것이지. 탐진치 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성불하고 싶으면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되요. 상대방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 싶으면 상대방을 얕보고 그래. 남을 업신여기면 염불, 간경, 기도 등 무엇을 해도 성불하기 어려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상불경보살로 살 때 돼지 보고도 부처가 될 것이라 했고, 거리에 있는 무엇을 보고도 다 부처가 될 것이라 하면서 공경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공경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길이고 부처 되는 길이지.

요즈음 우체국이다 하고 전화해서 돈 다 빼가지고 가는 그런 사기단이 있다고 하데. 보살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는 ‘스님 어쩌까에?’ 하는데 내가 뭐 판검사가 어찌 아노. 자신이 잘 해야지. 그리고 요즈음 뉴스 보니까 부모에게 몹쓸 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야. 열 달 동안 뱃속에서 힘들게 키웠고 세상에 내 보낸다고 힘들었고 또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은덕을 모르고 불효를 해. 타인을 해치는 것보다 부모를 해하는 것이 더 나빠요.

지금 말법시대라 하지만 부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단지 부처님 재세에는 착한 사람이 많고 나쁜 사람이 적었을 것이고, 말법시대에는 착한 사람이 적고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고민을 안고 고산 스님을 찾아온다. 그럴 때면 고산 스님은 사람들에게 분별심을 버리라고 한다. 좋은 날을 택해달라는 이에게는 비가 오면 촉촉이 와서 좋고, 맑은 날은 맑아서 좋고, 바람이 부는 날은 선선해서 좋고, 구름이 낀 날은 끼어서 좋으니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일러준다. 좋은 방위를 찾는 이에게는 불교는 무남무북무동무서(無南無北無東無西)라, 우주는 갓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본래 없으며 중앙이 본래 없는데 어디에서 중심을 잡아서 동서남북을 정할 것이며 방위를 정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한단다. 기도 염불을 해도 부자가 안 된다고 하는 이에게는 남에게 베풀어 복덕종자를 심으라 한다. 스님은 삿된 법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법을 간곡히 일러주신다. 그래서 스님은 세납이 칠십이 훨씬 넘었건만 법문을 청하는 이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바른 법을 들려주신다.

“부처님 말씀에 첫 번째 생각할 때 종자가 마련되고, 두 번째 그 생각을 거듭할 때 싹이 틔고 세 번째 생각을 하면 스스로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 그러니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운 사람은 함부로 나쁜 생각, 잡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모든 생각을 일으켜서 많은 종자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끝없이 업을 짓고 과보를 받아요.”

고산 스님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요, 둘째는 항상 미소를 지을 것이요, 셋째는 말을 아끼라고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일체만유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몽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한 것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 키워주시니 감사하지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 아프게 꾸짖어 주는 것이 감사하지요,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손 아프게 채찍질해 주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항상 침묵하고 말을 조심하면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인데, 들은 대로 본 대로 말을 쏟아낸다면 날마다 시시비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행복할 수가 없지요.”

고산 스님은 출가 이후 64년 동안 수행과 포교, 불사로 일관된 실천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논어〉 〈맹자〉 〈중용〉 〈대학〉등 사서를 배웠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다. 초등학교 때 뒷동산에서 친구랑 한시(漢詩)를 주고받으며 놀았을 정도이다.



“신심 내면 안 될 일 없어요”



일찍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읜 고산 스님은 출가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출가를 결심했던 분이다. 꿈에는 더러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겠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100일 관음기도를 모시기도 여러 차례였다. 1000일 관음기도를 올리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조석 예불 끝에 삼십분간 관음 정근과 발원문은 빠진 적이 없다.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 한다.

고산 스님이 범어사에서 동안거 결제를 했을 때이다. 이때 가행정진까지 너끈히 해내었다. 입승스님이 죽비를 들고 돌아다니다 졸고 있는 고산 스님의 어깨를 힘껏 세 번을 내리쳤다. 그 죽비에 맞는 순간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한 생각이 번쩍 하고 일어났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나를 치지 못하고 송장만 치는 구나”하고 큰소리로 외쳤더니 입승스님이 할을 했다. 입승스님의 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역부여시 도봉타월(亦復如是 掉棒打月, 또한 그와 같은 할은 방망이를 잡아 달을 치는 격이라는 뜻)이라 했다. 그랬더니 조실스님께서 ‘니우끽철봉 석인유혈루(泥牛喫鐵棒 石人流血淚, 진흙소가 쇠망이를 맞으니 돌사람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라 했다. 고산 스님은 조실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뇌리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지나가서 큰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했단다.

고산 스님은 은사이신 동산 스님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동산 스님은 대중이 차고 넘쳐도 방부를 받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대중과 함께 예불과 도량청소도 하셨어. 은사 스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예불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고산 스님은 비구계를 받은 후부터 경(經), 율(律), 론(論) 삼장을 꾸준히 익혔다. 28세가 되던 1961년 직지사에서 고봉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았다. 그때 학업을 증장시키기 위해 고봉 스님을 모시고 김천 청암사 극락전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고봉 스님의 명성이 자자한 터라 청암사에 비구 비구니 학인들이 오십 명 가량 모여들었다. 청암사에서 고산 스님은 강사로 임명돼 자신의 공부를 더욱 증강시킬 수 있었다.

고산 스님은 1966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새벽 예불 후 좌선 중에 홀연히 한 경계가 있어 게송을 지었다.

심행일장몽(心行一場夢)
식심즉시각(息心卽是覺)
몽각일여중(夢覺一如中)
심광조대천(心光照大千)
마음 작용은 한 바탕 꿈이요
한 마음 쉰 것이 곧 잠깬 것이라.
꿈과 잠깸이 한결같은 가운데
마음 광명이 대천세계에 비추도다.

고산 스님은 게송을 읊고 나서 “이 우주에 오직 나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봉 스님은 “이제 됐다. 앞으로 매이지 말라”면서 인가하셨다.

스님은 강사, 율사, 선사로서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 여쭈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용력가중배 사력십중배(用力加重倍 死力十重倍)라는 말이 있어요. 힘을 쓰면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이 나오고, 죽을 힘을 다하면 평소보다 열배의 힘이 나온다는 말이지. 사람이 신심을 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고산 스님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초발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학생이 입학할 때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우등생으로 졸업 못할 사람이 없고, 결혼할 때의 마음으로 산다면 싸울 일이 없고 이혼할 일이 없을 것이며, 회사원이 입사할 때 마음으로 근무한다면 회사도 발전시키고 진급도 할 것이란다.

하는 일이 시들하게 느껴질 때면 ‘첫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볼 일이다. 첫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한다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출발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5. 인간문화재 이만봉 스님

만봉(萬奉, 1909~2006) 스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신촌 봉원사에서다. 법사 임석진 스님이 만봉 스님 댁에서 하숙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과년한 따님이 시집도 가지 않고 아버지와 스님을 시봉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인상이 특이하고 웃음이 호걸스러워 잘 잊혀지지 않는다. 키가 훨씬 크고 녹라의상에 홍가사를 입고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16나한 가운데 한 분으로 보인다. 세치 눈썹이 좌우로 길게 뻗어 내리고 이마가 툭 튀어나왔으며, 귀 뒤에 큰 혹이 달려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아 놓아 내가 인간문화재가 된 것이야.”

하고 껄껄 웃으시면 좌중이 모두 박장대소를 한다. 40년 동안 거의 다달이 뵈웠지만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섭(필자의 속명)이는 복인이야. 어떻게 하룻 저녁 사이에 그렇게 뵙기도 어려운 큰스님의 제자가 되느냐 말이야. 10년, 20년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자네를 큰스님의 전생 자식으로 생각하니 잘 모시게.”

항상 다독거려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만봉 스님은 1909년 서울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나 명화원 김예원 스님에게 득도했다. 집에 있으면 명(命)이 짧아 일찍 죽게 된다고 해 출가했다고 한다. 17세에 불교강원을 나와 2년 동안 보살상 1000장, 불상 1000장을 그려 금어(金魚)가 됐는데, 일 거리가 단청보다는 불화가 많아 단청장으로 인간문화재가 됐으나 두 가지를 겸하고 있었다.

단청은 아버지 이윤식씨로부터 물려 받았다고 한다. 공주 마곡사, 서울 경국사, 도선사, 봉은사, 천축사, 보문사, 남한산성, 경희루, 경복궁, 보신각, 봉원사와 금강산 표충사, 양주 회암사, 승주 선암사 등 전국 유명 사찰과 중요 문화재를 단청하고, 월남 평화사까지도 단청했다.

명산 각처에 있는 괘불과 후불



내 시봉을 10년 동안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며 받아주었다.

이튿날부터 청소하고, 차 달이고, 화필 색상 심부름을 하다가 들어 온지 1년이 돼서야 비로소 금 긋기를 시켰다.

“어떻게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람노릇 시키기 위해 1년 동안 시봉을 시켰는데, 다른 시봉이 들어 왔는데도 내 시봉은 그애가 하고 있어. 참으로 한 자세로 앉아 금 긋기가 쉽지 않는데, 이놈은 한번 앉으면 5000번씩 문제 없이 해 내거든. 10년만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 뿐 아니라 금어(金魚)도 될 것일세.”

스님의 교육정신은 화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고 나면 남에게 신경 쓰지 않게 옷 갈아입고, 방 청소하고, 밥 차려 먹고, 직장에 나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자기 할 일 잘 하는 사람, 직장에 나가서도 선 · 후배를 잘 알아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전후 · 좌우 · 상하에 자기 자리를 잘 키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최고의 인격자라 생각한다. 선(禪)을 하는 사람은 좌선으로서 행업(行業)을 삼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로서 업을 삼듯이 스님은 그림 그리고 단청하는 것을 한 가지 수행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청과 불상 · 탱화 그 자체가 생불(生佛)로 이해된다고 했다.

스님의 자제분 가운데는 3남매가 있는데, 큰 자제분은 미국 LA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서 용운사라는 절을 지어 포교하고 있고, 둘째는 금어가 된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따님은 결혼하지 않고 평신도 수행자로서 화실에 들어와 공부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98세 고령에 이르기까지 안경을 쓰지 않고 세필로 그림을 그리시던 만봉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먼저 사람 되라 가르치던 만봉 스님 “단청 불화 자체가 생불”

윤달 든 해에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반야심경

금동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 주며, 특히 대반야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번창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삼재가 있으신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17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 공로패, 감사패 대용으로 좋습니다.



금동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 축소판 ▲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삼매와 변재(辨才 : 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9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법공양판)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부 이상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사륙배판,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내용물 :
함합소 · 금강경 · 만관 · 금강경찬
칠마 · 천수다라니 · 돈다라니
소다라니 · 탑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지전



예수재 행사 장엄등

※ 일반 행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핸드백에 쏘~옥 들어가는!

법공양으로 좋은 한장본 불서

포켓용



◆ 크기 : 10cm×17.7cm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3,000원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3,500원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3,000원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3,5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3,0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3,5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3,000원	•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4,000원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3,000원	•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3,000원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4,000원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4,0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3,500원	• 지장참회예문	186페이지	4,0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3,500원	• 관음참회예문	190페이지	4,000원

전권(18권)을 구입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63,000원~~→50,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⑬

여래는 언사와 의리에 걸림이 없어

涅槃經廣辯百句解脫以釋大涅槃者 涅槃則止義 是約止以明果也

<열반경(涅槃經)>에서는 백 구절로 해탈을 광대하게 논변하여 대열반에 대해 풀이하였는데, 여기에서 열반은 그친다는 지(止)의 의미이다.

<열반경> 여래성품(如來性品) 제42에서 가섭보살이 세존께 정중히 대열반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고 간청하였더니 세존이 그를 위하여 광대하게 논변한 것이 백 구절이나 되었다. 이 백 구절은 각자 동일하지 않으나 대열반과 해탈의 진실한 의미를 환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가 지나치게 번거로워 모두 다 기술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간략히 한두 가지만 수록하여 참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열반경>에서 세존은 가섭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야, 진실한 해탈은 일체 번뇌속박을 멀리 여읜다고 말한다. 진실한 해탈은 모든 법에 대한 속박을 여위었기 때문에 일어남도 없고 화합도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합하여 자식이 태어나지만 진실한 해탈은 이와 같지 않다. 따라서 진실한 해탈을 불생(不生)이라고 말한다. 가섭아, 비유하면 최고의 버터인 제호(醍?)의 성질이 청정하듯 여래도 역시 그러하여 부모가 화합하는 것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청정하다. 그런데도 부모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가섭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실한 해탈이 바로 여래이며 여래와 해탈은 둘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점이다. 이를 비유하면 봄날에 종자가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바로 싹이 터서 출생하지만 진실한 해탈은 이와 같지 않다."

또 말하기를 "진실한 해탈은 모든 탐욕과 일체 분별상과 일체 속박과 일체 번뇌와 일체 생사와 일체 인연과 일체 과보를 끊는 것이며, 이것을 여래라고 한다. 따라서 여래가 바로 열반이다. 일체 중생은 생사에 대해서 공포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번뇌 때문이다. 따라서 삼귀의를 해야만 한다. 이는 마치 한 무리의 사슴이 사냥꾼을 두려워하다가 사냥꾼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 한번 팔짝 뛰어넘으면 삼보에 한번 귀의하는 것이 되며, 세 번 뛰어넘으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되는데, 이처럼 사슴들이 세 번 뛰어넘었기 때문에 안락을 얻게 된다. 중생도 그러하여 마군과 악한 번뇌를 두려워하므로 삼귀의를 해야 한다. 삼귀의를 하기 때문에 안락을 얻게 되는데, 안락을 받는 자가 바로 진실한 해탈을 얻으며 진실한 해탈이 바로 여래다. 여래는 바로 열반이며, 열반은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이 불성이며, 불성이 바로 결정이며, 결정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다"라고 하였다.

한 구절의 아미타불 염불하는 것도 '상적정'
염불하는 이치와 일 둘이지만 서로 자유자재

여래가 비록 언사에 걸림이 없고 의리에도 걸림이 없어 이 두 가지의 오묘한 변론으로 답변하여 열반을 백 구절로 풀이했으나 최후엔 대열반과 해탈의 진실한 말은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단지 그 의미만을 취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열반과 해탈을 백 구절로 논변하기에는 실로 부족함이 많다.

열반을 '지(止)'자로 요약하여 깨달음의 과보를 밝혔는데, 열(涅)은 불생을 의미하고 반(槃)은 불멸을 의미한다. 불생불멸이 바로 '지'이며 '지'가 바로 선정의 의미이다. 따라서 선정을 일으키는 '지'로서 깨달음의 극치인 과보를 밝힌 것이다.

故云 大般涅槃名常寂定 定者卽是止義 法華經中雖約觀明果 則攝於止 故云 乃至究竟涅槃常寂滅相 終歸於空 涅槃中雖約止明果 則攝於觀 故以三德爲大涅槃 此二大經雖復文言出沒不同 莫不皆約止觀二門辨其究竟 ?據定慧兩法以明極果

"대열반은 항상 고요한 삼매"라고 명칭한다. 삼매는 바로 '지'의 의미이다.

<법화경>에서 '관'의 편에서 '과'를 밝혔다면 '지'를 포섭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경열반상적멸상이 끝내는 공으로 귀결된다"라고 하였다.

<열반경>에서 '지'의 편에서 '과'를 밝혔다면 '관'을 포섭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삼덕을 대열반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경전에서 비록 문자언어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와 관 두 수행문의 편에서 최후를 논변한 것이며 아울러 정혜 두 가지 법에 의거해서 극치의 과보에 대해 밝힌 것이다.

열반이라는 두 글자는 간략하게 호칭한 것이며 갖추어 말하면 반열반라(槃涅槃那)인이다. 대열반은 마하반열반라이며 '대(大)'는 마하이다. 이를 번역하면 대멸도(大滅度)인데, 최후까지 불생불멸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항상 고요한 삼매, 즉 상적정(常寂定)이라고 명칭하는 까닭은 소승교 가운데도 불생불멸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소승은 열반을 상적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사를 벗어났다 해도 반쯤만 끝냈고 번뇌를 끊었다 해도 반쯤만 끊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대승에서는 분단생사와 변역생사를 건너서 지말번뇌와 근본번뇌까지 소멸하였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한 구절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도 상적정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염불하는 이치와 염불하는 일은 둘이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理)와 사(事) 사이에서 혼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은 종일토록 전도된 망상 속에 있다. 그러므로 생멸이 없는 열반 속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 것은 마치 눈을 손으로 누르면 본래 없던 허공 꽃이 보이듯 항상 적정하지 못하다.

그러나 아미타불 한 구절의 명호를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히 염불한다면 삼계 내 범부의 견혹과 사혹에 요동하지 않고, 출세간 소승의 진사무명(塵沙無明)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위없는 반열반은 최후까지 항상 고요한 삼매이며, 이것이 바로 한 구절 아미타불이라는 점이다.

열반에서 삼매를 말한 까닭은 삼매가 바로 '지'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세존께서 은근하게 수행방편을 칭찬하면서 '관'의 편에서 깨달음의 과보를 밝혔는데, 이는 '관'속에 지수행을 포섭하고 있다.

또 "구경열반에 이르면 항상 적멸하기 때문에 끝내 공의 이치로 귀결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은 관수행 속에 지수행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이유는 최후열반이 바로 '지'이고 상적멸상도 '지'이며 끝내 공으로 귀결하는 것도 역시 '지'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수행 속에 지수행을 동시에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열반경>에선 해탈의 측면에서 지수행으로 과보를 밝혔으나 이는 단지 지수행 속에 이미 관수행을 동시에 포섭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삼덕(三德)으로 대열반을 삼는다.

열반에는 세 종류가 있다. 원정열반(圓淨涅槃)은 반야의 덕이고, 방편정열반(方便淨涅槃)은 해탈덕이며, 성정열반(性淨涅槃)은 법신덕이다. 이를 열반삼덕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사종열반(四種涅槃) 3

대승 법상유식(法相唯識)에서 분류한 사종열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淸淨涅槃)

모든 중생들의 본성은 설사 객진번뇌(客塵煩惱)가 있다 해도 자성은 청정하기만 하여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을 본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생멸이 없이 허공처럼 담연하여 일체 분별의 모습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자성청정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경지를 반야심경에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설파하였을 것입니다.

2) 유여의열반(有餘依涅般)

이는 이장번뇌 가운데서 번뇌장(煩惱障)을 끝까지 다 끊은 데서 나타나는 생공진여평등(生空眞如平等)의 이치입니다. 유여의(有餘依)라 하는 것은 유루생사법이 의지하는 육신인데, 이미 끊은 번뇌에 대비해서 육신이 남아있음을 말합니다[餘]. 이처럼 유루생사가 의지하는 육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번뇌장이 영원히 적멸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유여의열반이라고 합니다.

3) 무여의열반(無餘依涅般)

이는 육신과 정신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 진여평등의 이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번뇌장이 이미 다하고 나면 고통의 과보가 의지하는 육신에서도 공적의 이치를 증득하여 생사의 고통이 영원히 소멸하기 때문에 무여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생공(生空), 즉 아공진여를 증득한 열반일 뿐입니다. 단지 육신의 있고 없는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4)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

이는 소지장을 끊은 데서 나타난 법공평등진여(法空眞如平等)의 이치를 말합니다. 소지장은 올바른 지혜, 즉 법공관(法空觀)을 일으키는 반야지를 장애합니다.

소승인은 이 같은 소지장번뇌 때문에 생사와 열반이 본래 차별이 없는 이치를 모르고 싫어해야 할 생사가 실재하고 기뻐할 열반이 따로 있다고 굳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소지장마저 끊고 보리의 진실한 지혜를 얻을 때 생사와 열반에서 염증과 기쁨의 집착을 평등하게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단지 대반야의 지혜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에 기쁨으로 집착하지 않고 삼계생사에 현신하여 대자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와 자비행을 중생계가 다하도록 행하기 때문에 열반과 생사, 그 어느 쪽에도 집착으로 안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주처(無住處)'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20만원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16만 5천원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김봉환 합장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항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동쪽나라 미르아오
신국판 464쪽
₩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총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문의] 우창산업 (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오매 일여가 되느냐” “안 됩니다” “더 정진하라”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21〉

제5장 선지식 4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결의한 봉암사 대중들은 왜색불교를 벗겨내는 일부터 실천했다. 왜색불교 중 가장 눈에 드러난 것은 가사의 색깔이었다. 일본식의 검정색 가사나 부처님도 입지 않은 붉은 비단가사를 걸친 승려들이 많았던 것이다.

봉암사 대중들은 율장에 의거해 면가사로 하되 3종의 색이 섞인 괴색으로 염색해 마련했다. 그 모양은 보조 국사의 가사장삼을 참고했다. 그때의 일을 묘엄 스님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들이 총림을 하려면 가사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런 광목 40통을 샀지요. 그걸 양잿물에 적셔서 뙤약볕에 말려서 바래가지고 제일 처음 노랑물, 그 다음에는 빨강물, 그 다음에는 파랑물을 들였어요. 그런 뒤에도 괴색을 내려고 가마솥에다 식초와 소금을 넣고 몇 번을 삶았다가 꺼내 주무르곤 했지요. 그런데 그때 성철 스님께서 비구니는 비구 옷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율장을 펴놓고 부처님께서 ‘비구니는 육친 관계가 아니거든 비구를 시봉해 주지 마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나하나가 정법인데, 그걸 모르고 비난했으니 그냥 웃을 수밖에요.”

실제로 우봉은 봉암사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봉암사 결사에 동조해 새로 방부를 들이는 스님도 있었다. 성철의 평생 도반이었던 향곡도 뒤늦게 방부를 들인 스님이었다. 그때 향곡은 속인 행색을 하고 있었다. 묘엄 스님의 증언은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월내 큰스님이 오신다고 해서 점촌역에 나가보니까 복장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중절모자 쓰신 영감님 같더라고요. 옷도 속인 같이 입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점촌역 신도 집으로 가셔서 장삼을 보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삼도 어떤 보살이 만들었는지 주름치마처럼 주름을 12개를 잡아가지고 애들 원피스처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와 묘희는 막 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향곡도 봉암사로 와서야 여법한 가사장삼을 입었다. 물론 행색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구도를 향한 의지도 달라졌다. 성철이 향곡의 구도의지에 불을 붙였다.

“죽을 사람을 다 죽이면 비로소 산 사람을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을 다 살리면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본다 하니 그 뜻이 어떠한가(殺盡死人 方見活人 活盡死人 方見死人 其意如何).”

그러나 몸집이 우람한 향곡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에 36세의 동갑내기인 성철은 더욱 다그쳤다.

“지금까지 니가 한 공부는 참공부가 아닌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화두 받거라. 내가 니 줄라고 써둔기다. 니는 대중 규율에 얽매이지 말그라. 니한테는 선방 같은 거 필요 없다.”

향곡은 성철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스스럼없이 믿는 도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향곡은 또 다른 화두를 들고 죽기 살기로 용맹 정진했다. 대중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매진했다. 향곡은 대중의 양해를 받아 선방에 들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앉아서 정진했다. 어떤 날은 얼음이 언 개울가에서, 또 어떤 날은 양지 바른 바위에 앉아 잠을 자지 않은 채 좌선 삼매에 빠졌다.

마침내 향곡은 봉암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두를 타파했다. 스승 운봉에게 이미 견처를 인가받고 전법게를 받았지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의지로 확철대오했다. 향곡은 긴 오도송을 읊조렸다.

(전략)
봉암사의 한 번 웃음 천고의 기쁨이요
희양산 굽이굽이 만겁토록 한가롭네
내년에도 또 있겠지 수레같이 둥근 달
금풍이 부는 곳에 학의 울음 새롭구나.
曦陽一笑千古喜

“부처님 법답게 해야 승려 위의와 자존 되찾는다”

성철 스님 봉암사 결사하며 산신각 없애는 등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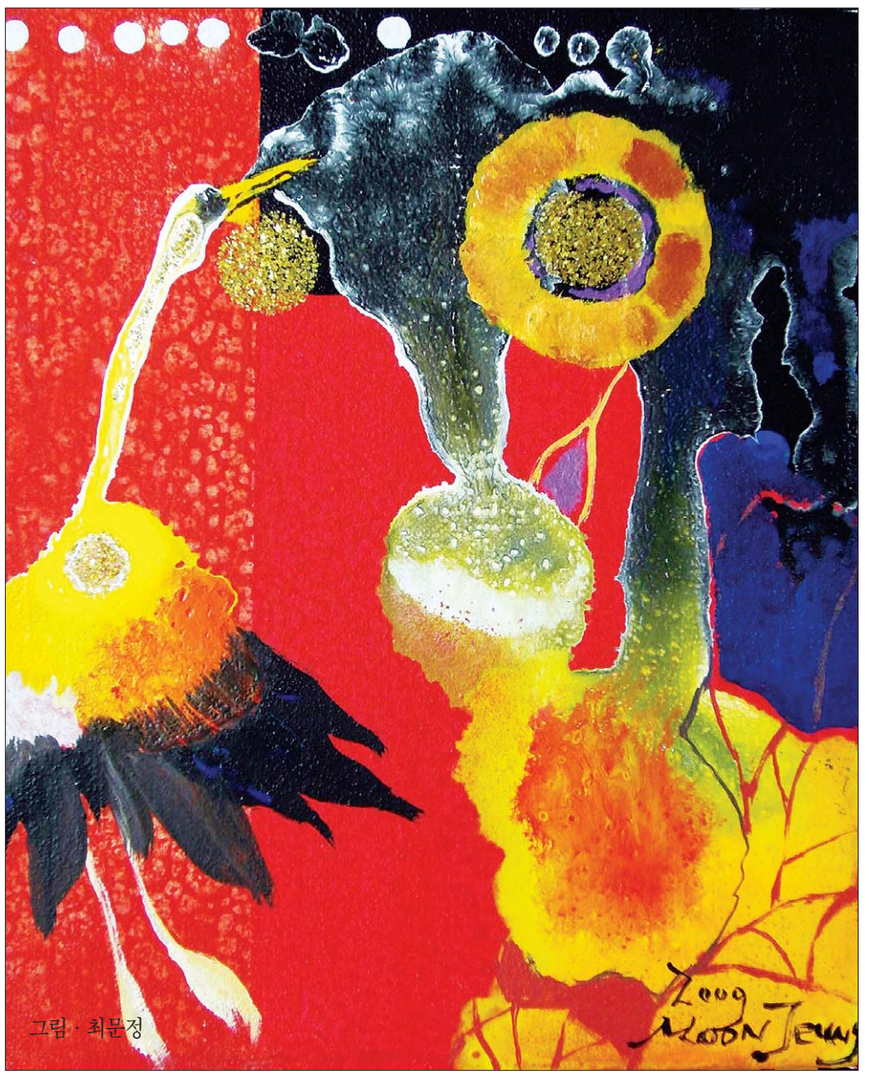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대중들이 사용하던 바루도 바꾸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바루나 와바루(흙바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목바루를 모두 모아 깨뜨려서 태워버렸다. 또한 예전에는 외출할 때만 가사장삼을 입었는데, 봉암사에서는 절 안에서도 가사장삼을 입도록 했다. 다만 울력할 때는 가사장삼 대신 당나라 측천무후가 선종스님들에게만 허락한 오조 괘락을 입게 했다.

두루마기를 승복 대신 입고 다니던 당시 스님들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외출은 가능한 한 두 사람이 함께 다니게 했고, 반드시 육환장을 짚고 삿갓을 쓰게 했다. 그리고 신도가 절로 스님을 찾아오면 반드시 삼배를 올리게 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시대의 분위기는 일제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남아 스님들을 얕보곤 했는데, 봉암사 대중들은 부처님 법답게 바꿔야만 승려의 위의와 자존을 되찾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절 안에 있던 산신각과 칠성각도 부수어 철거했다. 부처님 법에 없는 전각들이기 때문이었다. 훗날 혜암 스님도 봉암사 결사 당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봉암사 결사를 하면서 바루와 옷을 바꾸고, 능엄주를 하고, 절에서 산신각과 칠성각을 없애고, 보살계를 신설해서 신도들이 스님에게 삼배하도록 시키니까 봉암사 산중에는 외도들이 산다고 험담하는 신도들이 많았어요. 어떤 스님은 있지도 않은 법을 자기 식대로 만들어서 귀찮게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배라는 것이 그때부터 성행했어요. 알고 보면 큰스님들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

鳳岩數谷萬劫閑
來年更有輪月
金風吹處鶴唳新

향곡의 오도는 봉암사 대중들에게 조사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혜암도 자신이 직접 옆에서 본 사실이므로 정진의 힘을 얻었다. 화두를 들고 있으면 분명코 어느 땐가는 관문을 돌파하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그런데 봉암사 대중들은 참선정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양식이 늘 부족했다. 산자락에 절 소유의 논밭이 있지만 잡곡이나 조금 수확할 뿐이었다. 대중들이 가끔 탁발을 나가기도 하지만 군에서 나오는 배급쌀을 타기 위해 가은면까지 지게를 지고 걸어 내려간 적도 있었다. 지게울력은 신참 수좌들의 몫이었다. 날마다 땔나무를 두 짐씩 해오던 혜암은 공부만 했으면 하고 은근히 아쉬워했다. 청담이나 향곡이 대중의 양해를 받은 뒤 오로지 참선만 해 이루어낸 큰 성취를 지근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혜암은 참선공부만 하기 위해 성철을 찾았다.

“스님, 봉암사를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갈라꼬. 그라노.”

“김룡사 금선대로 가겠습니다.”

“그래, 금선대에서 확실하게 공부해 보그래이. 내가 선방에서 한 말에 걸림이 없을 만큼 잘해야된데이.”

“출격대장부가 되라는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혜암은 성철의 허락을 받고 봉암사를 떠났다. 금선대는 김룡사에서 잰걸음으로 30여 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산 정상에 있는 암자였다. 혜암은 봉암사에서 익힌 가풍을 지키면서 기둥에 묵언(默言)이란 패를 달았다.

누가 금선대에 오르면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피해버렸다. 오직 무자 화두에만 매달렸다. 그러다가도 문득 성철이 봉암사 선방에서 한 말을 떠올렸다.

‘예전에 한 조실스님이 조실방에 있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늘 조실방 앞에서 지키며 들어가려는 뭇사람들을 모두 물어 죽였다. 부처가 와도 물어 죽이고 마구니가 와도 물어 죽였다. 어떻게 하면 무서운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물리지 않고 들어가는 그가 바로 출격대장부(出格大丈夫)인 것이다.’

산자락에 노란 원추리 꽃이 군락으로 핀 봄날이었다. 혜암은 포행을 하면서 문득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조실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경계를 체험했다. 부처와 마구니를 죽이는 그 사자를 물리치고 조실방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출격대장부의 길을 보았다.

암자로 돌아와 좌복에 앉았을 때도 그 성성한 체험은 지속됐다. 혜암은 몰록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렸다. 방 안에 들었던 햇살이 스러지고 대신 그 자리를 어둠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암의 마음은 불이 하나 켜진 듯 환했다. 밝아진 마음은 낮과 밤의 시간을 벗어나 있었다. 혜암은 즉시 걸망을 챙겼다.

‘이것이 바로 조사의 말에 걸리지 않는 경계인 것일까.’

혜암은 바로 해인사로 달려가 인곡에게 엎드렸다.

“스님, 조사의 말씀에 걸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 묻겠다. 덕산 스님을 만난 노파가 남긴 말이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은 얻을 수 없다(三世心不可得)는데 너는 어디에 점(點)을 찍겠느냐.”

덕산 선사는 사천성 출신으로 속성은 주(周)씨였다. 어린 시절에 출가하여 율장과 경전을 두루 익힌 학승이었다. 특히 〈금강경〉에 해박하여 사람들은 그를 ‘주금강(周金剛)’이라고 불렀다. 덕산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선종의 본거지인 남방으로 내려갔다. 바랑에 청룡법사가 저술한 〈금강경청룡소초〉을 넣고 호남성 예양(현 예현)에 다다랐다. 마침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팠으므로 떡집을 찾았다.

덕산이 떡집에서 노파에게 말했다.

“떡 한 접시만 주시오.”

“스님, 바랑에 든 것이 무엇이오.”

노파가 덕산의 바랑에 든 물건을 궁금해 했다. 덕

> “사자가 조실방 지키며 부처든 마구니든 죽였어 물리지 않고 들어가는 그가 ‘출격대장부’야”

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연구한 〈금강경청룡소초(金剛經靑龍疏?)〉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덕산에게 떡을 파는 조건을 걸었다.

“스님, 〈금강경〉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대답하시면 떡을 그냥 드리고, 못하시면 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좋소. 말해 보시오.”

“〈금강경〉에는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점심으로 떡을 공짜로 먹겠구나 하고 흥분했던 덕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떡집을 물러서고 말았다.

“자, 너는 노파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혜암은 덕산이 삼세의 시간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뛰어넘고자 대답했다.

“저는 무조건 떡을 먹겠습니다.”

“오매일여(寤寐一如)는 되느냐.”

오매일여란 자나 깨나 화두가 성성한 경지를 말했다. 혜암은 솔직하게 고백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더 용맹 정진하거라.”

혜암은 다시 봉암사로 갔다. 봉암사 선방은 여전히 치열했다. 장군죽비를 든 성철의 고함소리도 카랑카랑했다. 성철은 꾸벅꾸벅 조는 수좌에게 세숫대야 물을 붓는가 하면 ‘밥값 내놓으라!’며 멱살잡이를 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3시 ~ 29일(음 6.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껴 내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혜암 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불서광장



슬픈 나라 슬픈 이야기|우봉규 지음|본북 펴냄|1만원

2008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보여준 '다양한 실망'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 책은 바로 그 실망들의 실체를 이야기 하며 실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추구하는 너구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글 속의 너구리가 누구인지 오소리가 무엇인지 우화된 아이콘들을 챙겨 읽다보면 웃지도 울지도 못할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는 '한숨'을 쉬게 된다. 그러나 슬픈 나라에도 기쁨을 갈구하는 염원은 있다.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재|정천구 지음|작가세계 펴냄|1만2000원

"마음에 그려 넣지 말고 상을 짓지 말라. 궁리 끝에는 악심밖에 나올 것이 없다." 저자가 백성욱 박사에게 들은 법문이다. <금강경> 독송 운동을 이끌었던 백성욱 박사는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 동국대 총장 등 사회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다. 저자는 백성욱 박사에게서 받은 크고 진중한 감화를 전해준다. 이야기들은 <금강경> 독송이 왜 중요하고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지 비밀스런 결말을 보여준다.



보살이야기|선일 스님 지음|더북스 펴냄|9000원

'알고 서원하면 더 밝은 곳으로 인도 하시는 스물 한 분의 보살 이야기' 책의 제목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불자들이 알고 있는 보살은 관음 지장 문수 보현 등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보살은 21분이나 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살이 '몇 명이다'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겠지만,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보살 21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한 책은 그간 없었다. 보살의 의미에서 우리나라 유명 '보살님 도량'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성전 스님 지음|마음의 숲 펴냄|9800원

'미소 스님' '라디오 스타 스님' 등의 별칭을 얻고 맛깔스럽고 깊은 사색을 유도하는 짧은 글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전스님의 에세이다. 역시 글은 짧고 의미는 깊다. 삼천년이란 의미에 사람의 만남이 갖는 희귀성을 녹였다. 오늘 만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인과의 질서는 함부로 사는 사람들에게 뜨끔한 충고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며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성스러운 이야기들이 봄나물 같이 입맛을 돋운다.



어린이를 위한 정직|우봉규 글 · 이윤선 그림|위즈덤하우스 펴냄|9000원

어린이 자기계발 동화 시리즈다. 정직하게 살자는 다짐은 아이들 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만 정직을 강요한다. 아이들은 그대로 정직인데 말이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애써서 만들어지는 정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정직한 감동을 길어 올린다. 주인공 선우의 눈에 비치는 것들, 일상에서 부닥치는 시건들 어느것 하나 정직하지 않은 것이 없다.



티끌세상의 소리|청란 지음|이해운 옮김|에버리치홀딩스 펴냄|1만3000원

저자는 중국의 극작가이자 영화 제작자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육신의 유한성과 영혼의 무한성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해 활발한 생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가 10년 동안 체험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산문으로 썼다. '제3회 방심문학상'을 수상해 더 유명세를 얻게 됐다. 집착 고통 사랑 등을 주제로 한 그의 글은 철저한 체험과 무한한 관조에서 나온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목탁치고 염불하는데도 '道'가 있다

조계종어산장 동주 스님 '승가의범' 펴내… 78년 만에 불교의식 집대성

의식(儀式)이 없는 종교가 가능할까? 불교는 형상과 형식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는 종교라지만 알고 보면 의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다.

현대 한국불교에서도 의식은 절대적이다. 의식을 통해 가르침과 신행이 전승되어 왔으므로 교리가 피라면 의식은 뼈라고 말할 만하다. 조석예불에서 각종 재일불공은 물론 관혼상제와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식은 다양하고 동작하나에서 염불 한 구절까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보기엔 일상적인 것 같지만, 목탁치고 염불하는데도 '도(道)'가 있는 것이다. 의식은 종교적 상징의 총체다.

그러나 불교 의식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첨삭되기도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의식이 전승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은 직접적인 전수 곧 도제식 교육에 의한 세습이다. 스승 앞에서 구음을 배우고 목탁이나 종 혹은 징을 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과거 불교의식은 도제식 교육에 의한 전승이 대부분이었다.

193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범>이 출현했다. 의식 집전이 절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경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각기 차이가 많아 의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발원에서 나온 것이 <석문의범>이다. 이 책은 그동안 불교의식의 가장 튼튼한 텍스트로 자리를 지켜 왔다. 그러나 내용상의 허점도 적지 않고, 책만으로 의식을 배우고 의미를 익히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게 반세기가 넘도록 받아 온 지적이었다.





그로부터 78년이 지나 <승가의범>이 나왔다. <석문의범>의 허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온 대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의식의 텍스트가 출현한 것이다. 조계종의 초대 어산장인 동주 스님(사진)이 17년간의 공력을 들여 완성한 의미 있는 불사다.

<승가의범>은 동주 스님 혼자의 의견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관계자들이 수년 간 토론을 거듭하며 완성했다. 송암 벽응 스님 등 어산의 권위자들과 월운 우룡 고산 종진 도원 스님 등 대강백들이 부문별로 감수를 했다. 운문사 상주 영덕 스님은 7년 동안 교정쇄를 붙들고 '정진'했다.

"글자 하나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원고를 만들고 토론하고 다시 교정을 하느라 17년의 세월이 하루 같이 흘러가 버렸다"는 동주 스님은 "여러 권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공통분모를 가려내고 다시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원고를 확정하는 동안 우리 불교의 의식이 이토록 체계 없이 전해져 왔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일반 의식을 총망라한 <승가의범>은 의식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았다.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른 경우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초파일 봉축 법요식에서 행하는 '관불의식'과 불상을 소제하기에 앞서 행하는 '불상소제의식'은 각종 의식을 참고하여 동주 스님이 창안한 것이다.

의식의 도제식 교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승가의범>은 흐트러진 의식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문의범>과 그 이전의 <작법귀감> <일용작법>등 다양한 저본들을 우리시대에 맞추어 편찬 한 예는 없기 때문이다. 한문의식에서 한글의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승가의범>이 출현한 것은, 한문 원본을 바르게 밝혀야 한글화 작업도 제대로 된다는 면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의식도 지극한 수행"이라는 동주 스님은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계행 △경문을 외면서 그 뜻을 관하는 정진(誦文觀義) △사성(四聲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제대로 익힌 송주 △수행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사 펴냄|6만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설레는 마음으로 화두 챙기되 고요히 쉬어라"



쉬고, 쉬고 또 쉬고
무여 스님 지음
새로운사람들 펴냄|1만3000원

"여유로울 때 자유로워진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듯이 한가한 마음 속에는 대 자유인이 되는 선(禪)의 도리가 내포돼 있다. 본래 선 수행은 '망상과 분별심을 쉬는[休]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 조사와 육조혜능 스님의 가르침 중에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쉬어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屛息諸緣 一念不生]"고 한 가르침이 그것이다. 근대 중국 고승 허운(1840~1959) 대사는 '쉼이 곧 깨달음[歇卽菩提]'이라고까지 말했듯이, '쉼이 곧 깨달음의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봉화 축서사 문수선원 조실 무여 스님이 펴낸 간화선 지침서 <쉬고, 쉬고 또 쉬고>는 비우고 쉬는 방하착(放下着)의 이치를 통해 분주한 현대인들을 대도의 길로 인도한다. 스님은 '쉼'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첫번째 쉬는 일은 선(禪)에 들어가기 전, 생각을 쉬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 쉬는 일은 화두에 진정한 의정을 일으켜서 온갖 번뇌 망상을 쉬는 일입니다. 그렇게 쉬고 쉬면 참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무여 스님은 참선의 목적은 깨달음이지만 선(禪)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고요히 깨어있는 집중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강조한다. 참선은 내 마음은 물론 가정과 직장생활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마음공부라는 것.

무여 스님은 이 책에서 화두의 의미와 공부법, 붓다의 호흡법 수행을 활용하는 법과 화두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극복하는 법, 참선수행의 부수적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선수행 과정에서 가질만한 의문을 두루 짚어주고 쉽고도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 장점이다. 참선 입문자에서부터 구참 수행자까지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간화선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축서사=(054)672-7579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4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5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오늘이 전부다	현진	클리어마인드
7	행복 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8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9	행복한 출근길	법륜	정토
10	인과경	현담	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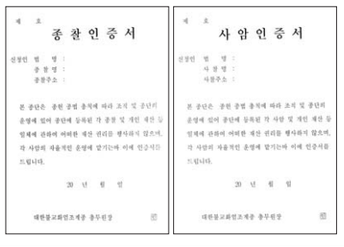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02)953-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을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보인 선문염송 13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 2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쪼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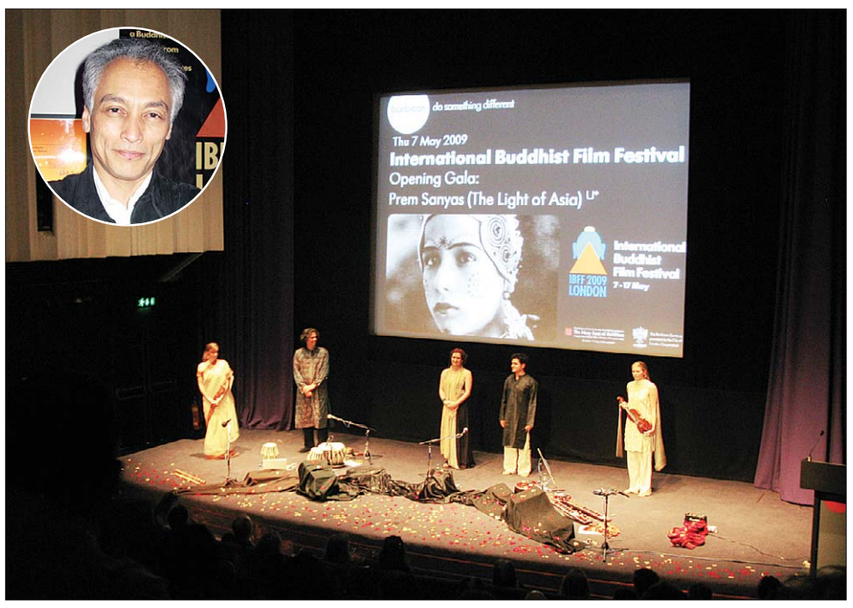
'불교' 영상으로 서양과 소통하다

국제불교영화제(IBFF) 참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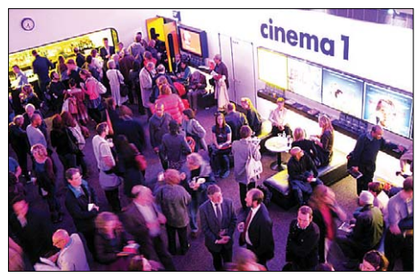
기독교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오늘은 전체 인구의 7.5%만이 기독교인일 뿐이다. 영주하며 시민권을 지닌 인디언의 시크교와 힌두 그리고 무슬림 신앙이 실제 영국 종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의 다양한 얼굴(The many face of buddhism)' 을 주제로 영국 런던의 경제 문화 중심지에서 국제불교영화제(IBFF,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가 열렸다. 5월 7일 개막해 17일까지 총 11일간 씨티오브런던(city of london) 지구 바비칸센터(Barbican Centre)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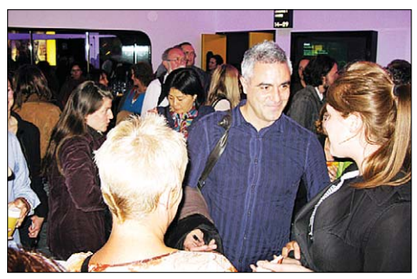
18개국 총 46편의 영화가 영국 문화의 예술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에서 펼쳐졌다는 것은 유럽의 문화와 종교의 주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 27편의 영국 영화가 이번 영화제에 참여했으며 한국, 인도, 티베트, 몽고, 일본,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부탄,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아르헨티나 출신의 감독과 그들의 작품들이 불교의 예술적 표현에 관한 세 차례 포럼과 함께했다. 불전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극영화를 비롯해 코미디, 다큐멘터리, 스릴러 등 장르의 벽을 허물고 제작된 불교영상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폭넓게 수용됐다. 영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국제불교영화제에는 5000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하는 등 유럽 문화를 선도하는 런던을 흥분케 했다. 영화제를 주관한 何鴻毅家族基金(THE ROBERT H. N. HO FAMILY FOUNDATION) 책임자 로버트(Mr ROBERT H. N. HO)와 영화제 총감독 카즈오마이다는 개막식에 앞선 정찬장에서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춘 영상과 조형을 중심으로 불교문화 예술 콘텐츠를 선별했다"면서 특별히 "한국 불교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김수자의 설치미술 '연화(Lotus: Zone of Zero, 2008)' 와 영화 2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Beyond the mountain,1991)' '마음의 고향(Hometown of mind, 1949)' 을 소개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런던국제불교영화제 기간 동안 세계 최대 장식미술 전문박물관인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V&A Museum)에서는 불교미술과 관련한 특별전이 열려 불교문화행사를 더욱 풍성히 했다.



개막작 '아시아의 등불' 상영과 라이브 공연이 함께 열렸다. 원안은 영화제 총감독 가즈오마이다. 가즈오마이다는 2003년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시작으로 국제불교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영화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영국인들.


영화 'Un Buda'의 디에고라페카스 감독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전과 디지털의 자유로운 교감

'기존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국은 몇 백년 간 이어 온 전통을 고수하는 반면 새로움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호의적이다. 이것이 현재 영국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불교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과거 학문 중심으로 불교를 탐미해온 영국에서 불교영화는 신선한 문화 테마로 자극된 것이다. 개막작으로 상영한 '아시아의 등불(Prem Sanyas, 1925)' 은 독일과 인도에서 제작한 무성영화로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과 붓다가 되는 과정을 주제로 한다. 인도 전통 악기 시타르, 타블라와 클래식의 바이올린, 플루트가 영상과 어우러져 라이브로 장엄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영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영국의 젊은이(Londener)들이 고민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감이라는 화두를 대변하듯 폐막작으로 상영한 아르헨티나 디에고라페카스 감독의 영화 'Un Buda(A Buddha)' 역시 매진 사례를 기록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Dirty War(더러운 전쟁)' 를 배경으로 부모를 잃은 토마스와 라파엘 두 형제의 성장과 선불교를 주제로 다룬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는 코르도바 깊은 산중에 자리한 일본불교 명상센터에서 'DOJO ZEN' 과 만나 영적 성장을 이뤄간다. 형인 라파엘은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불교의 인연을 확인하면서 코스모스와 같은 인드라망의 경계를 경험한다.

#내면으로의 여행(Mind the Gap)

한국불교에서처럼 영국에도 이미 그들만의 불교가 있다. 한국의 대승불교 개념과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내면에 고착된 흔들림 없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 때문이다. 그 바탕 위에서 아시아불교는 이들에게 문화의 다양한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유럽의 정신세계에 맞춰 통섭된 '맞춤불교' 는 생활불교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도가 아닌 회원 개념으로 삶 자체가 아닌 삶의 신념원리로 작용된다. 불교적인, 불교에 의한 삶이란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깨달음의 성취를 향한 수행이기보다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영화제에 참여한 관객은 불교신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다수 관객은 연령 폭이 넓고 직업 또한 다양하다.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인디언으로 일본계 회사 노무라에서 근무하는 아띠(Aaarti samani, Nomura, 33)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5월 30일 법회에 참석해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달라이 라마의 저서 <The Universe in a Single Atom>(2005)을 읽고 있다.

#한국 불교영화의 미래

런던국제불교영화제에서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The Dhamma Brothers(미국, 2007)' 는 2002년 5월 미국 알라바마교도소의 중범죄자들에게 불법과 위빠사나를 접목한 교화 활동 이후 이들의 심성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를 다룬 실험영화다. 명상프로그램으로 4시간 동안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한 이들은 그들의 범죄를 참회하게 되고 자신들에게도 순수한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확인해 간다. 감독 제니 필립스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불교에 의한 변화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웠던 고충을 토로하면서 "제작 기간 동안 재소자들의 호응과 참여가 증가하고 이들에게 붓다의 명상이 희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uddha's Lost Children(네덜란드 · 태국, 2006)' 은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 마약의 길로 통하는 곳에 위치한 작은 절 이야기다. 타이복싱(무에타이) 선수 출신 승려 끄르바(KhruBha)는 아이들이 출가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삶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가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마리 어린 말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100km의 여정동안 동승들은 말을 돌보며 아라한으로 성장하는 거울로 삼는다.

한국불교영화로 상영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1991)' 는 비구승 침해(최진영 분)와 비구니 묘연(김금용 분)을 주연으로 <법구경> '불타품' 을 주제로 한 고은 원작의 불교영화다. 수행승에게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번뇌를 심도 있게 다루며 1990년대 직지사, 월정사 등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촬영됐다. '마음의 고향(1949)' 은 한국전쟁 이전에 제작된 불교영화로 한국영상자료원 제공으로 국제불교영화제에서 수차례 상영된 한국불교영화다. 일제 해방 이후 근대 승가 문화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승 도성의 알음알이를 다루면서 해방 이후 조선영화의 최고봉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귀중한 자료다.

한국불교영화는 완성도와 제작 편수는 물론이고 <심우도>를 주제로 한 듯 편향된 마무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상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작이 기피되고 자급자족 형태의 얕고 좁은 관념을 탈바꿈하지 않는 한 한국 불교영화에 미래는 없다. 불법이 담긴 매체도 불전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종이에 기록된 불법은 당시 최고의 매체였기 때문이다. 영상매체야말로 현 시대에 수승한 불법의 전달매체임을 런던에서 개최된 불교국제영화제는 증명하고 있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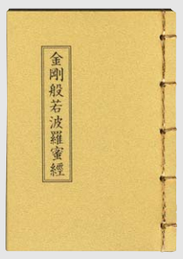
18개국 46편 불교영화 영국 대표 문화공간서 상영 '호평'

유럽정신으로 통섭된 '맞춤불교' 참된 삶 살기 위한 도구



왼쪽부터 한국영화 '마음의 고향' 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중음(中陰)의 세계를 주제로한 조니 뎁 주연의 '데드맨'.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 식 제 공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량식 소장사 영가천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정가60,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8 조카의 더덕 2

세대 초월 더덕사랑 '혼연일치'의 맛

조카 미진이가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은 시골에서 밥집을 하고 있는 언니의 손맛을 물려받았기 때문일 게다. 게다가 형부의 미식가적인 입맛과 취향을 닮았으니,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손에 자랐어도 그러한 잠재적 기질을 어찌할 수는 없을 테다.

"아빠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먹어본 것도 많잖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빠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요술을 부리듯 만들어 냈거든. 한번은 아빠가 어죽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즉석에서 물고기를 삶아 으깨가지고 죽을 해줬어. 아빠가 말만 하면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도 엄마가 척척 잘해서 너무 신기했어."

타고난 입맛과 타고난 솜씨를 지닌 부모덕에, 조카의 기억 속에는 음식과 관련된 추억이 많은 모양이다. 하긴 그와 관련해 기억나는 게 내게도 있다. 형부는 언니의 손맛을 너무 좋아해 탈일 정도인데, 밤에 야참으로 라면을 먹더라도 반드시 언니가 끓여주는 라면을 고집한다. 형부와는 달리 초저녁잠이 많은 언니는 오만 짜증과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결국 라면을 끓여주곤 한다.

이런저런 기억을 나누는 사이, 형부의 넓적한 엄지손톱까지 쏙 빼닮은 조카의 손에 방망이질 되어진 더덕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사골국물을 우리던 노모는 "팡팡 두들겨야지. 이렇게 딱딱한 건 더 두들겨야해"라며 조카 곁에 다가와 더덕의 상태를 살펴본다.

"할머니는 더덕을 물에 담갔다가 양념하나? 지난번에 나는 그냥 소금으로 빡빡 닦아 무쳐 먹었는데…."

"겨울 더덕은 달아서 그냥 해도 되는데, 여름에 싹 날 때 캔 더덕은 맛이 쓰니까 물에 우려야지. 통째로 한나절 물에 담근 다음에 건져 방망이로 이렇게 납작하게 두들겨서 갖은 양념해서 버무렸다 프라이팬에 굽는 거야."

요리에 익숙한 조카는 노모의 설명을 금세 알아듣고는 "구울 땐 살짝만 구워야 되죠?"라며 확인형 추임새까지 넣는다. 반면 요리를 하는 것에는 무심하면서도 그 비법에는 관심이 많은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 무엇보다 '갖은 양념'이라는 게 그러하다.

"왜 기본양념들 있잖아. 다진 마늘이랑 다진 파 좀 넣고, 고춧가루에 진간장이랑 소금이랑 참기름 좀 치고, 깨소금, 설탕, 물엿, 후춧가루 좀 넣고 섞는 거지. 그런데 어째 갖은 양념을 모르냐? 하긴 네 둘째 올케는 처음 시집와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책에 갖은 양념을 넣으라고 쓰여 있으니까 슈퍼에 가서 갖은 양념을 달라고 했다더라."

전형적인 커리어우먼에 선머슴아 같은 올케의 성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요리에 문외한인 내가 들어도 기상천외한 실수담인지라 웃음을 쏟아내니, 노모는 오십보 백보라는 표정이다.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프라이팬에 구우면 더덕구이가 완성된다.

"그런데 할머니, 깨소금이란 게 깨만 들어가? 아니면 소금도 같이 들어가서 깨소금인 거야?"

응당 깨를 깨소금이라고 하는 줄 알았기에 깨소금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조카의 뜬금없는 질문에 나 역시 궁금증이 일었다.

"아고 참말로, 깨는 그냥 깨야. 깨에 소금을 같이 넣고 빻으면 깨소금인거고."

"그렇구나. 하긴 깨면 그냥 깨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깨 뒤에 소금을 붙일까 궁금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더덕의 하얀 속살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하고도 깊은 향이 온 집안에 진동을 한다. 어린 손녀딸의 요리에 대한 발심 덕에, 홀로 요리를 준비하던 노모의 부엌에도 모처럼 더덕의 향만큼이나 찐득한 기운이 감돈다. 조카의 여린 손끝에서 넙대대한 자태를 갖춘 더덕들이 어느덧 "오늘은 사람 사는 집 같다"며 흥이 난 노모의 행복한 마음과 '갖은 양념' 속에 먹음직스럽게 물들여졌다.

"원래는 간이 좀 배인 다음에 구워야 제 맛인데, 오늘은 일찍 개시해볼까. 네 말대로 이모가 여적 이 좋은 더덕 맛도 몰랐으니, 진짜 맛있는 게 뭔지 맛좀 보여주자고."

더덕이 뭐길래, 팔순의 노모와 이팔청춘의 조카가 십 수 년의 세대차도 초월해 이심전심이 되어 버린 건지. 뜨끈하게 달궈진 팬 위에서 더덕이 노릇하게 익어갈 즈음, 그 마음이 더욱 혼연일치가 돼버린 두 여인의 왕따 속에서 새삼 '후진' 내 입맛을 탓하여본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4 존중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불평불만 상대에게 '존중·이해·관심' 보여라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주어라

상대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투정을 부리기 전에 내가 원하고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라. 자상한 표현을 원하는지, 자유로운 권리를 원하는지, 좀 더 따뜻한 애정을 원하는지 일단 나의 욕구와 바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면 무조건 상대에게 그런 행동과 표현이 나오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말하고 표현하기 이전에 상대는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랑받고 싶다고 징징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그녀에게 내가 먼저 행동하라. 자상한 표현을 원한다면 그에게 자상한 표현을 충분히 해주어라. 보고 듣고 느낀 자 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해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학습효과이자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이들이 커서도 사랑 줄 줄도 모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늘상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상사가 싫어서 뚱한 표정과 재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상대하기보다 오히려 나이스하고 나긋한 말투로 그에게 대답해보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리 차돌맹이 같은 상사라 해도 나긋함과 부드러움 앞에는 변하게 돼 있다.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존중해라

실제로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흔히 나와 의견이 다른 자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반박하거나 거의 이 세 유형 중에 하나로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내 감정도 차분히 컨트롤 하고 내 의견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서로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존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얼굴 가득 불만을 담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료와 마주쳤다고 하자.

"정말 도대체 일은 왜 이리 많은 거야? 왜 모든 일은 내가 혼자 다해야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원…."

순간 이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이 스쳐지나가고 어떤 반응을 할까?

-첫 번째 반응: 너만 혼자 일이 많은 거 아니거든? 지금 도대체 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여간 입만 살아서는.

-두 번째 반응: 네가 힘든 건 아는데 나도 많이 힘들다. 너만 그렇게 혼자 열심인척 하지 마라.

-세 번째 반응: 일이 너무 많은가 보구나. 좀 쉬도록 하렴.

-네 번째 반응: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평소에도 능력이 뛰어나니 중요한 일은 자꾸 네가 하게 되나봐.

첫 번째 반응은 상대를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들고 심지어 그런 과민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지금까지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리 자극적인 화나 모멸감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거의 없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의 이기적 반응.

세 번째 반응은 상대와 공감해주고 존중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는 하고 있다. 이정도로만 반응해도 관계에 있어 도움은 줄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방을 이끌기엔 부족하다.

네 번째 반응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이해 그리고 관심을 쏟는 반응'이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장점까지 칭찬함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도 풀어주고, 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그로인해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고로움을 함께 덜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 (02)576-7575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8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초 중 하나

진시황제는 늙지 않기 위해 동남동녀와 값진 보물을 가득 실은 배를 보내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았다는데 바로 그 불로장생초가 존재하던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한반도라 추정된다.

불로장생의 영약이 있다는 이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는 불로장생이 아니라 암과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인은 평균수명이 늘었지만 성인들의 노화증상으로 인한 병들은 나아지지 않고 급기야는 어린이들까지 성인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

호흡을 통한 건강 개선사업을 하는 한 지인이 맥파측정기로 꽤나 많은 사람들을 측정한 가운데 매우 놀란 사실이 있다고 한다. 초등학생들을 측정한 결과 혈관 나이가 40세 이하로 나온 경우를 못 봤다는 것이다.

성인병, 즉 노화를 진행시켜온 우리의 섭생과 생활환경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절대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성인에 비해서 그 효과의 시기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며 대부분의 경우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된다. 우리는 큰 결심 아래 밥은 현미로, 반찬과 부식들을 MSG나 합성조미료가 첨가되지 않게 하고 쌀 · 소금 · 설탕 · 밀가루 · 조미료 등 하얀색의 오백(五白)식품들을 피하려하지만 결국 골치 아파져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현재의 식생활을 급격히 바꾸려 하지 말고 매끼를 정확한 때에 챙겨 먹는 것부터 하고 이후 보조적으로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함께 먹도록 권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건강식품을 나름 분류하기를 주식(主食)의 보조적 식품과 특별한 기능부여 식품으로 나누는데 천년초(太蔘)는 특별한 기능부여 식품으로 선택하면 탁월하다 본다. 천년초는 그것이 가진 효능과 효과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플라노보이드 등을 함유한 이름처럼 광범위한 적응의 삼(蔘)인 것이다.

감기를 환절기마다 그리고 제철에도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감기를 앓지 않게 됐다. 가족으로 같이 지낸 사람 아니면 그 상황이 놀랍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본인은 더더욱 어떻겠는가? 변비로 3일도 좋고 1주일도 좋고 화장실을 못가고 묵직하고 기분 나쁜 아랫배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매일 1~2번 화장실에서 시원한 배출로 느끼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동을 모를 것이다. 저혈압과 고혈압을 정상수치화 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항상성 유지능력을 지닌 천년초다.

만약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내 조상들이 삼(蔘)이라 이름을 붙여준 너석들인 불로장생초며 그 중 천년초는 광범위한 효능을 지닌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매우 고마운 너석이라 말하고 싶다. (02)780-0098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우.402-202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연락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옆 (아자빌딩 1505호)

결혼정보 회원모집

초혼 재혼 (불자 자녀)

불자 자녀 男女 서로가 정보를 몰라서 혼사를 못 이루는 가정에 해성자비회에서는 신뢰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나아가서는 사찰 스님들의 자문도 받고 다각적으로 신상 파악하여 본인 소개서 희망사항들을 여러모로 탐색하여 신빙성이 확실할 때 男女의 만남을 주선하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방법
1. 본인소개서(상세히 기록)
2. 직장 확인서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자택 유, 무
5. 사진 명함판
6. 다니는 사찰명

※ 통신비로 회비 3만원 동봉

· 인터넷 전화 : 070-8192-1661
· e-메일 : kimsangrok1661@hanmail.net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종교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청암(靑巖)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5점이상 50% 할인)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불교의식.영가천도
상담. 49재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복고춤
010-8677-378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전통 범패 배우면서 부전 하실 분 모십니다
(45세미만 / 마산)
016-428-6665

비구니 사찰 공양주 모십니다
▷ 경북 하양. 향림사
(40~50대, 숙식 가능한 분)
053)854-21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오래 계실 분, 강원도)
부전비구니,
비구스님모십니다
010-9219-7695

후원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산사))
054)772-4133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7574-1515

법납20년
착실한 비구입니다
기도스님 소임처
연락 주십시오
010-2068-28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710-7294
011-393-0013

보시를 기다립니다
삼보 귀의 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포교하고자 포교원을 조성하였으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지장보살님(2.3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뜻깊은 대덕스님과 불자님께서 보시를 해주시면 큰공덕으로 기도 정진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010-6577-59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7211-506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한국불교태고종 천인사
031)773-7746

60대 비구가
주석할 사암을
찾음
011-9429-578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 양평 용문)
010-7340-8765

노인행자 두분 모십니다
출가의 시기를 놓치신 남녀.
수행 실천비 月 30만원 (3개월후 부터)
오전에 절일, 오후에 농장관리,
아침저녁 예불, 하루2시간 공부.
증명사진, 가족사진, 이력서, 초본
문의 041)541-0533(寺)
아침 9시~오후 6시
(조계종 만불교 총무실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세수 70세 이상 승납
30년 이상 노스님 무보시로
10분만 모십니다
방부는 현대식으로 일인 일실입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세수 50세이상 승납 10년 이상)
경북 문경시 농암면 쌍룡사
054)541-6751

한옥 / 사찰 (寺) 건축 전문
-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일체 고(古)건축 전문 기술자, 기능인들이 완벽한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책임시공.
- 기초, 토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의 전문성 차별화된 시공 노-하우

031)581-2120 / 010-6405-2060

소생은 거창하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된 개인사업(물류유통업)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성실한 사람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서로 위하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불심이 돈독한 40대 중, 초반의 어질고 자비심 있는 보살님을 인생의 반려자로 모실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010-9733-585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15일(수) 15일간
- 대구근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출초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秘 法 강 의 (최면학은 오직 유식)
초종파! 스님들이여, 광고보고 찾아가면 별것 아니다.
"본 강의"와 因緣되어 훌륭한 선지식 되소서!!
1. 최면학, 빙의치유법, 전생요법,(참 쉽다) 천도재의식(특별비법)
2. 神病다스리는 법,(침 놓는 귀 상존절맥의작용법, 관상학, 건강마주기(성문스님), 氣치료
3. 전생업보격국법, 약손 만드는 법, 7일 速人비결법(무료) 등
강의시간 : 매월 2,4주 (월요일 10시 ~ 17시까지)
장소 : 마산 무학산하 법향사 內
※ "침" 특수활용비법! (한의학박사 특별강의)
*** 인연있는 비구, 비구니들이여 좋은인연 되소서! ***
전화 055)221-3358/010-9027-3117 의암 다보 -두손모음-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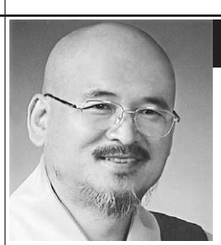
사주학 수강생 모집
"사주공부의 핵심은 음양오행과 육신이다"
초보에서 통변까지 책임지도
정통사주학 완성 저자 직강
•소수정예반 : 3명이내 또는 1:1 개인지도
종료3개월 1번출구 낙원상가 방면
김현산 역리원

정통사주학 완성 (수기본)
"사주학은 쉽게 배워서 쉽게 통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책으로 사주학 공부를 완성하세요.
•저자 : 김현산 •정가 : 25,000원
•구입처 : 김현산 역리원
011-9113-8545 / 02)741-8449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6개월 완성
형기 이기 패철 보는법 명당 잡는 법. 5/21(목)19시 개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정원 10명.
◆전용원 : 중문학박사로 청오 지창룡박사의 제자.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음
◆인터넷 동영상강의 : 주역 사주 관상 풍수 육효 수상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www.kbs.cc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전화 1688-1137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경동교회 뒤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재설치승인 · 교환알림"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話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부산 051)908-8683

빙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지난 생애에 맺어진 인연법에 의해 잠재의식(말라식, 아뢰야식)에 원한의 씨앗을 심었다가, 보복을 겪는 행위를 빙의라 한다.

-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겪는 일들
1. 지금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를 아는자는 많다. 그러나
2. 조상 누구가 무엇을 요구한다면서, 천도재를 하면 빙의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3. 이러한 말을 들은 관계자들은 순간적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 앞으로 무슨 재앙이 닥쳐온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4. 천도재란, 법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다.

- 아래와 같이 빙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5.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혜안으로 원귀들을 만난다.
6. 한 두 영가의 작용은 보통 우울증이라 하지만, 영가들의 집단체(5~6위 이상)로 빙의된 사람의 몸 속에 자리하고 있다.
7. 자리 잡고 있는 영가들의 업을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때 대단한 기도의 힘 즉, 법력이 작용한다. (한 영가당 3~4일 정도 소요됨)
8. 업이 소멸되면, 영가의 에너지가 쭈욱 빠져서 실신한 사람처럼 되며, 이러한 영가를 혜안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9. 진행자의 법력으로 "반야선"을 받아 영가를 태워서 영계로 보낸다. 〈사악취(지옥, 아귀, 축생, 수라)를 벗어나서 천상계의 28천의 권속이 된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해발 1100고지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15년간) 수행하면서 영가의 악업을 녹여주고, 제거하여 주면 반야선을 받아 영계로 보내는 수행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영가는 반드시 반야선에 의해서 영계로 가게된다)

** 바라옵나니 이 공덕 널리 퍼져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지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3동 1596-11번지 103호
서진포교원 선운 합장
문의 010-6289-1233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잡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실패하지 않는 포교!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비의 맞춤 기도법!!

대형사찰에 맞서 살아남을 포교원과 암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소승이 토굴수행 중 이인으로부터 전수받은지 수년여라. 포교입상 5년에 비전으로 남길까 했으나 포교원과 암자에서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도법을 행하면
1.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
2. 재정자립도가 확립된다.
3. 도심포교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4. 이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봄도 체험한다.(5년동안 1명실패)
5. 이 기도를 행하는 불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나쁜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참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스님들께서 무조건 '기도해봐'라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스님들께서는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적법한 절차와 법에 따르는 기도법이 있음을 알고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전에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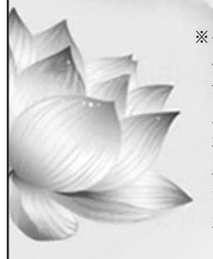
◆대상 : 스님과 포교사(별도상담)
※ 각 신행단체 및 개인불자들도 상담해 드립니다.
(후원금 : 10萬)
108일간 접수후 신청하신 수만큼 책자제작 및 전수 예정

상담시간 : 13 - 18시 접수 : 031)388-1311
후원계좌 : 농협 136-12-572481 상담자 : 혜공
방문하실 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번지(비산시장 옆)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8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5월 28일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나은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신도시
- 부지 : 200평
- 종교용지
- 즉시불사가
- 산과 아파트 촌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1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0억 급매

- 위치 : 경기이남
- 대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급양도가 : 10억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구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19평
- 부지 : 700평
- 전세 : 3억

- 위치 : 강원 철원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50평
- 부지 : 600평(문중)
- 가액 : 5억

- 위치 : 충남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34평
- 부지 : 240평
- 가액 : 1억3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대사찰 안내

- 위치 : 도심에서 가까운 절
- 총대지 : 4,000평
- 법당 : 30평(목조), 지장전 : 30평(목조),
- 삼성각 : 20평(목조)
  요사채 : 60평, 공양간 : 약 45평
- 산세수려, 사계절 계곡물 철철
- 12m 도로접, 평지
- 약 30억 불사
- 가액 : 10억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기장
- 법당 25평
- 요사채 50평
- 부지 197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부산
- 법당 30평
- 요사 50평
- 부지 20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부산양산
- 법당 30평
- 요사 50평 2동
- 부지 200평, 600평
- 가액 : 7억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강면 소재
- 부지 : 약2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3포,7포)
- 명부전 : 30평(목조,단청)
- 요사 : 70평
- 기타 : 종각,석불,석탑 등
- 가액 : 12억 5천만원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12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50평
- 기타 : 나한전,산신각,석등
- 가액 : 2억 8천만원
- 특징 : 신도로 완공시
  대구에서 10분거리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옛한옥 45평
  (마당포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6731-46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內)
- 법당 53평, 삼존불, 원불 108불
  신중탱화 104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밭 1,000평, 산 3,000평 대지 9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2.5평 요사채 60평
- 화장실 3평(외부1), 내부 2개 주차장 200평 스님 요사채 25평
- 가액 : 5억 (오셔서 보시고 가액 결정)

010-9219-769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945-77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 법당 1, 2층 합 약 45평 요사채 1, 2층 합 약 50평, 단청필, 시설 A급
- 마당까지 차량 진입 가능, 현대식. 대출가능
- 가액 : 2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6298-2588

포교당 안 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사 찰 안 내

- 법당 30평
  (극락전 단청 예쁘게 되어있음)
- 산신각 3평(단청) 용궁, 조그마한 기도처
- 벽돌집 요사채 2채, 주차장 100평, 차고 1
- 사찰까지 모든 도로 도로포장
- 가액 : 만나서 절충

011-9133-58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현재 임도 삼림욕을 관광지로 공사 중에 있는 곳
- 대지 800평 법당 25평, 요사채 3채, 방4개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최고 적합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토굴 터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 부지면적 : 전 600평 (오미자 오갈피 재배 중)
- 농가주택 건축 가능, 농사전기사용 중
- 백두대간 문복대 아래 동남향으로 뒤는 산을 의지하고 앞은 개울물이 사계절 흐르며 3m 진입로 중 500m정도 비포장도로이며 마을과 1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곳
- 가액 : 3천만원(평당 5만원)

010-8555-4480

사 찰(급)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1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사찰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낭성면 화창리 (낭성–초정사이/청주서20분)
- 면적 : 1,700평(현재–나대지)
- 특징 : 남향,포장도접,관리지역, 계곡접,경관수려.
- 기타 : 전원택지,기도원부지, 투자,재테크 가능.
- 평당 : 15만원 / 양도 : 2억5천5백

010-2529-39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 65평, 완벽한 시설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3천 3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임법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중심가
- 1층 단독주택 약40평
- 법당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 산신 용왕탱, 지장보살 후불108불,큰방2개, 화장실2개,거실,주방, 10여개 주차공간, 불사관계로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33)661-2915
011-402-1669

포교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도심속 사찰안내

부산시내 도심속 깊은 산속의 정취가 있는 암자

- 전체평수 200평, 주위 1,000평 활용가능
- 노천불, 법당20평
- 방 大 3개, 거실 1, 큰 마루1 현대식 생활환경
- 가액 : 1억 8천 500만원

011-857-3775
051)866-1138

포교당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 내 중심지 2–3층
- 각 70평씩 140평, 최고의 시설
- 보증금 1,500만원 월100만원
- 모든 시설 완벽, 답사후 결정

011-361-987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산 입구 (금정마을)
- 법당 15평, 요사채 방7개, 총 100평, 밭 30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시설금 900만원

010-9901-574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도심에서 10분거리 조용한 산속
- 법당25평, 요사채30평, 산신각3평
- 전세 천만원/월세 이십오만원 시설비 4천만원
- 즉시 법회가능

010-4554-141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 옛한옥 마당포함 45평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6731-4668

대형 포교당 안내

- 위치 : 90만 신도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200평
- 1차 : 보증금 2억, 월150만원 2차 : 전세가능. 4억 시설비 절충 가능

011-707-55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 2층 약 30평 법당1, 방1, 옥상사용가능
- 가액 : 전세 6천만원
- 월세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

010-9512-98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앞
- 4층 건물중 2층 실평수 40평
- 법당 20평, 방2개 욕실, 공양간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고려불화)
- 보증금 1,000만원 80만원
-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외 총 2,500만원

010-2665-239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 평수 약 400평, 임법당 1동
- 요사채2동 건평 총 50평
- 가액 : 9천 9백원

011-9554-56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 교통편리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아름다운 고장 경북 영양
- 입지: 田 925평은 지방도와 청정계곡이 접한 국유림내에 위치한 다목적 토지를 평당 5만원에 급 안내

주인직 011-528-22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사무소 옆
- 4층건물중 2층 42평
- 법당 25평 방2(친견실),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조성(인등, 소불)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비구니 스님 적합)
- 소임 관계로 급 안내

010-4815-7397
051)723-0328

팔공산 갓바위 자락

- 위치 : 대구 경산 경계지점
- 교통 아주 편리 4차선 대도로 옆
- 약 400평, 건평70평 2층 증축 가능 사찰로 아주 적합
- 양도가 : 6억 5천 절충

011-9571-48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 부근
- 2층 건물 약 40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37만원 시설비 차후 결정
- 역학 보시는 스님 최적지

041)866-9320
010-8805-932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포 교 당 안 내

"최고 시설! 최고 위치!"

- 위치 : 울산시 태화동 버스정류장 앞
- 평수 : 40평 (법당1,친견실, 방3칸)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6374-4446
052)248-4812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천하절경 명당터

영서북부지방 강원, 포천 경계자락인 화악산 자락에 창건 30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당터 고찰을 뜻 있는분께 양도 하고자 합니다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강원, 포천–화악산 자락)
- 교통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춘천 30분거리, 가평40분
- 사찰연혁 : 300여년
- 전체면적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 전각 : 대웅전, 명부전, 무량수전, 산신각, 용왕각, 종각
- 부대시설 : 주지접견실, 요사채2, 요사채 및 공양실3, 석등6, 석탑1, 미륵석불1, 관음석불1
- 현사찰가액 : 현 싯가 30억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매도가액 : 17억
- 참고 : 현 사찰은 어떤종단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개인등기 입니다.

017-373-5998 (주지스님 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와 양평 경계의 산사
- 부지: 임야(관리지역:1700평) 종교용지(종종명의 362평)
- 총 건축평수: 145평 대웅전. 삼성각. 종각. 종무실(1.2층건물)요사채1동 창고.옥외 화장실등.
- 양도금액 : 5억 3천 만원

도심속(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 옆
- 2층(27평): 법당(아미타3존불. 지장보살,각각5자) 원목단청불단. 후불,지장. 신중,칠성,산신탱화
- 3층(27평): 요사채 (방5,주방,화장실)
- 양도금액: 4천 5백만원 (보증금 1200만원. 월세 70만원)

017-372-896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역세권) 3층건물중 3층 45평
-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607-01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뒷쪽 입구
- 3층 건물 중 2층 32평
- 법당, 삼존불, 탱화 등 시설 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시설비 450만원

010-5618-3306
010-5650-0664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 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2,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어젯밤 다가온 무정설법을 어찌 설명할 수 있으랴”

<35> 소동파(蘇東坡) 거사

온 가족 불교 귀의… 동생 소철 거사 도전 선사 문하로
큰 영향 받은 혜변 대사 입적 후 ‘해월변공진찬’서 애도

송대에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유학을 바탕으로 해 불교를 섭수하는 풍조를 이뤄 이른바 사대부 거사불교의 전성기였다. 기라성 같은 수많은 거사들이 활약했는데, 그러한 거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사를 꼽자면, 바로 소식(蘇軾) 거사다.

소식(1036~1101) 거사는 자(子)는 자첨(子瞻)이고, ‘동파(東坡)’는 자호이다. 거사의 부친은 소순(蘇洵), 동생 소철(蘇轍)과 함께 ‘삼소(三蘇)’라고 칭해지고, 이들 모두 유명한 문장가로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한다. 거사의 부친인 소순은 진사에 합격하지 못하자 심양(潯陽)의 여산(廬山)에 가서 원통거눌(圓通居訥) 선사를 참알해 법을 배웠다. 가우(嘉祐; 1056~1063) 원년에 삼부자는 상경해 한림학사인 구양수 거사에게 소순의 글을 22편 올렸다. 이 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당시 사대부들이 다투어 읽게 됐고, 재상인 한기(韓琦)에 의해 추천으로 과거를 면제받아 비서성교서랑(秘書省校書郞)의 관직을 받았다. 그해 가을에 거사 형제는 진사에 합격했고, 다음해 예부(禮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나란히 급제했지만 모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거사의 모친 정(鄭)씨도 독실한 불자여서 임종에 앞서 모친이 평생 지녔던 물건들을 사찰에 희사했다. <거사전> 권26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거사는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공에게 아미타불상을 그리게 했고 <아미타불송(阿彌陀佛頌)>을 찬술했다고 전한다. 모친상을 마치고 수도인 개봉(開封)으로 돌아와 거사의 형제는 관리임용 특별시험인 제과(制科)에 함께 급제했다.

이렇게 소동파 거사의 모든 가족은 불교에 귀의했다. 특히 동생인 소철 거사는 균양(筠陽; 현 江西省 高安)에 유배당했을 때, 황벽도전(黃檗道全) 선사에게 귀의했고, 진정극문(眞淨克文) 선사와도 평생을 참문하는 도우(道友)였다. 소철 거사는 향성순(香城順) 화상에게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궁한 일을 녹여, 하나의 마음을 만들었으나, 이 마음마저 두지 않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렀구나(融却無窮事, 都成一片心. 此心仍不有, 從古至如今)”라는 게송을 올렸다.(<총림성사(叢林盛事)> 권하)

소동파 거사는 급제 후 구양수와 한기 등의 적극적인 후원에 따라 중용됐다. 그러나 직언을 하는 성격탓에 순탄치는 않았다. 후에 왕안석(王安石)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집권해 ‘신법(新法)’을 시행하자 그에 비판적이었던 거사는 지방근무를 자청해 항주(杭州), 밀주(密州), 서주(徐州), 호주(湖州) 등의 지방관을 역임했다.

거사가 항주의 지방관을 역임하던 시기에 많은 고승들과 교류했다. 항주는 오월(吳越) 이래로 중국불교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승대덕이 활동하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거사는 “오월에는 명승들이 많아 나와 항상 교류하던 스님이 19명에 달했다”(<동파지림(東坡志林)> 권2)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내가 오월에 있을 때, 항상 오공(五公)을 뵈었는데, 교학으로 변(辯)·진(臻)이요, 선(禪)에는 련(璉)·숭(嵩)이다”(<동파후집(東坡後集)>권16)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은 바로 해월혜변(海月慧辯)과 변재원정(辯才元淨) 대사이고, ‘진’은 남병범진(南屛梵臻), ‘련’은 대각회련(大覺懷璉) 대사를 가리키며, ‘숭’은 바로 명교설숭(明敎契嵩) 선사를 가리킨다. 그 가운데 혜변, 변재, 범진 대사는 모두 천태종의 승려이고, 회련과 설숭은 선승이다. 이러한 ‘오공’ 가운데 거사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이가 혜변 대사이다.

혜변 대사는 당시 항주의 승정(僧正)으로 “세속의 학문과 교학에 모두 정통한” 승관으로, 거사가 교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 혜변 대사의 입적 후 <해월변공진찬(海月辯公眞贊)>을 찬술하는데, 여기에서 혜변 대사를 ‘도덕과 재지(才智)를 갖춘 대사’로 표현하며 깊은 애도의 정을 나타냈다.

거사가 선학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한 계기는 바로 황주(黃州; 현 湖北省 黃岡縣)로 유배를 간 사건이다. 거사는 호주 지사(知事)로 있던 시기에 정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는 죄목으로 어사대(御史臺)에 체포돼 수도로 호송됐다. 이때 어사들의 심문과 거사의 변명을 담은 기록이 <오대시안(烏臺詩案)>에 남겨져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다행히 사형을 면한 그는 100일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황주의 단련부사(團練副使)로 좌천됐다. 사실상 유배였던 이 시기에 거사는 부인과 양잠을 하고 농사를 짓는 등 비참한 생활을 했다. 이에 스스로 ‘동파(東坡; 동쪽 언덕)’라는 호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처지를 담은 것이다. 이 시기에 거사는 유명한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



그림 · 김흥인

거사가 황주에서 5년의 유배를 끝내고 여주(汝州; 현 河南省 臨汝)의 지사로 가던 중,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서 묵게 되면서 동생과 친밀한 진정극문 선사와 임제종의 황룡혜남(黃龍慧南)의 법사인 동림상총(東林常總) 선사를 참알했다. 밤새워 상총 선사에게 ‘무정(無情)설법’을 듣고 거사는 깨달음을 얻었다. 거사는 새벽에 “개울 물소리는 장광설이요, 산 빛이 어찌 청정한 몸이 아니랴. 어젯밤 다가온 이 무량한 소식을, 어떻게 그대에게 설명할 수 있으랴(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淸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擧似人)”(<오등회원> 권17)라는 유명한 오도송을 상총 선사에게 올렸다.

이 ‘무정설법’은 이른바 ‘푸르고 푸른 대나무가 모두 법신이며, 활짝 핀 노란 꽃이 반야 아님이 없다(靑靑翠竹, 盡是法身, 鬱鬱黃華, 無非般若)’의 긍정 여부를 두고 중국불교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서 논쟁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선종에서 하택신회(荷澤神會) 선사는 “만약 푸른 대나무와 노란 꽃으로 법신, 반야와 동등하게 한다면 이는 곧 외도(外道)의 설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반경(涅槃經)>에 불성이 없는 것은 이른바 무정물이라고 밝힌 글이 있다”(<신회어록(神會語錄)>)라는 반박으로부터 <육조단경>, 나아가 대주혜해(大珠慧海)의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에서도 부정됐던 내용이다. 그런데 송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무정설법’이 승인되고 있음은 이미 불교와 선사상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종사상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에서 자세히 논할 여유는 없지만, 이 시기의 선사상에 노장(老莊)에서 제창하는 ‘도(道)의 편재(遍在)’사상이 깊이 개입돼 있음이 짐작된다.

여하튼 거사의 이 오도송은 지금도 ‘무정설법’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법연에 따라 거사는 <거사분등록>과 <거사전> 등에 상총 선사의 사법제자로서 전해진다.

거사는 또한 불인료원(佛印了元) 선사와도 깊게 교류하고 있는데, 도융(道融)의 <총림성사(叢林盛事)> 권상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거사가 불인 선사를 방문하자 선사는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어 모실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거사는 “잠시 선사의 육신을 빌려 앉겠습니다”라고 하자 선사는 “질문이 있는데, 만약 대답할 수 있으면 앉게 하겠지만, 답하지 못하면 거사의 옥대(玉帶)를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거사는 질문하라고 답했다. 선사가 “거사는 방금 전에 이 산승의 육신을 빌려 앉겠다고 했는데, 육신은 본래 빈 것[空]이요, 오음(五陰; 五蘊)도 있는 것이 아니니, 어디에 앉겠습니까?”라고 묻자 거사는 답하지 못한다. 이에 거사가 옥대를 풀어놓고 크게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자 선사는 행각할 때의 납의(納衣)를 거사에게 주었다. 이에 거사는 게송을 세 수 읊었고, 선사는 두 수의 게송으로 화답했다.

이러한 일화에서 거사와 불인 선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거사와 불인 선사의 교류는 이미 황주의 유배시기로부터 시작됐으며,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권29에서는 둘의 관계를 “묘한 문구를 주고받음이 연기와 구름이 다투고 짝을 이룸과 같다(酬酌妙句, 煙雲爭麗)”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종(神宗)이 죽고(1085) 철종(哲宗)이 즉위하면서 선인태황후(宣仁太皇后)가 섭정을 시작해 왕안석이 세운 신법을 폐지하면서 거사는 다시 중용돼 예부랑중(禮部郞中), 중서사인(中書舍人)·한림학사지제고(翰林學士知制誥) 등의 요직에 올랐다. 그러나 선인태황후가 죽고 소성(紹聖)년간(1094~1098)에 신법을 부활시켜 거사는 다시금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결국 해남도(海南島)로 유배됐다.

휘종(徽宗)이 즉위하면서 제거옥국관(提擧玉局觀)이라는 관직에 봉해져 상경하던 도중 큰 병을 얻어 상주(常州)에서 66세로 생을 마감했다. 평생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유작으로 <동파전집(東坡全集)> 115권, <동파역전(東坡易傳)> 9권, <동파서전(東坡書傳)> 13권, <동파지림(東坡志林)> 5권, <동파사(東坡詞)> 1권 등이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불운했지만, 거사의 작품에는 당시에 유행한 후기 조사선사상으로부터 천태·화엄의 교학과 심지어 정토와 관련된 글까지 있어 해박한 불교사상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거사는 불교사상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 바로 송대 거사불교의 귀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 정보 733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 임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자락
- 면적 답 300평, 임야 200평
- 임시주거지 70평(콘테이너)
- 계곡물이 좋고 산세 수려한곳 바다가보이고 저수지 옆
- 가액 : 평당 10만원

055)855-5950
018-622-9865

사찰 (급)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요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 흑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011-9402-9306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 옆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탱화,영단 갖추어져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 양도 즉시법회가능.역학 보살님도 가능

010-8283-5251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 사찰 부지터 대지 68평
- 법당 14평(기초공사완료)
- 요사채 13평 완료
- 주차장 이용가능
- 가액 : 4천 5백만원

011-503-8989
010-8589-655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 전철역 옆 인근 재래시장
- 2층 약 30평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방2,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572-126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은행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정종환약국 옆 건물 2층
- 2층 50평 법당, 방2개, 주방 별도
- 삼존불,신중,후불,약사여래 탱화.시설 일체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2만원 시설비 일체 : 2,000만원

011-862-8275
010-7100-0863

암 자 안 내
- 위치 :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요사채, 옆산, 연꽃 연못, 텃밭, 마당잔디
- 총 320평
- 임대보증금 350만원 1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1억1천만원

017-813-912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웃음보살 불등거사 〈46〉

구성 : 김흥인



거울 속의 자기(自己)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사람이 몹시 곤궁해 많은 빚을 졌으나 갚을 길이 없었다. 그곳을 피해 아무도 없는 넓은 곳으로 도망친 그는 보물이 가득찬 상자를 보았다. 보물 상자는 거울이 덮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 기뻐서 그것을 열려고 하자 거울 속에 사람이 보였다. 놀란 그는 합장하고 "상자에 그대가 있는 줄은 몰랐다. 성내지 말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범부들도 또한 그와 같다. 나고 죽는 마왕(魔王)으로부터 한량없는 번뇌의 시달림을 받고는, 생사를 피해 부처님 법안에 들어와 선한 법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으려 한다. 그러나 보물 상자를 보고 거울 속의 제 얼굴에 미혹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망령돼 '나' 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곧 집착해 그것을 진실로 여긴다.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보물 상자를 버리는 것처럼, '나' 라는 소견에 집착하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행사 스님이 법을 전하다
행사전법(行思傳法)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행사전법(行思傳法) 편, 불입사판 1673년 간행, 반곡각본(盤谷刻本) 272×180m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육조대사의 제자인 행사 스님이 법을 전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행사(行思, ?~740) 스님은 중국 당나라의 선승(禪僧)으로 속성은 유(劉)씨이며, 노릉(江西省 盧陵) 출생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선종(禪宗) 제6대조 혜능(慧能)에게 배웠으며, 남악 회양(南岳懷讓:臨濟系)과 더불어 그 법통을 이어받고, 스승이 죽기 2~3년 전에 청원산(靑原山)의 정거사(靜居寺)에 거처하면서 법을 펼쳤다. 중국선종(禪宗)의 일파인 조동종(曹洞宗)의 제7대조가 됐으며, 그 문하에서 조동종 이외에 법안(法眼) · 운문(雲門)의 2종(宗)이 나와 당나라 말에서 송(宋)나라 초에 걸쳐 크게 발전했으며, 제자가 불법(佛法)의 요의를 묻자 "노릉의 쌀값은 얼마인가"라고 되물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본문을 살펴보면 "어느 날 육조대사는 행사 스님에게 말했다. '의발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법은 마음에 도장 찍는 일이다. 나는 지금 법을 전할 사람을 얻었으니 어찌 믿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라며 법을 전했다. 스님은 득법하게 되자 공손히 교체해 돌아가겠다고 고하고 길주의 청원산 정거사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육조대사가 곧 시멸하게 될 무렵에 희천이라는 사미가 있었는데 그가 육조대사에게 물었다. '큰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희천은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조대사가 말했다. '계속 찾고 생각해라.' 그 후 막상 육조대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희천은 늘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적적히 말이 없이 마치 삶을 잊은 사람과 같았다. 이에 수좌 스님이 물었다. '너희 스승은 이미 갔는데 공연히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희천 스님이 말했다. '나는 육조대사의 유계를 받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좌스님이 말했다. '너에게는 사형인 행사 스님이 있는데 지금 길주에 갔다. 너는 인연이 그 분에게 있다.' " 이로써 육조대사의 법은 행사 스님과 석두 희천(石頭希遷)으로 이어져 조동종으로 크게 발전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꽃의 진언

뿌리를 잃은 날부터 난 내가 아니었다
한 몸뚱이 싹뚝, 잘린 순간부터
물관과 체관의 어긋난 길은
가슴을 옥죄어 왔다

사람이 사람을 건너 사막에 가듯
나는 나를 건너 이곳에 왔다

빛 한 칸 들이지 않는 2인용 식탁위에서
가끔은 행복을 가장하기도 했지만
누군가 꾸며 놓은 공간에서
한 순간 깔깔 웃기도 했지만

이제 내 안의 후리지아 향기를
놓아 주며 시들어 가는 것이다

더 이상 혈액은 내 몸을 돌지 않는다
다시는 뿌리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감지하는
나는 분리의 출혈을 예감한다
야윈 목을 꺾어 내 지친 한 생애를
소리 없이 뉘인다

어디선가 내가 다시 피고 있다.

–김인구/〈작가연대〉2009년 상반기호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사-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대행 스님

어서 하루바삐 깨쳐서 여러분이 훨훨 날아 보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종이 떨어진 거를 주워 봐라." 하셨더래요. 주워 보니까 향내가 나는 향 쌌던 종이더랍니다. 또 가시다가 "새끼오락지를 주워 봐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새끼오락지를 주워 보니까 생선 묶었던 새끼오락지더래요. 그러니까 썩은 비린내가 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은 새끼오락지 냄새를 맡으니까 어떻더냐?" "썩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지금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초발심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나쁘게 하거나, 또는 싸움을 하거나 피비린내가 나게끔 한다면 이 새끼오락지와 같은 거니라. 그리고 향 쌌던 종이는 모든 친구들과 서로 의합하게, 서로 이해하고 또 나쁘고 좋은 거를 알아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몸뚱이를 잘 이끌고 가는 데에 의해서 그 모든 향음이 전부 두루 하느니라.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고, 또는 집 없는 데서 자거나 하는 법이 없느니라. 향음이 가득 차 있고 꽃이 만발했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꽃이 만발했다 하는 것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무궁화꽃 위에다가 횃불을 세워 놓고 저거 해 놨죠? 비둘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데 부처님만을 상징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떨어질 것도 없죠. 그와 같이 연꽃으로 상징했지마는 나라를 비유할 때는 무궁화꽃으로 하죠. 무궁화꽃이든지 연꽃이든지 다 한 마음에서 나가는 겁니다. 불가에서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왕의 은혜, 세상 국민의 은혜, 사장(師長)의 은혜, 또는 지수화풍의 은혜, 만물만생의 은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모두 은혜 아닌 게 없죠. 길을 딛고 다니는 것도 은혜요 물을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불의 은혜, 바람 공기의 은혜, 낳아 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모두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 모두 같이 공생하고 공용하면서 공체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바로 우리가 나라를 상징해서 무궁화꽃 위에다가 넣은 것은 마음의 꽃을 말합니다. 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가정, 사회 모두 들어갑니다. 모든 은혜가 전부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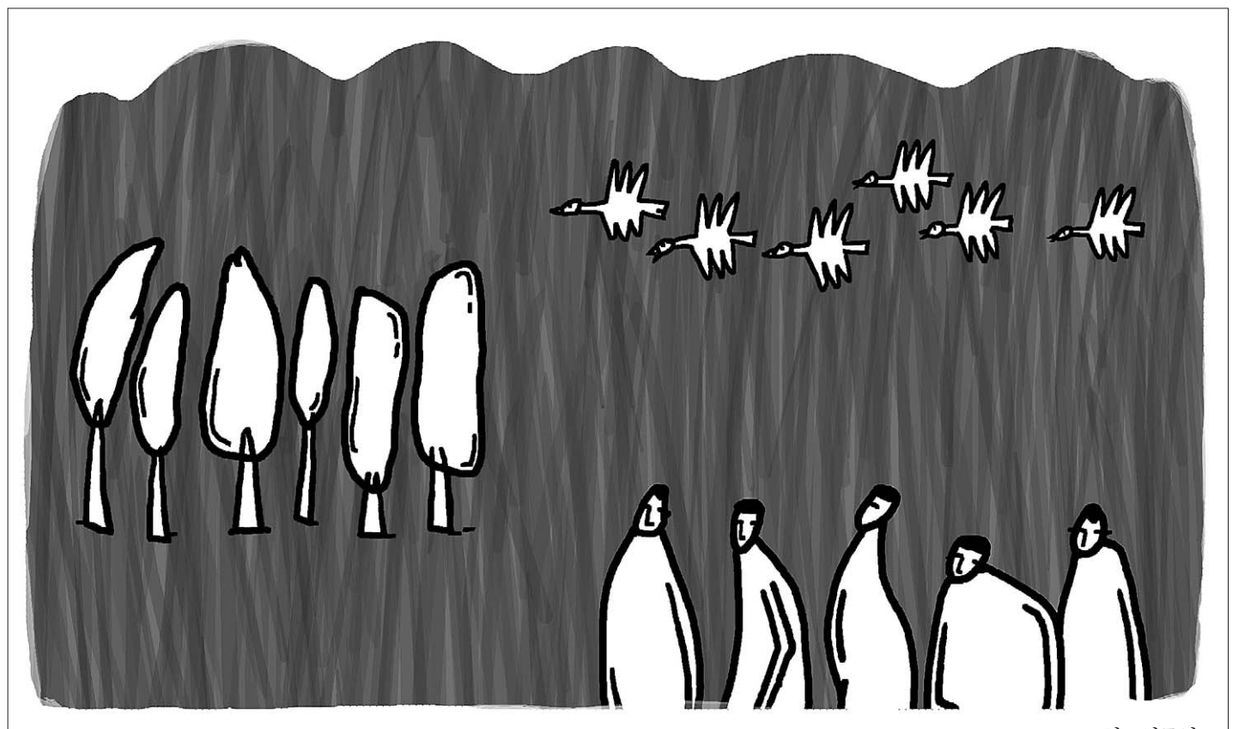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의 꽃이란 얘깁니다. 마음이라는 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을 일으키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불인데 비둘기가 서로 입을 대고 있죠? 그거는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만약에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살려고 그러면 살아집니까? 생명은 다 똑같으니 공생이요, 마음은 다 똑같으니 공심이요, 몸뚱이는 다 똑같은 물질이니까 공체요, 이게 전부 같이 돌아가면서 주고받고 먹는 거기 때문에 공식화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회장이 있으면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그렇듯이 직원이나 사장이나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높은 산은 얕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지 얕은 산이 없었다면 높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거나 높은 거나, 직원이나 사장이나 다 평등한 겁니다. 사장이 없어도 아니 되고 직원이 없어도 아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진리가 전체를 상징한 겁니다.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과 돌을 잡고선 탁 치면 거기서 불이 번쩍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불을 켜고 살았죠? 부싯돌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진리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단 얘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 없고 인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죠.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인연의 법칙은 그대로 발전의 원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신계와 육신계가 그냥 합일해서 상응하고 작용하고 돌아간다면 큰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넓혀서 생각을 내야 되겠죠. 넓히는 데는 마음은 체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끌고 다닌다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듯이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세상을 알라." 이랬거든요. 자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남에게 길을 리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현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더 생각해 보고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상징으로 무궁화꽃에다가 횃불을 해 놓고, 횃불 위에다가 서로 입을 대고 있는 비둘기를 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즉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이 세상 모두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상응을 해야 발전도 하고 창조력도 기르고 창조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물리학도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 떠나서는 없습니다. 생활이 그냥 과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과학입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떠한 거든지, 마음의 한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한 점!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마음의 한 점은 우주를 싸고도, 바로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떡 하나를 놓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다 공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신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세생생에 잡초라면 잡초끼리 만나는 것이고, 금이라면 금끼리 만나는 것이고, 넝마라면 넝마끼리 만나고 모이게 됩니다.

이 세상 이치를 잘 보십시오. 깡통이면 깡통끼리 모이고 그러듯이 인간도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점에 가 보십시오.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채소는 채소대로 놨습니다. 그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일거일동 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데서도 마음의 차원대로, 차원이 1차원은 1차원대로 모이고 2차원은 2차원대로 모입니다. 새들은 새들대로 모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모이고, 짐승은 짐승대로 모이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모이고,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한 가지를 잘 쓰면, 주인공에다 맡기고 잘 다스리면 차원이 그렇게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즉 평등공법으로서의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써 자유자재할 수 있는, 중용을 할 수 있는 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상징으로 해 놓은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마음을 한생각 내면 불이요, 불이 일어나게 되면 사방에 모든 세상을,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불바퀴와 같으니까 모두가 같이 중용을 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천지를 한마음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내 몸뚱이를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떳떳하게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 바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면 마음은 이 세상 어디고, 수억겁이 걸리는 먼 데도 한 찰나입니다. 암흑 속에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광(光)이 일어나

☞26면으로 계속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부처님의 수행방법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미얀마 파욱센터 우레와따 사야도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봉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본불교에 입각한 교리강좌와 수행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레와따 사야도 초청 집중 수행
수행일정 : 1차 2009년 6월 1일 ~ 6월 7일
2차 2009년 6월 8일 ~ 6월 14일
3차 2009년 6월15일 ~ 6월21일
4차 2009년 6월22일 ~ 6월28일
입실시간 : 오후 5시 까지, 장기수행 가능
준 비 물 : 편안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개인컵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



◉외부 특별 법문
일 시 : 6월 20일 (토) 오전 10시~11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사마타 위빠싸나 명상 (진경스님 지도)
일 시 : 2009년6월6일(토) 2시~6시까지
장 소 :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02-3411-8103

◉장기수행도 가능 〈언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봉인사 한길정진원 031)574-5585
www.bonginsa.net

buddhanews.com

과학도 철학도 어떠한 것도 마음의 한 점에서 나옵니다

☞25면에서 계속

고 그래서 은하계가 생기고, 또 그것이 생겨서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면 또 은하계도 많아지고 혹성도 많아지고 별성도 많아지고, 태양계도 많아지고 이러는 원인이 우리네 마음의 그 불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긴 얘기와 짧은 얘기를 엄청나게 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게 정말 이럴까?' 하고 뒤로 물러설까 봐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것만은 다 이해해서 듣고, 모든 것은 바로 각자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이 없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내 가정도 상대도 세상도 모두가 무효라는 거, 여러분으로부터,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긴 것도 여러분의 마음 탓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써 끌고 다니는 육체를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좀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내 마음의 주인, 영원한 친구! 그 친구가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것이다. 나를 자유스럽게 만들 것이다. 나를 발전하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것이다. 모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한마음의 주인공에 전부 가설이 돼 있으니까 둘 아니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모두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부모라는 것도 아는 그 마음의 줄이 바로 얽히고설켜서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모든 주위의 환경도 전부 자기 탓이라고 돌리시고,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주인공!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지 마라!' 하고 거기다가 맡기세요. 진짜로 발전하고 경험을 얻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시려면 꼭 내 주인공을 믿고 꼭 거기다 맡기시고 일임하고 주인공과 더불어 자문자답하시고, 울더라도 주인공을 잡고 우세요. 그런다면 좀더 멋있는 살림살이가 형성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라 그래도 안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 질문해 봐요.

질문자1(남):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요?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오는 대로 나누어 먹고 가는 거 잡지 않아요.

질문자1(남): 얼마큼 드십니까?

큰스님: 그것도 대중없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요.

질문자1(남): 하루 종일 드십니까?

큰스님: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었고,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는 굶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굶었다고 굶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먹을 걸 걸머지고 다니지 않으면 먹을 게 생기는 거고요, 먹을 걸 짊어지고 다니면 먹을 게 안 생겨요. 참 그게 아주 묘한 도리죠. 여러분도 한마음을 느끼시고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주인공에다가 맡기시고요.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질문자2(남):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 속에 중생이 들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들어 있으니 어찌 둘이겠소? 이거 봐요. 댁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라면 불이 없어서도 안 되고 바로 여러분 자체가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중생이자 부처고 부처이자 중생이에요.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면 그 부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고, 아까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는 노래 불렀죠? 일체제불의 그 마음이 내 한마음이라는 거, 그 노래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닐 테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고, 또는 우리가 다 물리가 터져서 제대로 파악한다면 부처고 중생이고 언어가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질문자3(남):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큰스님: 사후의 세계요? 이 자리가 사후의 세계도 되고, 이 자리가 지금 현재의 세계도 되죠. 왜냐하면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공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도, 천당도 이 자리고 지옥도 이 자리고, 하하하…, 죽는 자리도 이 자리고 사는 자리도 이 자립니다. 그러니까 어서 하루바삐 깨쳐서 여러분이 훨훨 날아 보십시오.

질문자4(남): 큰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말입니다, 두 번 죽고 한 번 나투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죽는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큰스님: 죽는다는 뜻이요?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말이 나오지요. (대중 웃음) 여러분이 여기에 걸어 들어오실 때 발자취를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으셨죠? 네?

걸음을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대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냥 막 돌아가요. 그 도리를 알고 내 주인공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는 것이, 돌아가는 거기 한군데다가 뭉쳐 놓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나 하나를 나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포괄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죽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 내가 아프다,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있다' 이러죠?

그런데 진리를 볼 때에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고,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하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을 깨닫으면 그 도리를 알게 돼요. 물리가 확 터지니까요. 왼쪽 두뇌, 바른쪽 두뇌 이 상반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말할 땐 이렇게 합니다. 송과체 통과제가 이 모든 작용을 하는 한 점에 그 뭐라고, 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확산을 시켰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작용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죽는 것도 알고 사는 것도 알죠. 나중에 가서는 죽고 사는 그런 것이 바로 무효다 하는 것이 돼요.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자5(남):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큰스님: 우리가 지구에 한데 붙어서 사는 생명들인데 다른 종교가 따로 있겠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건 각자가 '이거는 내 종교다' 하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창살 바깥을 못 나가는 것뿐이지, 그건 개별적인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를 생각한다면 모든 게 한군데에 있습니다. 즉, 조각조각이 나서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크게 가지라는 얘깁니다. '요거는 내 종교다' 하고 발 한 짝을 놓지 못하는 소인은 중생이라 하고, '내 마음은 어디든지 통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옹졸하면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바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넓게 보시고, 영의 세계나 유체의 세계나 모두가 둘이 아니게, 이 세상만사가 다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회색 옷을 입은 것도 살아 있다 죽었다, 여자다 남자다, 똥이다 서다 이러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는 뜻에서 이 먹물옷을 상징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중심을 제대로 두셔야 합니다. 중심이 즉 돌아가는 심봉과 같은 겁니다. 핵 자체가 있습니다.

> 꼭 내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일임하고
>
> 주인공과 더불어 자문자답하면서
>
> 울더라도 주인공을 잡고 우세요

예를 들어서 전자와 전자가 붙으면 에너지가 나오듯이 유체 무체가, 무심이 한데 합쳐지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제각기 마음 먹기에 달린 거지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건 무한량이기 때문에 넓게 쓰면 넓은 것이요, 둘이 아닌 것이요, 또는 좁게 쓰면 만날 각자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부 하나인데 모두 각자가 마음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건 있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융합이 되지 않고 그저 이거는 너의 집 이거는 내 집, 너 나 이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궁화꽃 진달래꽃 연꽃, 이 꽃 저 꽃, 꽃이 수없이 많지만 무슨 꽃 무슨 꽃 해서 꽃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꽃은 많지만 꽃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질문자6(남): 큰스님, 책을 보니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다 보면 신통력까지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신통력까지 못 버리고 거기 휘말려 버리면 무당이 되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당이나 그런 신통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나 점을 봐 주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큰스님: 이거 봐요. 내가 이 물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볼 수만 있어요.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볼 수만 있는 것은 도가 아니요, 듣는 것만 해도 도가 아니요, 가고 올 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요, 남의 마음을 빤히 다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요, 모두가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내가 봤으면 집어다가 주기도 하고 먹을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도예요. 먹지 못하는 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이 다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신통이라는 것이 만약에 통이라면 통 안에 있을 때는 통을 굴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다면 이거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이거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만,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영 이거를 굴릴 수 없다. 즉 말하자면 중용을 못한다 이 소리죠.

질문자6(남): 그 통 밖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마음을 내고 그런 걸 해도 실천이 안되는 겁니까?

큰스님: 하는 사이 없이 하게 되는 것이 그대로 법이에요. 우리 생활 자체에, 깨달은 분들은 생활 자체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생활 자체가 여여한 거죠.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엄청난 도리를 알게 돼 있고, 살아나가는 데 모든 것을 좀, 아주 능통하고 능률 있고 아주 푸근하고, 정말 어떻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부자인 것입니다.

사회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문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대단히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가 있을 걸로 믿고 질문을 생략할까 합니다.

큰스님: 그럼 여러분, 바로 자기들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을 진실히 믿고 거기다 맡기시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그 믿음! 앞에 닥치는 것대로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실험하시고 체험하세요. 그렇게 해서 연방연방 마음을 넓혀 가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좋은 도리이고 묘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위 법문은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9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 ₩98,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98,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 ₩98,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9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98,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98,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漢 한 文 글 〈겸용〉불교상용 의식집 (수정판) 안내!

겸용 의식집 5권이면 漢文염불, 우리말 염불, 경전공부까지 다른 책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귀. 내용소개 - 염불내용 알고 집전하는 의식집

1. 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 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경전의 내용으로 (한글염불+한문염불)을 부분마다 겸하여 조직을 하므로 독송이나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 겸용 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염불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출장시에도 편리하며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염불외의 내용은 가급적 배제 하였습니다.
4. 겸용 의식집은 염불중(운운)을 없게 하고 집전자의 애로를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나 초보자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 삼청하는 청사를 (2청은-기존염불). (1청은-우리말) 염불로 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도 우리말 염불과 경전공부를 쉽게 숙지할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제 1권 (예경 / 각청편) – 15,000원
제 2권 (천도 / 시식편) – 15,000원
제 3권 (수계 / 방생편) – 13,000원
제 4권 (장의편) – 13,000원
제 5권 (점안편) – 15,000원 [全 5권 71,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054)974-1345 /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한방 (韓方) 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날 것 그대로의 욕망

지옥과 업경대는 저승에 대한 전통적 사고 속 풍경 안에 함께 등장한다.

옛날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있는 지옥을 어느 정도 믿으면서 대왕 앞에 놓여 있다는 업경대라는 거울 역시 신비의 어떤 한 물건 정도로 믿고 있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어떨까?

과학을 믿는 현대인들은 지옥은 '설마 그런 것이.....' 하면서도 업경대라는 존재의 가능성은 옛 사람들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과학 덕분이다.

과학은 지금 이승에서도 개개인의 언행을 기억해 남기기 시작했다. 하물며 무소불위의 저승세계 주인이야 무엇인들 못할 것인가.

현대인들의 이승에서의 삶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살면서 우리 행위의 잘 잘못을 낱낱이 살피다가 경신(庚申)날 우리가 잠들면 몰래 하늘로 올라가 천제에게 이를 고해바친다는 도교의 삼시(三尸)라는 벌레가 아니라, 돌이나 모래에서 채취한 규소라는 것으로 만든 반도체라는 것이다. 기억을 하는 것이 생물이 아니라 업경대와 같은 무생물이다.

도시의 길거리마다, 대형 빌딩마다, 아파트 단지,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CCTV라는 것이 깔려 있어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된다.

생활환경의 유비쿼터스화는 편리함이라는 유혹으로 개인의 활동 하나하나를 기억하도록 설계돼 가고 있다. 이승에서의 업경대는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다. 유전자라는 것도 이승의 미래 '업경대'를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다.

이러니 현대인들이 업경대 존재 가능성을 어떻게 의심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옥의 존재는 믿지 않고 업경대의 존재 가능성을 믿게 되는 현대인들은 옛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원초적 욕망이라든가 대단한 비밀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것이 발가벗겨지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벗어도 좋다는 쪽으로 나가게 될는지 모른다.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드러나더라도 뭐가 부끄럽겠는가?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런 것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옥은 없고 업경대는 진화해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모습을 인터넷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나 할까?

요즘은 그 변화에 뒤질세라 공중파 방송들까지 '자신들의 본분이나 위치'마저 잊은 채 '날 것 그대로의 욕망들', 패륜과 불륜과 흉악 범죄와 거짓말과 저질화 된 사회를 영상으로 만들어 다투어 우리들 안방으로 쏘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보면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 TV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만약 현대인들이 저승 염라대왕 앞에 있는 업경대 앞에 서서 '뭐가 죄업이란 말입니까? 약육강식, 욕망의 세계를 사는 인생이란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인생 공부 좀 하세요.'라고 대들지 말란 법도 없겠다.

문화나 문명은 인간 삶 안에 있는 무질서와 폭력 · 불안 · 공포 · 불편함 등을 줄이면서 품위 있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윤리나 도덕 종교와 함께 발전해 왔다. 여러 종교가 나름대로 내 놓은 '지옥'도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정제하려는 방편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무질서와 폭력,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만들어 내는 패륜과 불륜자체가 지옥일진대 요즘 TV는 시청자들에게 그 지옥도를 보여주며 지옥이 이 땅에 현존함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삶의 품위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목마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개발에 앞서 정신문화도 챙겨야

"좌절도 하지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망중한의 자세로 가라."

5월 21일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들의 예방을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일성이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개발 정책에 대해 "경제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시킨 환경부의 방침을 비롯한 개발 논리에 대한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에는 "경제 성장이 국민의 행복지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관스님의 심중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다.

조계종 행정 수반의 이 같은 의견은 사찰의 수행 환경이 침해 받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 받는 상황에서 매우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이 사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 되는 등 일련의 개발위주 정책에 대한 일침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최근 전통 사찰의 경내지를 국 · 도 · 군립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결의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유산 보존 기능을 무시한 정부의 처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다. 우리는 그간 전통 사찰의 공공의 기능과 민족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에 대한 노력이 개발논리에 침해 받는 것을 여러 차례 우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불교계의 여망과 반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와 더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함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불교와 의학의 만남'에 거는 기대

동국대 의료원과 불교문화연구원이 5월 28일과 30일 여는 봉축학술세미나의 주제는 '불교와 의학의 만남'이다. 이번 행사는 개인 및 학회 단위로 이뤄졌던 불교의학 연구를 한국불교학의 중심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동국대 의료원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최 측은 "최첨단 의료연구 분야인 뇌신경과학, 경락 등과 불교의 심신수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불교와 의학의 긴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 말했다. 경전과 선사들의 법문을 언급하지 않아도 주위를 돌아보면 불교와 의학의 만남 뿐 아니라, 불교가 접목될 분야는 많다. 예술은 물론 정치, 경제 등 사회의 어느 분야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응용학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것과는 달리 성과는 아직 크지 않다. 그러나 분야별 연구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체계도 폭넓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사들의 활활발발한 선기(禪機)처럼 생동감 있어야 할 불교가 일주문에 갇혀 세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항상 있어왔다. 이번 동국대가 맺은 '불교와 의학의 만남'이 불교와 세간의 다양한 학문의 결합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다시 한 번 생각할 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가족이라는 인연에 감사해요"

5월의 테마-가정

"우리 집은 저의 막내아들 덕분에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거사님이 말했다. "식구들이 의견이 안 맞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 만 그 아이만 보면 다들 잠잠하게 되거든요." 대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기에 그럴까 싶었다. 공부 잘 하고 착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무엇보다 부모와 형제에게 효도하는 아들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었다. 거사님의 막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한 정신지체 장애우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돌보아 주고 있었다. 수십년이 지나는 동안 가족들은 그를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해 지내왔다고 한다. "우리 집 복덩이지요"하는 거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그 놀라운 긍정과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의 법어가 떠올랐다. '남이 내게 잘해 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 그 가족은 아들에게 받을 것, 못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인연에 무조건 감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기대하는 바가 더 많고 상처받기도 쉽기 때문이다. 외국의 어떤 저명한 가족상담가가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수십년간 가족문제를 상담한 결과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간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간에 조그만 갈등이나 차이가 있어도 우린 문제가 있다,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생인 인간들끼리 어떻게 항상 한 마음일 수 있겠는가. 문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차이를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사랑이다. "잘난 남의 어머니보다 못난 내 어머니가 낫다"라는 말씀이 있다. 아무리 인정하기 어려워도 가족의 인연은 내가 지어놓은 것일 뿐이다. 수억겁을 거친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가족으로 이 생에 만난 인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내 탓으로 돌리며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자비심과 정진이 필요할 것이다.

강의할 때 '감사한 일에 대해 써보기' 시간을 가끔 가진다. 불자들은 대개 108개를 거뜬히 써낸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스님께서는 "저는 1번부터 쓰려고 했는데 자꾸 그 앞에 영순위가 떠올라 0번부터 시작했어요." 하신다.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 1번이 아니라 0번으로 하게 됐어요." 일체 중생을 세세생생 자비로서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러한 부처님의 자녀인 불자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해진다. 부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버이이신 부처님과 같은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사생자부이신 부처님, 당신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황수경
동국대 강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수시모집」
2. 교육내용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 범패 - 거불, 복청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등
•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게, 다게 등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1,2권 2,100 페이지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1권 2,745 페이지
가격 :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1.가정안택의식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釋 慧 草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2.사무실고사의식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3.자동차고사의식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4.선박고사의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기타편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삼재살 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梵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상실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은 싹트고…

13 회암사(하), 흥함도 멸함도 없는 곳


지공 선사 탑 · 석등 · 부도.


나옹 선사 탑비.


무학 선사 부도와 석등.

삼화상의 부도탑비 수난의 역사 그대로 보여줘

지공 · 나옹 선사 부도 19세기 다시 건립… 상석 등 유교 영향 받은 듯

무학 왕사 부도 난간 속에 모셔진 독특한 양식 눈길

임자년 가을에는 지공(指空) 스님이 지시한 "삼산양수지간(三山兩水之間)에서 주석하라"는 기별이 우연히 생각나서 곧 회암사로 이석(移錫)하려 했는데, 때마침 왕의 부름을 받아 회암사 법회에 나아갔다가 여기에 주거(住居)해 달라는 청을 받았다. 스님이 이르기를 "선사(先師)인 지공 스님께서 일찍이 이 절을 중창하려고 계획 했는데 병화(兵火)로 불타버렸으니 감히 그 뜻을 계승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에 대중 스님과 협의해 전당을 확장해 공사가 모두 끝나고 병진년 4월에 크게 낙성법회를 열어 회향했다. 이 때 대평(臺評)이 유생의 입장에서 불교의 왕성(旺盛)함을 시기해 말하기를 "회암사는 서울과 매우 가까운 거리이므로 청신사와 청신녀들의 오고감이 계속 이어져 밤낮으로 왕래가 끊이지 않아 혹은 지나치게 맹신(盲信)해 생업을 폐하는 지경에 이르니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 했다.

회암사 오른쪽 능선에 삼화상(三和尙-지공 나옹 무학)의 부도와 탑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옹 선사의 탑비(선각왕사비, 보물 제387호)는 왼쪽 능선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1377년(고려 우왕 3)에 세워졌던 '선각왕사비'는 1997년 3월 성묘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에 비와 비각이 훼손돼 귀부만 남은 자리에 1999년 8월 다시 세운 것입니다.

앞의 인용 구절은 그 비문의 일부입니다. 회암사의 중창불사 규모와 나옹 선사의 당시 지명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장입니다.

비문 속의 임자년은 1372(고려 공민왕 21)년인데, 나옹 선사는 그 한 해 전에 공민왕의 왕사로 책봉됐습니다. 왕사의 신분으로 회암사에 들렀다가 스승인 지공 선사의 유지를 생각하고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게 된 사연입니다.

지공 선사는 원나라의 법원사(法源寺)에서 나옹 선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귀국 하거든 삼산(三山)과 양수(兩水)가 합친 중간 지점에 마치 인도의 아란원사(阿蘭院寺, 나란타사)와 꼭 같은 터가 있으니 그곳에 절을 지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나옹 스님은 1347년 원나라로 구법의 길을 떠났다가 다음 해에 원나라 법원사에서 지공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선기가 성성한 문답이 오고 갔고 인도의 선사는 고려의 구법승을 제자로 인가하여 불사를 부촉한 것이니 불법의 전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느끼게 합니다.

인용한 비문에 의하면 회암사 중창불사는 병진년, 그러니까 1376년(우왕 2)에 완성이 됩니다. 5년간에 걸친 공사를 회향하는 마당에 유생들이 '불교의 왕성함'을 시기해 나옹 선사를 모함하게 됩니다. 왕도 어쩔 수 없이 불사의 회향을 앞두고 나옹 선사의 거처를 밀양 땅으로 옮기게 하고, 가는 도중에 병을 얻은 나옹 선사는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게 됩니다.

비문에는 나옹 선사가 회암사를 떠나는 장면도 묘사돼 있습니다.

'스님의 가마가 열반문을 통과할 때 모든 대중이 무슨 이유인지를 의심하면서 실성 통곡하므로, 스님께서 돌아보시고 말하기를 "노력하고 또 거듭 노력해 나로 인해 슬픔에 잠겨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마땅히 여주에서 그칠 뿐이다"라고 했다.'

나옹 선사는 자신이 회암사를 떠난 뒤에도 대중들이 정진과 불사를 계속할 것을 주문하면서 신륵사에서 입적할 일까지 미리 예고했던 것입니다.

목은 이색이 지은 나옹 선사의 비문은 회암사 말고도 여주 신륵사 석종 옆에도 있습니다. 북한 지역인 영변 안심사에는 지공스님과 함께 모신 사리석종이 조성됐는데 탑비는 역시 목은이 지었습니다. 부도의 맞은편 능선을 지키고 서 있는 새로 조성된 탑비는 뒤편 과거의 탑비를 얹었던 귀부와 매우 어색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씨 하나를 잘못 간수해 나라의 보물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이 한탄스러을 뿐입니다.

회암사 경내를 지나 삼화상의 부도가 모셔진 능선으로 오릅니다. 제일 위쪽에 나옹 선사의 부도와 석등이 있습니다.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하는 이 부도는 1376년 나옹 스님의 입적 직후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1821년에 이응준에 의해 훼손 된 것을 1828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때문에 양식적인 면에서 매우 간소화 됐고 비율도 그리 훌륭한 편이 아닙니다. 앞에 뭉툭한 사각형 상석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석등이 서 있습니다. 상석이나 석등 역시 모양새가 매우 단조롭고 간결합니다. 원래의 탑비는 지역의 토호인 유학자에 의해 훼손됐고 나라는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급하게 조성한 탑비가 간결하고 균형을 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물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아래 위치한 지공 선사의 부도와 석등 역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인데, 나옹 선사의 부도와 엇비슷한 양식입니다. 부도가 맨 뒤에 서 있고 앞에는 4각형의 상석이 놓여 있으며 그 앞에 왕릉의 장명등을 연상케 하는 석등이 서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탑비가 서 있고 옆에는 원래의 탑비를 얹었던 몸돌을 잃은 귀부가 망연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지공 선사는 인도의 제108대 조사입니다. 인도 마가다국 만왕(滿王)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왕자이며 8세 때 나란타사 율현(律賢)을 스승으로 계를 받았으며 나란타 대학의 마지막 졸업생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번성했던 나란타사가 이슬람교도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기의 승려인 지공 선사가 중국으로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1326(충숙왕 13)년 고려 땅에 처음 들어 와 2년 반 정도를 머물렀는데, 금강산에서 양산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참배를 하고 정진했습니다. 그 과정에 지공 선사는 회암사를 거쳐 갔고 지형이 나란타사와 유사해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려는 발원을 했고 그 발원은 제자인 나옹 선사로 인해 이루어진 셈입니다.

원나라에서 1363년 입적한 지공 선사의 영골과 사리가 고려에 전해진 것은 7년 뒤입니다. 공민왕이 친히 왕륜사에서 모셨으며 다시 나옹 스님이 1372년에 회암사에 부도를 세워 안장했던 것입니다.

나옹 선사나 지공 선사의 부도가 다시 세워진 것이 19세기 후반인 점을 감안해 보면, 고려시대까지의 부도 앞에는 대개 상석이 없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숭상하는 조선 시대에 제례문화가 발달하면서 부도에도 제사를 모시는 도구인 상석이 자연스럽게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는 묘탑이므로 당연히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사고(思考)였겠지만, 생사를 초월한 자리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선의 황금시대, 신라말에서 고려대에 이르는 때와는 엄청나게 달라진 불교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맨 아래 위치한 무학 왕사의 부도는 매우 화려합니다. '양주 회암사 무학왕사 홍융탑'이란 이름의 이 부도와 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쌍사자석등은 보물 제388호와 38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부도와 석등은 이응준의 횡포를 당하지 않고 원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는 왕사인 무학 선사의 부도탑을 입적 전에 준비했습니다. 무학 선사는 1405년에 입적했고 부도는 8년 전인 1397년에 조성해 두었으며 입적 2년 뒤인 1407년에 사리를 부도에 안치했던 것이니 태조는 그만큼 왕사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부도의 양식은 팔각원당형을 이었는데 둥근 탑신에 새겨진 용무늬는 아주 걸작입니다.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한 조각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부도는 이전 시대와 달리 돌로 만든 팔각의 3단 난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의 모습이 절반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대석으로 쌓은 난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태조의 존경심이 그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이후 시대의 사조(思潮)가 억불숭유로 급격히 흐르고 불교가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1620년에 조선된 봉인사불사리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사자석등은 화사석과 지붕돌이 단순한 조형인데 비해 중대석을 쌍사자로 화려하고 힘차게 묘사했으며 하대석에는 8개의 연꽃잎을 새겼습니다. 연판 모서리에는 고사리 모양의 영기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라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지는 석등의 양식을 보여준다는 것이 학자들의 시각입니다.

현재의 부도탑비는 후대에 다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 탑신받침과 이수로 보이는 석재 일부가 몸돌을 잃은 허허로움을 가득 안고 놓여 있습니다.

회암사지와 회암사에는 온통 상실의 시간이 들어차 있습니다. 한 때의 번성이 오랜 시간의 폐허로 남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가 봅니다. 그러나 역사의 인과 관계는 시공을 초월해 생명을 이어 갑니다. 나란타사의 영광이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 본 지공 선사가 이역만리 고려에 나란타사와 같은 대찰을 건립하고자 발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흥함은 흥함이 아니고 멸함도 멸함이 아니라는 것이겠습니다. 흥하고 멸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중생의 마음에는 흥함도 없고 멸함도 없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